

문화 역사 관광의 땅

탄현 마을지



탄현 마을지

차례

여는글 · 05

01 탄현면의 지명유래와 마을 이야기 · 07

02 고지도로 본 옛 탄현의 모습 · 55

03 탄현의 인문환경 · 73

04 대표 종교와 시설 · 121

05 문화재와 보호수 · 131

06 마을제와 조직공동체 · 161

07 탄현의 세거문중 · 183

08 사진으로 담은 탄현의 풍경 · 191

09 탄현사람들 이야기 · 209

여는글



이 보고서는 2019년 실시한 파주 조리·탄현 마을 기록화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업은 파주시의 연차사업인 ‘파주시 마을 기록화 사업’과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사업’을 네트워크한 공동사업으로 기획되어, 파주문화원 주관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서로의 역할 분담은 조사기획, 편집안 제시, 조사단구성 및 원고료 부담 등은 경기문화재단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파주문화원은 주민대상 구술조사와 보고서 발간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내부)

조사단장 : **이지훈**(경기학연구센터장)

책임조사원 : **김성태**(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외부)

이윤희(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스토리텔러)

김미애(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수료, 민속학 전공)

양윤정(성신여자대학교 강사, 문화역사지리학 전공)

파주문화원

구술조사 :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동조사보다는 개별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에 있어서 중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소개에서는 그러합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한편, 이 조사와 함께 조립읍의 마을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또 2017년에는 파주 금촌을 대상으로, 2018년에는 월릉면과 교하읍을 대상으로 면지(面誌) 성격의 마을기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 조사는 『파주 금촌마을의 회상과 기록』, 『풍요와 천도의 땅, 교하마을지』, 『희망과 도약의 땅, 월릉마을지』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탄현면의 지명유래와 마을 이야기

이윤희(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1. 탄현면의 연혁

탄현면 지역은 조선시대 말까지 교하군(交河郡) 현내면(縣內面)·신오리면(新五里面)·탄포면(炭浦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교하군 현내면의 갈현(葛峴)·법흥(法興)·맥금(陌今) 지역과 신오리면의 성동(城東)·대동(大洞)·만패(萬牌)·금산(錦山) 지역, 탄포면의 축현(軸峴)·금승(金蠅)·낙하(洛河)·문지(文智)·오금(吾今) 지역, 청암면(靑巖面)의 송촌(松村)·연다산(煙多山)·오도(吾道)의 각 일부 지역, 파주군 오리면(烏里面)의 능동리(陵洞里) 일부, 자곡면(紫谷面)의 덕옥리(德玉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탄현면(炭縣面)이라 하여 파주군에 편입하였다. 탄현면에는 현재 축현, 금승, 낙하, 문지, 오금, 금산, 만



탄현면행정복지센터

우, 대동, 성동, 법흥, 갈현 등 모두 11개 리가 있다.

탄현면의 '탄현(炭縣)'지명은 탄포(炭浦)의 '탄(炭)'자와 현내(縣內)의 '현(縣)'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탄현면의 면소재지는 축현리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비롯해 탄현초등학교, 탄현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탄현면은 1990년대 국가 정책사업인 통일동산 조성사업으로 탄현면 법흥리, 성동리 일대가 통일동산사업지구에 수용되면서 전형적인 농촌마을들이 사라졌으며 이들 지역에는 오두산통일전망대를 비롯해 헤이리예술마을, 경기미래교육캠퍼스(구 경기영어마을), 축구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동화경모공원 등이 조성되었다. 또한, 1994년도 자유로 개통에 따라 자유로 성동IC와 낙하IC가 개설되었으며 통일동산지구 내의 헤이리 예술마을, 성동리~대동리로 이어지는 맛고을, 프로방스, 대형 쇼핑센터 등에는 주말이면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2019년 6월 29일에는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대 통일동산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 발표되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2019년 6월 29일 탄현면 법흥리, 성동리 일대 통일동산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탄현면 성동리와 법흥리 일대 약 300만㎡ 규모다. 1990년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성된 통일동산이 만들어진 지 29년 만이다.

관광특구 지정 지역은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맛고을, 프로방스, 프리미엄아울렛, 카트랜드 등 이미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20만명 넘게 방문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면 국내외 관광객이 더욱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일동산 내 현재 추진 중인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특산물인 파주장단콩을 테마로 생산·가공·유통·판매와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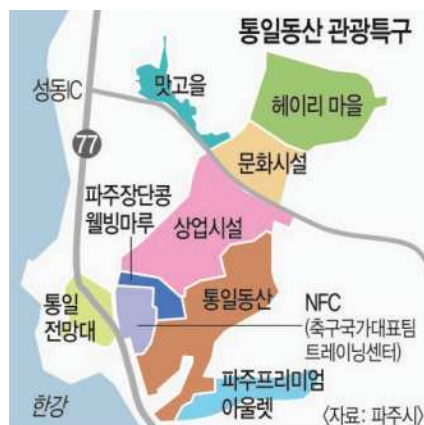
현재 통일동산 지구 내에 가장 대표적인 명소는 헤이리 예술마을이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마을로 약 49만 5,868㎡ 규모다.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에서 전해져 오는 전래농요인 헤이리 소리에서 마을 이름을 따왔다. 미술가,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여 명의 예술·문화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만들어졌다.

헤이리 예술마을 인근에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프로방스 마을,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위치해

있어 쇼핑과 문화, 식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엠넷의 ‘프로듀스 101’ 촬영장소인 한류트레이닝센터가 있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는 광고, 뮤직비디오,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입장료를 무료로 변경하며 관광객의 유입이 더욱 늘고 있다.

또한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콘텐츠월드가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내에 조성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콘텐츠 제작과 체험, 관광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축구장 32개 크기인 21만 3,000㎡ 규모에 달하는 콘텐츠 월드를 구상 중이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공사에 들어간다.

이곳에는 대단위 스튜디오, 특수촬영 스튜디오, 상설 스튜디오, 체험관광시설, 야외 오픈세트 등이 설치된다. 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비와 향후 10년간 제작비 등을 고려하면 2만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연간 25만 명의 유동인구와 12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관광수요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통일동산 지구 전경

헤이리 마을 이야기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05

헤이리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마을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마을로 넓이는 약 50만㎡이며,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미술인,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여 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을 갖추고 있다.

마을 이름은 탄현면 금산리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 농요 ‘헤이리소리’에서 ‘헤이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모든 건축물들은 수십 명의 국내외 유명 건축가가 만들었으며 산과 구릉·늪·개천 등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설계되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건축물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정리된 느낌, 헤이리만의 예술적인 감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 주말 헤이리를 찾게 하고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매년 봄과 가을 예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마다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등 시민들도 함께하는 예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다양한 매력 속에서 남녀노소, 가족, 연인, 친구 등 모든 관계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며 예술과 시민사이의 편안한 소통의 장이자 예술마을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

2. 마을별 지명유래

1) 갈현리(葛峴里)

본래 교하군 현내면 지역으로 가루고개 밑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청암면 갈현리, 송촌리, 연다산리, 오도리의 각 일부 지역과 현내면의 맥금리를 병합하여 갈현리라 하였다. 가루개, 가루고개, 갈현이라고도 한다.

갈현리는 조선후기 1731년(영조 7) 장릉이 이곳으로 천장되기 이전까지 교하군의 읍치(邑治)로서 행정관아 및 교하향교 등이 있었던 곳이다.

갈현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갈현리 마을 전경

가운뎃말/가운뎃마을/중촌(中村洞)/중간말

2리에 있는 마을. 갈현리의 가장 중심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갯말/포춘/구개/구포동(舊浦洞)

3리에 있는 마을. 동네 앞에 개펄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장릉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흐른다.



갈현3리 갯말 경로당

네굴이/사곡장터말/갈현장터/네굴이

1리에 있는 마을. 골짜기가 네 개 있어 붙은 이름이다.

능골

법흥리와 갈현리의 경계에 있는 마을. 주위에 장릉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옛날에는 골짜기였으나 지

금은 통일동산 조성사업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다.

새말/신촌

1리에 있는 마을. 새로 생긴 마을이다. 교하현 청사가 이곳으로 옮긴 후 주민들이 몰려들어 조성된 마을이다.

장구촌/장곶진(長串洞)/진구지/장구동

3리에 있는 마을. 이 지역의 산세는 월룡산 준령을 거쳐 바구니고개를 지나 인왕산 남맥 골안말로부터 긴 구룡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꼬챙이 모양에 장구같이 생겼으며 그 능선이 거북이등과 같다 하여 장구동(長龜洞)으로도 불린다. 옛날 이 마을 산봉에 진지를 구축하고 이 지역을 수비하였던 곳이라 하여 진구지라고도 한다.



갈현3리 진구지 마을

장터(場址洞)

1리의 네굴이에 속한 마을. 이곳은 옛날 교하현 청사가 있을 당시 생활필수품과 아울러 곡식, 가축시장이 생기게 되어 변화했던 옛 장터 마을이다.

침골(葛洞)

1리에 있는 마을. 마을 주위에 있는 산에 침덩굴이 뒤덮여 있어 붙은 이름이다.

현내동/골안골

1리에 있던 마을. 옛 교하현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현내면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1731년 장릉이 이곳으로 천봉됨에 따라 교하군으로 승격, 현 금릉동으로 청사가 이전되었다.

2) 금산리(錦山里)

본래 교하군 신오리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금산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금산리라 하였다. 보현봉, 선무봉, 문필봉 등의 기암절벽과 임진강의 경관이 뛰어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미, 금의라고도 한다.

금산리 마을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산리 농요마을로 2000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금산리 민요’가 보존되고 있다.

금산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새말/봉촌

2리에 있는 마을. 보현봉 아래 동쪽으로 향하여 있고 마을 뒷산에 나무가 무성하여 봉황새가 와서 살았다 하여 봉촌(鳳村)이라고도 한다.

새재비/조집동(鳥集洞)/사잡리/사잠리/사잡이

1리에 있는 마을. 사잠리를 옥녀산발행의 명당자리라고 한다. 뽕나무를 많이 심어 물레로 실을 뽑아 명주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여 사잡동(絲匝洞)이라 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 조집동이라 바뀌 불렀다고 한다.



금산2리 마을과 보현산

선무루

2리에 있는 마을. 마을 뒷산의 형상이 마치 신선이 춤을 추는 모양과 같다 하여 선무동(仙舞洞)이라 지었는데 발음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

우묵골

1리에 있는 마을. 동네 지형이 우묵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 마을 뒷산은 배락산 동맥인데 그 형상이 소가 춤을 추는 것 같다 하여 우무동(牛舞洞)이라고도 하며 보현사가 자리하고 있어 절골이라고도 한다.

응달말

2리에 있는 마을. 호고몰의 기슭 응달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이충굴

선무루등 위쪽에 있는 마을. 2층처럼 되어 있다.

큰말/대촌동

2리에 있는 마을. 보현산 아래 큰 마을이다. 응달말, 새말, 옷골, 이층굴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산2리 마을 입구 표석



금산리 민요전승관

3) 금승리(金蠅里)

본래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쇠를 판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금승리, 낙하리 일부 지역과 파주군 오리면의 능동리 일부 지역, 그리고 자곡면 덕옥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금승리라 하였다.

이곳 주위는 월룡산맥 자락으로 금맥이 있다고 하여 여기저기 파보았으나 파리똥만큼의 소량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쇠파리, 쇠파니라고도 한다.

금승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모태이

무덤골 북동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

무덤골/무덤굴/무덕동

비선거리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10성지지의 마을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10개의 성씨만



금승리 마을 표석

살아왔다고 한다. 문종이 황희의 예장 때 문(文), 덕(德), 지(智)를 기를 것을 교시하자 이 지역 유림들은 먼저 덕을 하늘과 같이 높이자고 하여 덕동(德洞)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월롱명의 덕은리와 탄현면의 덕수동 사이에 있어 삼덕지문(三德之間)이라 한다.

비선거리/비석리

쇠파리 서쪽 길거리에 있는 마을. 황희의 6대 후손의 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삼거리/주막거리

비선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 세 갈래 길에 주막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새실

월롱산 밑에 있는 마을. 이조판서를 지낸 이인신이 중종 때 이곳으로 낙향하여 아담한 새 집을 짓고 후손들에게 착실히 살면서 새로운 열매를 거두자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금승리 마을회관

쇠파리/능곡동

무덕동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 황희의 묘가 있어 능곡동이라고도 한다.

주막거리

임진강 나루터 근처에 있는 마을. 옛날 나루터에 오가는 사람들이 쉬어가던 주막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지금의 한산동에 속한다. 이곳은 낙하나루로 가는 곳에 있으며 서울과 개성을 오가던 길목이었다.

한산동(閑山洞)/한산이

주막거리 옆에 있는 마을. 주막거리에서 쉬던 행인들의 말을 매어두었던 곳으로 주위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조용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4) 낙하리(洛河里)

본래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임진강 옆에 낙하원(洛河院)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낙하리와 금승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낙하리라 하였다. 장단을 거쳐 개성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낙화라고도 한다.

낙하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박숫골

낙하의 남쪽에 있는 마을

상촌/옥밭골/옥밭골

낙하 위쪽에 있는 마을. 주위 밭이 기름져 곡식이 잘되어 구슬같이 소중한 밭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피난골이라고도 하는데 강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피난하기 좋은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새능

낙하 남쪽에 있는 마을. 아기능이 있었다고 한다.

안터

하촌에 속한 마을. 임진강변의 낙하나루 건너편에 있는 마을. 앞뒤의 산이 마치 울타리같이 펼쳐져 있어 아늑한 동향의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하촌

낙하리의 후미진 곳에 있는 마을. 아랫말 또는 안터라고도 부른다.

5) 대동리(大洞里)

본래 교하군 신오리면 지역으로 임진강 가에서 가장 큰 마을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대동리와 만우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대동리라 하였다. 큰골, 대동이라고도 한다.

대동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개묵굴/개밋굴/갠굴

큰골의 북쪽에 있는 마을. 갯골이 있었다.

대촌동/큰말/큰골

대동리에서 가장 큰 마을

여우굴

새말 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여우가 살았다고 한다.

오산태/오선태/오선동(五仙洞)

큰말에서 서쪽 방앗간 근처의 마을. 이곳은 보현봉 서맥 꼬트머리로 이곳의 봉우리 바위에 다섯 신선이 놀고 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자라동/별배동

큰골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 자라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대동리 큰말



대동리 마을회관

풀무골/야동(冶洞)

대동리와 만우리 경계 쪽에 있는 마을. 대장간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6) 만우리(萬隅里)

본래 교하군 신오리면 지역으로 임진강 가의 큰 모퉁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만우리, 대동리, 금산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만우리라 하였다. 만모퉁이라고도 한다.

만우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도염말

돈지게 건너편에 있는 마을

돈지게

돈지게 가에 있는 마을



만우리 노인정



만우리 돈지게마을 버스정류장



만우리 마을 전경

새오리[新梧里洞]

은계동 남쪽에 있는 마을. 옛 신오리면 소재지며 이 근처 산야에 오리나무를 새로 심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옛 기록에는 신오리동(新五里洞)으로 표기되어 있다.

시금리

은계동 남서쪽에 있는 마을.

양지촌(陽地村)/양지동/아랫말

은계동 서쪽에 있는 마을. 아랫말과 윗말로 나뉘어 있다.

은계동(隱溪洞)/윙개동/윙거말/언계말

만우리 동쪽에 있는 마을. 앞에 깊은 개가 있었다. 보현봉 북맥 꼬트머리로, 개성으로 다니는 선비들이 이 마을을 지나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 다닌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7) 문지리(文智里)

본래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임진강 가의 산줄기에 있으므로 문줄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문지리에 오금리, 금승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문지리라 하였다.

어봉산 앞에 자리한 지역으로 황희의 예장 때 문종의 교시에 의해 우선 문학과 지혜를 넓히자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문줄, 문질, 문지라고도 한다.

문지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능안말/능안

능터 안쪽에 있는 마을.

도림개/도린개/되린개[加仁浦, 加林浦]

진굴에서 임진강 방향에 있는 마을. 이곳은 낙하나루 상단으로 개풍군 개성으로 건너는 선착장이 있어 임진강을 건너는 포구라 하여 도림포동(渡臨浦洞)이라고도 한다.



문지리 마을 입구 표석



문지리 마을 전경



문지리 마을회관, 선돌

사양굴/사냥굴

문줄 서쪽에 있는 마을

자자락

사냥굴 서쪽에 있는 마을. 뒷산 바위의 형태가 마치 자라가 물을 먹고 있는 모양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진굴/진곡동

능안말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진을 쳤던 곳이다. 황희의 예방 때 문종의 교시에 의해 우선 문과 지를 보배같이 여기고 실천하자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큰말

사냥굴 동쪽에 있는 마을. 문지리에서 가장 큰 마을.

한량터

도림개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마을. 한량들이 활쏘기 하던 곳이었다.

8) 법흥리(法興里)

본래 교하군 현내면 지역으로 큰 절이 있어 법회를 자주 열고 불법을 흥왕하게 했으므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현내면 법흥리 전부와 성동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법흥리라 하였다. 황희의 예장 때 문종이 문(文), 덕(德), 지(智)를 넓히도록 교시한 것에 따라 우선 법을 준수하는 데 앞장 서자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1990년부터 조성된 통일동산 조성사업으로 법흥리 마을 대부분이 철거되었으며 그 자리에 헤이리 예술마을,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동화경모공원 등이 들어섰다.

법흥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가시내/형천/밤나무골/밤나뭇골

2리에 있는 마을.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골이라고도 하며 밤나무 가시와 옆에 개울이 흘러 한자로 형천(荊川)이라고도 한다. 또는 주위 산의 형태가 마치 가시가 돋친 모양이고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구원이/국원동(菊園洞)

2리에 있는 마을. 이곳 마을 뒷산의 형태가 마치 개가 숨어 있는 모양이라 하여 구은(狗隱)이라 하였는데 후에 국화가 많다 하여 국원이라 하였다고 한다.

덕산말

3리에 있는 마을. 황희의 예장 때 문종이 문(文), 덕(德), 지(智)를 넓히도록 교시한 데 따라 우선 덕을 쌓자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법흥2리 마을 표석

바구니고개/광현동(筐峴洞)

3리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박은희라는 사람이 이곳에 살아 '박은희고개'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바구니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축현리 싸리골에서 싸리를 베서 한 짐 지고 오다가 이 고개에서 쉬면서 바구니를 만들곤 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봇당굴/불당굴/불당곡/불당굴

4리에 있던 마을. 이곳에서 부처가 나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곳에 부처를 가지고 도승이 나타나 암자를 짓고 불도를 권장하며 살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새창이/새창이/사창이/사창동(社倉洞)

4리에 있던 마을. 호장산 아래의 마을로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없어지고 이름만 남았다.

소리개/송현/송현동(松峴洞)/송현리/솔고개

4리에 있는 마을. 마을 주위에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붙은 이름이며 탄현면사무소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다.



법흥리 옛 약산골 자리. 지금은 옛 마을이 모두 사라졌다.

약상골/약상굴/약산동(藥山洞)/약산리/약수동

1리에 있던 마을. 산이 높고 약초가 많이 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대형 쇼핑센터와 건축물들이 들어서 예전 마을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월음실/얼음실

4리에 있던 마을. 찬물이 많이 난다 하여 얼음실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마을이 모두 사라졌다.

저진개/습포동

4리와 2리 경계에 있던 마을. 항상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여 땅이 습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 마을 앞까지 삼도품 조수물이 오르내렸고 작은 고기잡이배들이 수시로 왕래하던 포구였다.

한장골/한장굴

4리에 있던 마을

황새말

1리에 있던 마을. 이 마을 뒷산에 나무가 무성하여 황새들이 많이 서식하였다.

9) 성동리(城洞里)

본래 교하군 신오리면 지역으로 오두산성 밑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성동리와 법흥리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성동리라 하였다. 이 지역은 앞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삼도품과 김포, 강화, 개풍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요충지역이다. 잣골, 작골이라고도 한다. 성동리 마을은 1990년부터 시작된 통일동산 조성사업으로 인해 일부 마을이 사라졌으며 현재 오두산통일전망대, 프로방스 마을, 카트랜드 등의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성동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골말

큰말 서쪽 임진강 가에 있던 마을.

당너머/당현

통일전망대에서 잣골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던 마을.

덜무니/석문동

덜무니고개 아래에 있던 마을.

새터말/신기동

큰말 서쪽에 있는 마을. 옛 요풍리에 속했던 마을. 새둥우리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샘천말/샘철리

큰말에서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여름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한 약수가 나온다 한다.

요풍동(堯風洞)

큰말 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 앞으로 임진강이 흘러 여름에도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 북중에도 땀을 모르고 지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성동리 요풍동 마을



성동리 큰말 전경

작곡(芍谷)/작굴/잣굴/작골

큰말 남서쪽에 있던 마을. 교하노씨 노순지가 오두산 밑에 큰 굴을 파고 자손들에게 학문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오두산 정기로 3대 정승 한(閑), 사신(恩愼), 공필(公弼)이 났다 한다.

큰말

작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 한록산 기슭 남향에 자리한 마을. 성동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0) 오금리(吾今里)

탄현면 오금리는 옛날 질오목(叱吾目)과 오금미(烏今美) 부락으로 되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질오목의 ‘오(吾)’자와 오금미의 ‘금(今)’자를 따서 오금리로 부르게 되었다. 본래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오금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오금리라 하였다. 조선 세종



오금2리 마을 전경



때 밀산군 박중손이 사망하자 명지사가 묘지를 물색하고자 매봉재, 신선봉, 구미봉 등을 샅샅이 뒤졌으나 명당을 찾지 못해 서성이던 중 갑자기 매봉재 아래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 그곳에 올라 자세히 보니 과연 길지가 있는지라, 까마귀가 나를 도왔다 하여 ‘烏告美(오고미)’라 하였는데 오금리로 변한 것이라 한다. 오그미, 오고미, 오금, 오고미리라고도 한다.

오금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골말

모팅이말 북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나무골/신곡동

2리에 있는 마을. 호피산 건너 앞뒤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주의의 산에 나무들이 무성하여 겨울이면 땔나무를 많이 하던 지역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도곡동

2리에 있는 마을. 황희의 예장 때 문종이 학문, 도덕, 지혜를 넓히라고 하자 우선 도를 넓히자고 하여 도곡동(道谷洞)이라 하며, 옛날 이곳에서 그릇을 구워 만들던 곳이라 하여 도곡동(陶谷洞)이라고도 한다.

모팅이말

내머굴 동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

무장골/무장동(武將洞)

1리에 있는 마을. 이 마을에서 고개를 넘으면 질오목나루가 있어 신성봉과 구미봉에 진지를 구축하고 무장들이 수비하면서 개포 땅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검문, 검색하였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배골

1리에 있던 마을. 옛날 이곳으로 배가 들락날락하였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오금1리 질오목마을 표석



오금1리 마을회관



지래골

2리에 있는 마을. 황희의 예장 때 문종이 문(文), 덕(德), 지(智)를 넓힐 것을 교시하자 우선 지혜를 넓히자고 하여 지래(智來)골이 되었다.

진밭골/진밭골/이전동(泥田洞)

2리에 있는 마을. 이 지역은 골짜기로서 밭이 기름지고 곡식이 잘되어 붙은 이름이다.

질오목(叱吾目)/즐오목/질우목

1리에 있는 마을.

탄포말[炭浦洞]/아랫말

1리에 있는 마을. 신성봉 아래에 있는 마을로 옛 탄포면 소재지이다. 금승리와 축현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임진강으로 흘러 포구를 이루는 어귀이다. 또한 토탄이 많이 나 토탄의 '탄(炭)'과 포구의 '포(浦)'자를 합쳐 생긴 이름이다.

11) 축현리(柵峴里)

본래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싸리고개 밑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축현리 전부와 신오리면의 금산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축현리라 하였다. 싸리고개, 축현동이라고도 한다. 현재 탄현면의 면소재지로 탄현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탄현초등학교, 탄현중학교등이 소재하고 있다.

축현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구석골

2리에 있는 마을. 싸리고개 북쪽 구석에 있는 마을.

덕술(德術)/덕수동

3리에 있는 마을. 황희의 예장 때 문종이 문(文), 덕(德), 지(智)를 넓힐 것을 교시하자 우선 덕과 예술에 힘쓰자 하여 붙은 이름이다.



죽현리 면소재지 중심가

맹굴/맹골/맹동(蟒洞)

1리에 있는 마을. 앞은 넓은 들판이고 양쪽에 산이 에워싼 북서향의 마을로 가을에 벌판 앞에서 수천 마리의 메뚜기가 날아든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맹 정승이 살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배나뭇골/이목동/이대동

1리에 있는 마을. 원래 덕수동이었으나 조선조 선조의 7자의 증손 남원군이 이곳에 정착한 후 마을 주변에 배나무를 많이 심은 데서 유래되었다.

소우물/소움물/우정동/우정소/소모리(牛貌洞)

2리에 있는 마을. 마을 가운데로 내려온 산세가 마치 큰 소가 뛰어 물먹는 모양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술청거리

1리에 있는 마을. 장단 사람들이 한양에 갈 때 들러 쉬던 주막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축현리 싸리고개

싸리골[杻洞]

2리에 있는 마을. 이 마을 뒷산에 싸리나무가 많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열살미

1리에 있는 마을

우미골[牛尾洞]

2리에 있는 마을. 마을을 둘러싼 산세가 마치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을 하고 있고 꼬리 부분이 들로 뻗어 내려와 있는 곳에 마을을 이뤄 붙은 이름이다.

원티이/원팅이/원팅잇골

1리에 있는 마을

전흥말/탄현/전흥동

2리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이후 오금리에 있던 면사무소가 이곳으로 옮겨오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마을을 형성하였다. 옛날부터 이곳 전 지역이 융성하고 번영할 것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주가동(酒街洞), 주청거리

1리에 있는 마을. 낙하나루로 가는 중간에 있는 마을. 낙하나루로 가는 길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주막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태봉굴/태봉골

덕술과 원티이 사이 1리에 있는 마을. 태봉안 밑에 있다.

헌텃굴/헌텃골/헌텃말/헌텃말/헌텃동

1리에 있는 마을. 싸리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 황희의 예장 때 문종이 문(文), 덕(德), 지(智)를 널리 이를 것을 교시함에 따라 우선 덕을 쌓자고 하여 헌덕(憲德)골이라 하였다.



춘천1리 헌텃골

3. 탄현면의 문화적 특성

1) 탄현면의 문화유산

장릉(長陵)

- 사적 제203호

- 탄현면 갈현리 산 25-16

장릉(長陵)은 조선 제16대 왕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를 합장한 능이다.

인조는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과 인현왕후 구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종(宗)이다.

스물여덟 살 때인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한 이듬해 이괄이 영변에서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하자 공주로 피신했다가 난이 진압된 후 환도했다. 이후 인조는 27년간 재위하



장릉

면서 모두 세 차례나 한양을 떠나 몽진했다. 특히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던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의 예를 표하기도 했다. 전쟁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당파 간의 싸움이 격화되어 사회가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1649년 55세의 나이로 창덕궁 대조전 동침에서 승하했다.

인조의 비 인열왕후 한씨는 한준겸(韓浚謙)의 딸로 1610년 능양군과 혼인했고 인조 즉위와 더불어 왕비에 책봉되었다. 슬하에 효종, 소현세자, 인평대군, 용성대군 등 4형제를 두었으며 용성대군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1635년 42세에 승하했다.

인조는 인열왕후가 승하하자 문산읍 운천리에 장사지냈는데, 그때 그 오른쪽 언덕에 자신의 묘 자리를 마련했었다. 그리고 인조가 승하하자 효종은 그곳에 장사지냈다. 그러다가 80여 년이 지난 1731년(영조 7) 석물 틈에 뱀들이 집을 짓는 등 극성을 부리자 지금의 위치로 옮겨 왕과 왕비를 합장했다.

장릉을 살펴보면, 봉분 뒤로 동·서·북쪽 방향의 곡장이 쳐져 있어 봉분을 아늑하게 보호해 주고 있으며 곡장과 봉분 사이에 있는 각각 네 마리의 석호(石虎)와 석양(石羊)이 바깥을 보도록 배치되어 있다. 봉분 밑 부분은 병풍석으로 둘러싸였는데, 목단과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장릉은 영조 때 옮기면서 합장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가 맞지 않게 된 병풍석, 난간석, 혼유석(魂遊石), 장명등은 새로 바꿨고 나머지는 옛것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병풍석과 장명등의 조각을 목단과 연화문으로 바꾸었다. 봉분 주위에는 돌난간을 둘러싸고 봉분 앞에 혼유석 두 개를 놓아 합장묘임을 나타냈다. 그리고 혼유석 앞쪽으로 장명등, 양 옆으로 망주석을 세웠다.

봉분 앞의 양쪽으로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각각 한 쌍씩 서 있고 석마(石馬)들이 각 문인석·무인석 뒤에 살짝 비껴 서 있다.

능 아래에는 지붕 모양이 정(丁)자와 같아 정자각(丁字閣)이라 이름 붙은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능역 입구에는 잡귀를 막고 신성한 공간임을 드러내기 위해 세운 홍살문이 서 있다.

● 공효공 박중손 묘역 내 장명등(恭孝公 朴仲孫 墓域 內 長明燈)

- 보물 제1323호

- 탄현면 방촌로 879번길 172-34

박중손(朴仲孫, 1412~1466)은 세종부터 세조에 이르기까지 집현전 박사, 도승지, 한성부윤, 좌찬성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조선초기의 문신이다. 특히 천문(天文) 관찰에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업적을 남



박중손 묘역 장명등

겼으며 세 차례 고시관이 되어 많은 인물을 등용시켰다. 또한 세종과 영빈강씨의 소생인 화의군 영(璚)이 그의 사위다. 호는 묵재(默齋), 시호는 공효(恭孝)다.

박중손의 묘는 정경부인 남평문씨의 묘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왼쪽이 박중손의 묘이고, 오른쪽이 부인의 묘이다. 묘역은 3단으로 되어 있으며, 양쪽으로 문인석과 무인석이 서 있고 오른편의 무인석 아래에 신도비가 서 있다. 또한 각각의 묘 앞에는 직사각형의 간단한 상석(床石)을 두었고, 그 앞에 각각 장명등을 세웠다. 박중손 묘역의 묘제나 여러 석물은 조선초기의 석물 양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두 기의 장명등은 조성 기법이나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조선초기의 장명등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이곳에 있는 두 기의 장명등은 각각 두 개의 화강암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대좌(臺座)와 불을 밝히는 화사(火舍) 부분으로, 다른 하나는 지붕돌인 옥개석과 연꽃봉오리 모양의 보주(寶珠) 부분으로 쓰였다. 기록에 의하면 부인 문씨가 먼저 사망했으므로 그의 묘 앞에 서 있는 장명등이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인 묘 앞의 장명등은 상대적으로 폭이 좁아 날씬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4면의 화창이 모두 사각형이다. 이에 비해 박중손 묘 앞의 장명등은 중후하고 듬직한 느낌으로 앞면과 뒷면의 화창은

사각형, 동쪽의 화창은 원형, 서쪽의 화창은 반월형으로 되어 있다. 이때 사각형의 화창은 땅을, 원형의 화창은 해를, 반월형의 화창은 달을 상징한다. 이러한 특수한 수법과 형태의 장명등은 매우 희귀한 예로서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 오두산성(烏頭山城)

- 사적 제351호
- 탄현면 필승로 365

한강과 임진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인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에는 정상(해발 119m)을 중심으로 산의 비탈면에 띠를 두르듯이 쌓은 테피식의 오두산성이 있다. 오두산의 가파른 비탈면은 서쪽으로는 임진강, 남쪽으로는 한강에 면해 있고, 북쪽으로는 산기슭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산 정상에서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재 오두산 정상에 통일전망대가 들어서 있어 산성의 규모와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



오두산성 성벽

되어 있지만, 임진강과 한강의 합류 지점인 서쪽 비탈에 높이 1~1.5m, 길이 약 30m, 폭 6~7m인 당시의 성벽이 정연하게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산 정상 여기저기에는 성벽용 석재가 흩어져 있으며, 1990년 9월부터 1991년 11월 사이의 발굴 조사에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토기, 백자, 기와, 화살촉 등의 유물이 다수 발견되어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수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두산성은 기초석 위에 5~15cm의 지대석(支臺石)을 들여쌓기하고 안쪽은 모두 돌로만 채운 뒤채움석 형식으로 쌓았는데, 큰 암반을 채석으로 이용하고 그 단면을 성벽으로 이용한 성곽 형태를 갖추고 있어 백제시대 성곽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다.

한편 산성의 위치 및 주변의 지형 여건으로 보아,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각미성(閣彌城),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원년조(391), 백제본기 아신왕(阿莘王) 2년조(393) 등에 나오는 백제 북변의 관미성(關彌城)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오두산성을 백제의 관미성이라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오두산성이 백제의 북방 전초 기지였던 관미성이라면, 396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수군이 백제의 아신왕을 치고 수도 위례성을 함락시키는 경로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 궁시장 유영기(弓矢匠 劉永基)

- 중무형문화재 제47호
- 탄현면 국원말길 168

궁시장(弓矢匠)은 국궁(國弓)이라고도 부르는 우리의 전통 활인 각궁(角弓)과 그것에 쓰이는 화살을 제작하는 기능 보유자다. 활의 재료로는 통대나무를 쪼갠 죽편(竹片), 뽕나무조각, 참나무조각, 근, 부레풀 등이 쓰인다.

5대째 화살을 만들고 있는 궁시장 유영기(劉永基)는 1936년 파주에 있는 경의선 옛 장단역 인근 서정리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증조부 때부터 물려받은 ‘살방(화살을 제작하던 공방)’을 운영하며 전국의 활터에 화살을 공급



궁시장 유영기

했다. 그의 아버지는 6.25전쟁이 나자 집문서나 패물은 놔둔 채 화살 제작 장비와 재료만 싸 들고 피난할 정도로 집념이 강했다고 한다. 유명기는 그런 아버지를 따라 대나무밭을 누비고 부레풀을 끓이며 전통 화살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현재는 아들과 함께 화살을 제작하고 있다.

공시장 유명기는 2001년 5월 1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활·화살 전문 박물관인 영집 공시박물관을 열어 자신이 만든 활과 화살 및 수집한 활 등을 전시하는 한편 자그마한 체험 공간도 마련하여 전통의 활쏘기 문화를 지켜 나가고 있다.

● 황희선생묘(黃喜先生 墓)

- 경기도기념물 제34호
- 탄현면 정승로 88번길 23-83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명망 있는 재상이자 청백리로 칭송받는 황희의 묘이다.

황희의 어릴 때 이름은 수로(壽老),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龐村), 시호는 익성(翼成), 본관은 장수(長水)로 개성에서 태어났다.

황희는 스물일곱 살 때 고려가 시행한 과거에 급제하여 국립대학이었던 국자감 학생의 훈육과 학습



황희선생묘

활동을 감독하는 성균관 학록(學錄)이 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황희는 두문동에 은거했는데, 조선의 관료와 동료의 추천으로 성균관 학관(學官)과 세자 우정자(右正字)에 임명되었다. 이후 태종 때에는 6조 판서를 고루 지냈으며, 세종 때에는 여러 관직을 거쳐 최고 직위인 영의정에 올랐다. 특히 황희는 18년간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외교 관계와 문물제도의 정비, 4군 6진의 개척,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진흥 등을 총감독하며 세종을 도왔다.

황희의 묘역은 3단으로 넓게 만들어졌고 봉분도 크다. 황희의 봉분은 묘 앞에 화강암으로 ㄷ자 모양의 3단 호석을 쌓아 봉분과 연결시킨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그 앞으로 2개의 화창(火窓)이 뚫린 장명등이 있다. 봉분 왼쪽에 묘비가 있으며 좌우 양 옆으로 동자석과 문인석이 한 쌍씩 있다. 묘역 아래에는 1505년(연산군 11)에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신숙주가 글을 짓고 안침이 글을 썼다. 현재 신도비의 비문은 너무 닳아서 거의 읽을 수 없으며, 1945년 다시 세운 신도비와 함께 비각의 보호를 받고 있다.

● 금산리 민요(錦山里 民謠)

-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3호
- 탄현면 새오리로 286

민요란 백성이 생활감정을 노래로 표현하여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예로부터 “파주시 금산리에 가서 소리 자랑하지 마라.”는 말이 전해져 오듯이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 금산리 마을이다.

파주시 서북단에 위치한 금산리는 마을은 마을 뒤로는 보현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임진강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금산리 마을에는 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농사소리(농요)가 많이 전해지는데, 특히 두레 공동체를 통해 불렀던 모찌는소리, 김매기소리, 방아타령, 헤이리소리, 몸돌소리 등이 전승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 등 각종 의식요(儀式謠)는 물론이고 집터를 다지는 지경소리, 달구소리 등 다양한 민요가 전래되고 있다.

금산리 민요의 특징은 한두 사람의 선창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명의 소리꾼이 모내기소리, 논매기소리, 상여소리, 달구소리 등에서 메기는 소리를 분담하고 있으며, 경기 서북부와 황해도 방면의 소리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만들어진 금산리 민요보존회는 1997년부터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등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



금산리 민요 시연 모습

하여 입상했으며 지역축제 등에 출연하고 있다.

● 정연 묘(鄭淵 墓)

- 경기도기념물 제139호

- 탄현면 법흥로 39

조선전기의 문신인 정연(鄭淵, 1389~1444)의 묘이다. 정연의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중심(仲深), 호는 송곡(松谷)으로 안평대군의 장인이다.

1405년(태종 5) 생원시에 합격했다. 관직에 있으면서 영의정인 하륜을 탄핵한 일로 국문을 받았으나 풀려났고 1420년(세종 2)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재직할 때 상왕인 태종이 철원에 가려는 것을 간하다가 유배되기도 했다. 1430년(세종 12) 천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냈으며 세종 24년에는 사은사 겸 주문사로 명에 다녀왔다. 그 뒤 1444년(세종 26)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연은



정연 묘

특히 사헌부의 관직을 여러 차례 맡으면서 성격이 강직하여 바른 말을 잘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의 묘는 부인 단양우씨와의 합장묘이고, 봉분 아랫부분 4면에 가로 4매, 세로 4매의 길쭉한 화강암으로 돌레돌을 돌린 장방원형분으로 봉분 뒤로는 사성이 만들어져 있다. 봉분 바로 앞에는 화관석 형태의 묘비가 2기 있는데, 왼쪽이 정연의 묘비이고 오른쪽이 부인의 묘비이다. 정연의 묘비에는 “정통구년갑자십일월립(正統九年甲子十一月立)”이라 새겨져 있어 1444년에 세웠음을 알려 준다. 묘비 앞에는 상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좌우로 문인석 2쌍이 배열되어 있다. 봉분 뒤의 낮은 돌담은 최근에 묘역 보호를 위해 세운 것이다.

정연의 묘에 나타나는 돌레석을 두른 장방원형분과 화관석 묘비는 조선초기에 묘를 조성할 때 사용한 전형적인 양식이다.



검단조사진영

● 검단사(黔丹寺)

- 전통사찰 제40호
- 탄현면 필승로 292-33(탄현면 성동리)

『전등사본말사지(傳燈寺本末寺誌)』 「검단사지조(黔丹寺誌 條)」에 ‘검단사는 오두산에 자리하고 있고 847년(신라 문성왕 9) 진감국사 혜소(眞鑑國師 慧昭, 774~850)가 창건하였다.’라고 검단사(黔丹寺)에 창건 기록이 있다.

진감국사 혜소는 얼굴색이 검어 흑두(黑頭), 흑두타(黑頭陀), 검단(黔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찰의 이름도 그의 별명인 검단(黔丹)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한다. 다른 일설에는 사찰이 있는 오두산이 검은색을 띠고 있어 검단사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검단사의 창건연도로 알려진 847년 무렵 진감국사 혜소는 하동 쌍계사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 검단사 창건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

검단사와 관련된 또 다른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기 교하면에 있는데, ‘검단산에 검단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익(李瀾)의 『성호사설』 「양락당팔경기(兩樂堂八景記)」에는 검단사의 새벽 종소리를 ‘검단효종(黔丹曉鐘)’이라 하여 조선시대 이름난 사찰로 기록되어 있다.

검단사의 유일한 법당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계 맞배건물인 법화전(法華殿)은 조선 후기 건축물로 1906년 김정호 주지스님에 의해 중수된 것을 1936년 삼창하였고 1986년 다시 해체 중건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법화전 건물은 막돌을 3단으로 줄지어 쌓은 축대 위에 방형 초석을 두고 그 위로 두리기둥을 세운 모습으로 정면은 피살창호로 단장하고 삼면은 황토벽체로 마감하였다.

법화전의 중앙 어칸에는 인조(仁祖)에게 하사받았다고 전해지는 인조의 어필(御筆) ‘법화전(法華殿)’ 편액(扁額)이 걸려 있으며 건물 외관은 단청으로 장엄되어 있다.

법당 내부에는 불단 위로 조선 후기 ‘목조관음보살좌상’과 16나한상, 산신상, 동자상, 독성상 등이 봉안되어 있다. 불상 뒤로는 아미타후불탱과 신중탱 등 19세기 탕화들이 걸려 있다.

한편, 〈검단조사진영(黔丹祖師眞影)〉은 분실의 우려가 있어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에서 소장하다가 2014년 원래의 장소인 검단사로 옮겨 왔다.

2005년 3월 부임한 해송(海松) 스님이 가람 정비 및 법당 보수, 요사체를 신축을 하였으며 근래에 무량수전(無量壽殿)과 명부전(冥府殿)을 신축하였다.

검단사 내 목조관음보살좌상(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4호), 〈검단조사진영〉(경기도문화재자료 제172호), 〈아미타불회도〉(경기도유형문화재 제295호)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황정욱묘 및 신도비(黃廷馥 墓 및 神道碑)

- 파주시향토문화유산 제19호

- 탄현면 정승로 12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황희의 후손인 황정욱(黃廷馥, 1532~1607)의 묘와 신도비이다.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경문(景文), 호는 지천(芝川)이다.

황정욱은 1552년(명종 7)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진주목사, 충청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1584년에는 명나라에 가서 여러 왕 대에 걸쳐 명의 문헌에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인임(李仁任)’으로 잘못 기재된 문제(宗系辨誣)를 해결하고 돌아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



황정옥묘

나자 왕자 순화군(順和君)과 함께 관동으로 피신했으나 왕자와 함께 왜군의 포로가 되어 안변의 토굴에 감금되었다. 이때 왜장 가토 기요마사는 선조에게 보내는 항복 권유문을 쓰도록 강요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그의 손자와 왕자를 죽이겠다는 위협에 아들 혁(赫)이 대신 썼다. 이후 항복 권유문이 문제가 되어 길주에 유배되었으며, 1597년 왕의 특명으로 석방되었으나 곧 세상을 떠났다.

황정옥의 묘는 정정부인 순창조씨와의 합장묘로, 묘비, 상석, 향로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의 비각에 있는데, 높이 3m, 폭 1m의 규모로 홍서봉이 글을 짓고 썼다.

● 격쟁문서(擊鐙文書)

- 파주시향토자료 제1호
-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63(타임캡슐박물관 내)

1781년(정조 5) 고양에 있는 박이중(朴履中)의 선산에 서울에 사는 박종묵이 몰래 장례를 치름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왕에게 격쟁을 하게 되면서 형조, 한성부, 경기감영, 교하군, 고양군 등을 거친



격쟁문서

처리 과정을 기록한 16건의 문서이다. ‘격쟁’이란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로 초기의 신문고를 대신한 후기의 민원 수단이다.

격쟁문서를 시간별로 따라가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81년 윤5월 초순 안동에 사는 박이중이 밖으로 거동했던 왕에게 격쟁을 했고 이에 박이중은 형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10일 형조에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한성부에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명했다. 한성부는 윤5월 13일 경기감영에 이 사건 조사 내역을 보내면서 조사하는 공문을 띄웠고, 경기감영은 다시 교하군으로 공문을 보내 처리하도록 했다. 교하군은 윤5월 18일 사건의 조사 내역을 다시 경기감영에 보고했고, 경기감영에서는 몰래 장사를 지낸 박종묵에게 묘의 이장을 명하고 29일 이를 왕에게 보고했다. 6월 2일 교하군에서 묘가 있는 고양군으로 이 사건을 알리며 이행할 것을 통보했으며, 박종묵은 10월 초순에 이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박종묵은 약속일이 되어도 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이행의 죄를 묻기 위해 찾아간 관리를 위협했다. 이 사실이 한성부에 보고되고 다시 왕에게 보고되자 이에 대해 거듭 엄히 시행할 것을 명했다. 10월 20일 이 사건은 다시 형조로 내려갔고 형조에서 박종묵을 조사하며 이장을 명했으나, 박종묵은 고의가 아니라 아들의 혼사로 이장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10월 24일 박종묵은 고양군에 가서 11월 초순까지 이장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문서로 남겼다.

그 후 박이중은 이러한 판결의 효력이 지속되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을 문서로 남길 것을 한성부에 요청했고, 한성부는 이를 받아들여 문서를 발급했다.

● 전통쇄납제작연주기능 조병주(傳統 胡笛製作演奏技能 曹秉周)

- 파주시무형문화유산 제1호
- 탄현면 금산리 174

쇄납은 호적(胡笛), 태평소, 날라리라고도 불리며, 전통 농악 연주에서 빠질 수 없는 악기이다. 쇠납은 오매, 산유자, 대추나무, 황상, 황양 등 단단한 나무로 만드는데, 관의 길이는 30cm 못 되게 하여 위는 좁고 차차 퍼져 아래를 굽게 한다. 손가락으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구멍[지공(指孔)]은 모두 8개인데, 그 중 두 번째 구멍은 뒤에 있다. 갈대로 만든 작은 혀[舌]를 입구에 꽂고 끝은 나발 모양의 동팔랑(銅八郎)을 달아 확성기 구실을 하게 되어 있다.

조병주(曹秉周)는 탄현면 금산리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쇠납을 불고 직접 만들어온 쇠납제작 및 연주기능 보유자이다. 또한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금산리 민요'의 회원으로 쇠납 연주를 맡고 있다. 1999년과 2001년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쇠납 연주로 개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쇄납 연주자 조병주

2) 탄현면에 전해오는 마을이야기

[질오목(叱吾目) 유래의 전설]

장릉(長陵) 이장으로 박중손(朴仲孫)의 묘소가 헐리고 다른 못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지관이 못자리를 찾으러 이곳 질오목(질우목)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까마귀가 까옥까옥 하고 울어댔다. 지관이 그 까마귀 소리가 이상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못자리를 지나쳐 왔다. 돌아서서 까마귀 우는 곳으로 가서 보니 때는 겨울이라 눈이 온 천하를 덮었는데도 한 곳에 눈이 녹아 있었다. 가서 살펴보니 과연 좋은 못자리였다. 그래서 까마귀 소리를 듣고 돌아섰던 자리를 질오목(叱吾目)이라 명명하였다. 질오목은 ‘내 눈을 꾸짖는다’는 뜻으로 묘자리를 찾지 못한 ‘눈을 꾸짖는다’라는 것이다. 또 까마귀가 울던 곳을 오고미(烏告美)라 하였는데 이것은 ‘까마귀가 알려준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다. 질오목과 오고미 사이에 ‘진말모퉁이’, ‘선모루’, ‘대종모퉁이’ 등의 지명이 있는데, 그 지관이 질오목까지 ‘짓밟아 왔다’하여 진말 모퉁이, ‘섰다’ 하여 선모루, ‘대종없이 왔다’ 하여 대종 모퉁이 등 지명이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다.

[금무봉에 얽힌 전설]

탄현면 금산리 한록산(漢麓山) 금무봉은 월룡산 서맥으로 쉼쉼하게 내려와 우뚝 솟은 봉우리로 아름다운 옥녀가 춤을 추는 모습이라 하여 불린 명산이다. 주위는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 삼도품을 거쳐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조수물이 오르내리는 수로 교통의 요충지이다. 금무봉 동쪽 아래 골짜기 옥녀 우물에서는 서출동류(西出東流)함으로 인물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 숙종 때 태어난 민암은 1680년 대사헌으로 경신대출척(庚申大出陟)으로 남인(南人)이 실각되어 파직되자 금망아지를 매고 살면서 새오리 임진강 변에 정자를 짓고 소일하였으나 다시 기용되어 대제학, 병조판서, 우의정에 올라 갑술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자 사사(賜死)되었다 한다. 또한 소론의 영수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가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수문장으로 있다가 공격을 받아 부인이 자살하니 이곳으로 도망 은신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고 교하향교에서 강론을 펼치면서 신곡서원을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명필, 문장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마을이다.

[얼음실 한장굴에 얹힌 전설]

탄현면 법흥4리 벌두매 산골짜기 호장산하 오솔길 옆에 큰 바위가 있다. 옛날 피난을 가던 부부가 힘에 겨운 피난 보파리를 이고 지고 가다가 이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따라오던 아이가 울며 물을 달라고 보채니 여름 날씨가 너무나 짜증이 난 그들 부부가 아이를 달래며 ‘이 아래가서 물을 떠 올 터이니 이 바위 곁에서 기다려라’ 하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군대가 몰려와 허둥지둥 그냥 떠나버렸다 한다. 그리하여 기다리던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지쳐 한장굴 속에서 굶어 죽고 말았는데 이 아이가 죽은 혼이 바위에 영접해서 한여름에도 이 바위에는 얼음같이 찬물이 흘러내리게 되었으며 이 골짜기에 12우물이 생겨나 인근 전답에 용수가 충분할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 마을에는 정종대왕의 아들 순평군(順平君)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왔다.

고지도로 본 옛 탄현의 모습

양윤정(성신여자대학교 강사)

1. 탄(炭) + 현(縣) = 탄현(炭峴)

탄현(炭峴)은 조선시대 경기도 교하군(交河郡)에 속해 있던 현내면(縣內面), 탄포면(炭浦面), 그리고 신오리면(新五里面)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되어 파주군에 편입되면서 탄포면의 '탄(炭)'자와 현내면의 '현(縣)'자를 따서 붙여진 지명이다. 따라서 현재는 파주시에 속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광여도(廣輿圖)》의 〈교하군(交河郡)〉 지도에서 읍치로부터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광여도 古4790-58》 중 〈교하군〉 지도에서 현재 파주시 탄현면 부분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도부충청도지도_奎軸 12164》전체 지도



《경기도부충청도지도》교하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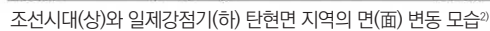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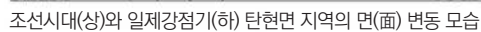
《광여도》는 19세기 전반의 조선사회의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7책의 군현지도책으로, 경기도(1책), 충청도(2책), 전라도(3책), 경상좌도(4책), 경상우도(5책), 평안도(6책), 황해도(6책), 강원도(7책), 함경도(7책) 도지도와 군현지도, 그리고 주요 군사적 요충지의 지도들이 실려 있다. 영조 대 중반부터 계속되던 중앙에서 제작되었던 회화식 전국군현지도집의 전통은 19세기에 단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호식 지도책 편찬의 흐름이 영조대 말부터 대세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합리적인 윤곽을 가진 기호식 지도집을 편찬해 활용하게 되면서 과거의 회화식 관찬 군현지도책은 정책 자료로서의 의미를 더 이상 가지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공적 통치력이 급속히 이완되는 19세기의 정치적 환경과 맞물리면서 회화식 군현지도책이 민간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여도》는 《해동지도》와 유사한 18세기 군현지도집이 민간에 유출되면서 만들어진 지도책이다. 도로를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교통로 상의 역원과 고개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함경도 등에서는 고개, 비탈, 덕 등 한글식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광여도》의 특징이다.¹⁾

조선시대 경기도 지역에서 탄현면의 지리적 위치는 《경기도부충청도지도(京畿道附忠淸道地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부충청도지도》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한 장의 도면 위에 지도를 그리면서 월경지를 포함한 군현의 경계와 면(面)의 정보까지 반영한 지도이다. 지도 오른쪽 위에는 약 13.0cm의 백리척이 그려져 있는데, 축척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310,000:1 정도다. 1776년(영조 52)에 니성(尼城)으로 변경되는 니산(尼山)이 개정 이전의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고 1776년 이후의 지명 변화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 이전에 조선사회의 모습과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교하현은 경기도 소속을 의미하는 주황색의 원안에 표시되어 ‘교하(交河)’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교하현의 읍치 북쪽으로 장릉(張陵), 신오리면(新五里面), 탄포면(炭浦面)이 표기되어 있다.

58쪽의 그림은 GIS를 이용하여 조선시대~일제강점기 사이에 탄현면의 면 변동 모습을 지도화한 것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따르면 교하현은 본래 고구려의 천정구현(泉井口縣)이며, 신라가 교하군(交河郡)으로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교하현의 위치는 현재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위치하고 있다가 1731년 파주시 금릉도의 쇠재(金城)로, 그리고 다시 교하읍의 교하리로 옮겨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고적 항목에는 현의 남쪽 10리에 위치한 원래 보신향이었다가 승격된 심악폐현(深岳廢縣)과 현의 동쪽 20리에 위치한 석천향(石淺鄉)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교하현은 현재의 파주시 시내(옛 금촌읍), 교하읍, 탄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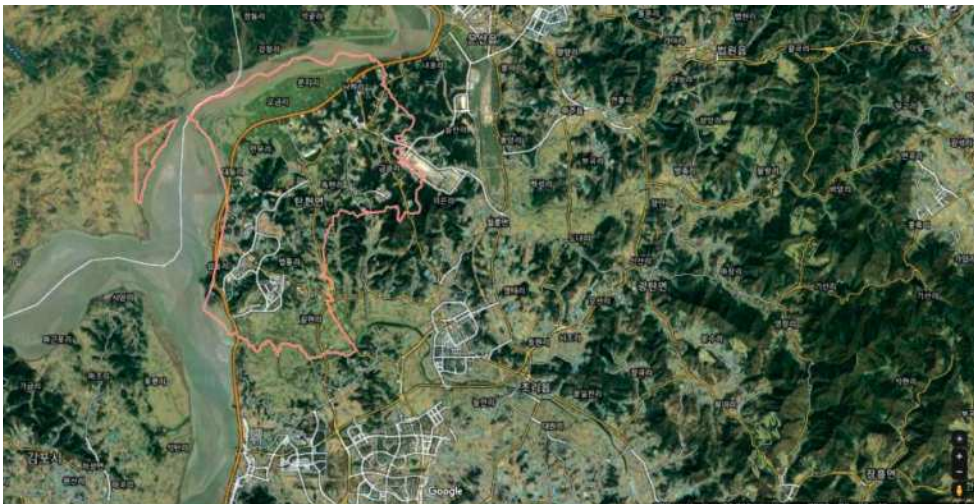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광여도》 총설



58

개로 편제되는데, 고적 항목에 쓰인 기록을 고려한다면 고려 말 이전 교하현의 범위는 지금의 탄현면을 중심으로 교하읍의 북부와 파주시내(옛 금촌읍)의 서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군명 항목에는 ‘천정구’ 이외에 ‘선성(宣城)’이 언급되어 있다. 성(城)과 관련하여 건치연혁 항목 등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군명 항목에 언급된 ‘선성’을 통해 이 지역에 고려 말 이전 고을의 읍치와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천 항목에 서쪽 7리의 오도산성(烏島山城), 고적 항목에 성황사가 오도성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도성은 현재 탄현면 성동리의 오두산(119m)의 산성을 의미한다. 성동리(城洞里)는 순 우리말 이름인 ‘잣골’에 대한 판자 표기 ‘성동(城洞)’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오두산성을 중심으로 고려 말 이전의 읍치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탄현면은 동쪽으론 월릉면(月籠面)·금촌1·2동, 남쪽은 파주와 교하동에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임진강(臨津江)에 면한다. 임진강 하류와 한강 하류가 만나는 곳으로 제4기 충적층이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구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지이다. 2018년 기준 탄현면의 총 면적은 61.72 km^2 이며, 인구는 13,994명이며,³⁾ 22 행정리(11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농경지는 총면적의 4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교하면과 더불어 영농기계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주요농산물은 쌀·감자 등이다. 동쪽에는 남북으로 지방도가 뻗어 있어 교통은 비교적 편리하다.



현재의 탄현면 (자료: 구글 지도)

3) 파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탄현면 현황 자료

2. 오두산성(烏頭山城)과 통일전망대

현재의 탄현면은 조선시대 교하현(交河縣) 소속의 지역이다. ‘교하(交河)’란 두 물이 만나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교하이며, 한국전쟁 이후 임진강은 남북한 군사분계선이다.

《1872년 군현지도》⁴⁾에 수록된 〈교하군지도(交河郡地圖)〉에서 지도 위쪽에 그려진 강이 바로 임진강이고, 아래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강이 한강이다. 그리고



오두산성에서 바라 본 임진강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라 머리처럼 튀어나온 곳이 바로 오두산성(烏頭山城)이 위치한 곳이다. 〈교하군지도〉에는 ‘오두산성허(鰲頭山城墟)’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오(烏)’가 아닌 ‘오(鰲)’로 표기되어 있다.

오두산성 좌측에 표기된 ‘해수요충관방애구(海水要衝關防隘口)’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 즉 방어하는 좁은 입구 요충지라는 뜻으로, 지도 왼쪽 아래 심악강(深岳江)에도 표시되어 있다. 이 지역은 한강이 꺾이는 부분으로, 이곳 역시 군사적 요충지이며, 지도에 표기된 심악산은 지금의 심학산이다.

1750년대 초의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8책의 회화식 군현지도집인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뿐만 아니라 세계지도, 외국지도, 관방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해동지도》는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군현지도에는 비변사지도를 참조하여 수정했음을 나타내주는 쪽지가 첨부되어 있어, 이전에 비변사에서 제작한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도, 경상도의 모든 군현과 전라도의 일부 군현의 경우 지도와 지도 여백에 수록된 주기가 일정한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해동지도》의 〈교하군〉 지도의 왼쪽 여러 강들이 모이는 지점이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며, 가장 위쪽의 강이 임진강이고, 가운데는 공릉천(恭陵川), 그리고 그 아래쪽이 한강이다. 지도의 중앙에 객사(客舍), 사창(司倉) 등의 건물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지역이 읍치이며, 읍치 지역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봉수(烽燧)는 ‘검단산봉수(黔丹山烽燧)’를 표시한 것이다. 이 일대인 현내면과 북쪽 표기된 탄포면(炭浦面), 신오리면(新五里面) 일대가 오늘날 탄현면 지역이다. 그리고 검단산봉수 북

4) 《1872년 군현지도》란 1872년(고종 9)에 국가 지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1872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각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완성된 지도가 도별로 수합되었는데, 8도의 각 군현은 물론 주요 진영·산성·목장 등을 포함한 군사지역까지 포함하여 모두 461장에 이른다.



오두산성 부근 확대



〈교하군지도_奎10342〉의 전체 모습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쪽으로 산줄기가 연결되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장 서쪽에 산성 표시는 없지만 ‘오두산성(鰲頭山城)’이 표기되어 있다.

《1872년 군현지도》의 〈교하군지도〉와 《해동지도》의 〈교하군〉 지도에는 오두산성의 ‘오’자가 ‘鰲’로 표기되어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교하현 산천조에는 “오도성산(烏島城山) 현 서쪽 7리 지점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국지도》⁵⁾의 〈경기〉 지도에도 교하현 좌측에 표기되어 있다.



《동국지도_일사. 古912.51-D717》의 〈경기〉 지도

5) 《동국지도(東國地圖)》는 조선시대 지리지 속에 포함된 지도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지도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본 지도이다. 이는 임란 이전에 편찬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몇 안 되는 지도이며, 지도의 내용 또한 16세기 중엽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지도사적으로 중요한 지도이다.



1:50,000 1st Edition Map of Tongjin (통진) Map
(Source: National Library of Korea, Joseon Dynasty Map Collection)



Tongjin Map, Odoosan Fortress Area



Odoosan Unified Prospect Tower (Source: Paju City Official Website, Paju Cultural Tourism)

그리고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조산(鳩鳥山)이라고도 부른다. 임진강과 한강이 흘러나와 산 앞에서 합쳐지고, 또 울리포와 함께 셋이 서로 어울려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기세가 웅장하여 옛날에 형승을 논하는 사람이 중국의 금릉(金陵)에 비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두산성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산지로, 비록 높지는 않지만, 임진강과 한강, 그리고 한강의 최하류 지류인 조강(祖江)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오두산은 조선시대에 ‘오도산(烏島山)·오두산(鰲頭山)·구조산(鳩鳥山)’등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1:50,000 근대지형도 <통진(通津)도엽>에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인 탄현면이 파주 지역 관할로 표기되어 있으며, 오두산성은 오두산(鰲頭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오두산성에는 현재 오두산통일전망대가 위치하고 있다.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주고 통일교육의 체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2년에 건립된 이 전망대는 지상5층, 지하1층의 건물이다. 가시거리가 좋은 날씨에는 북으로는 개성 송악산, 남으로는 서울의 63빌딩까지 볼 수 있으며,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를 따라 동북방향으로는 임진각, 제3땅굴, 판문점과 연계되는 장소이자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아픔과 통일이라는 희망이라는 장소성을 동시에 지닌 장소이다.

3. 인조와 인열왕후의 장릉(張陵)



파주 장릉(자료: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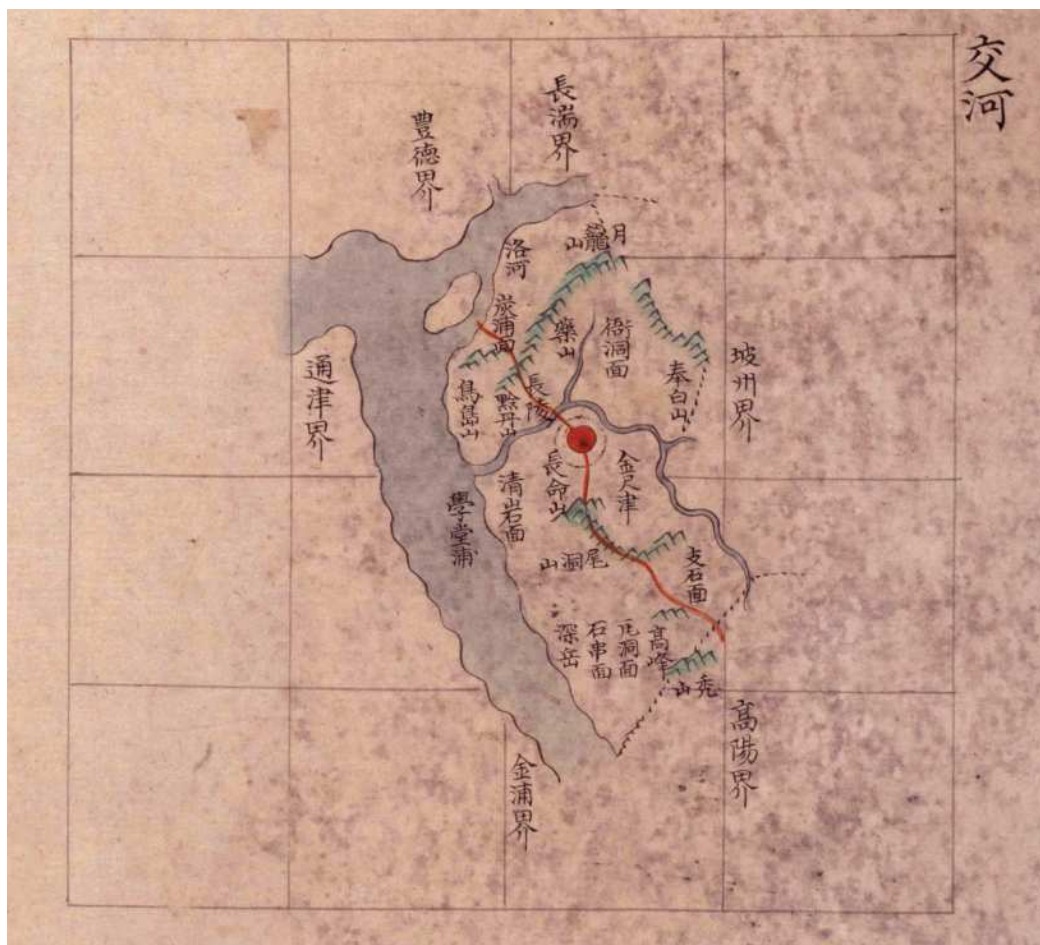
《대동여지도 奎10333》의 교하현에 표시된 장릉 부분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탄현면에 위치한 장릉(張陵)은 조선 제16대 왕 인조와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 한씨의 능이다. 원래 파주 운천리에 있었으나, 장릉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뱀과 전갈이 석물 틈에 집을 짓고 있어, 1731년(영조 7)에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면서 합장릉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옛 장릉의 석물과 천장하면서 다시 세운 석물이 같이 있어 17세기와 18세기의 왕릉 석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

18세기 중반의 조선사회의 모습과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20리 방안을 기준으로 제작된 《조선지도(朝鮮地圖)》는 전라도 56개 군현을 제외한 함경도(23장)·평안도(42장)·강원도(27장)·황해도(23장)·경기도(33장)·충청도(54장)·경상도(71장)의 군현지도가 7책으로 묶여 있는 지도책이다. 20리 방안이란 축척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고을이 동일한 축척 아래 그려져 있으며, 군현의 모양이나 지리 정보의 위치 역시 전통적인 지도책에서는 가장 정확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책이기도 하다.6) 현재의 탄현면은 《조선지도》의 〈교하(交河)〉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중앙에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교하현의 읍치이며, 읍치 서북쪽 산줄기 아래에 '장릉'이 표기되어 있다.

농포자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東國地圖)》 유형으로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는 〈경기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순으로 총 8장의 도

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조선지도》 총설.



《조선지도_奎16030》중 〈교하〉 지도(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와 충청도가 한 면에 그려진 〈경기도·충청도〉에서 교하현은 서울과 같이 황색(黃色)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진강과 한강의 만나는 지점에 그 대략적인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교하’군현명 우측에는 서울까지의 거리인 17리가 표기되어 있고, 하단에는 교하면의 소속 방면이 총 7면임이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군의 서쪽 산줄기가 끝나는 지점에 ‘장릉’이 표기되어 있다.

장릉을 포함하여 조선 왕릉은 519년 동안 지속된 한 왕조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로, 조선 왕조의 무덤은 총 119기이며 그중 임금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왕릉은 42기이다. 옛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에 있는 2기를 제외하고 장릉을 포함한 40기가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조선 왕릉은 장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 형태나 석물의 예술적 표현에서 고유한 가치



장릉 부분 확대(우)



《해동지도_古4709-61》 중 〈경기도·충청도〉 지도(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를 찾을 수 있으며, 풍수 이론에 대한 조선 고유한 해석과 적용도 조선 왕릉이 보여주는 문화적 특징이다. 동시에 왕릉과 함께 능원을 조성하면서 작성한 『산릉도감의궤』는 석물의 배열이나 정자각의 조성 과정은 물론 산릉 조성을 위해서 흙을 지어 나르는 데 참여한 단순 노역자의 이름까지 작성한 모든 문서가 남아 있는 기록문화이며,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무형적인 제례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가치 있는 세계유산이다.

4. 신라시대의 사찰 검단사(黔丹寺)

탄현면에 위치한 검단사(黔丹寺)는 847년(신라 문성왕 9) 혜소(慧昭)가 창건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의 말사이다. 검단사라는 사찰명에는 두 가지 유래가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얼굴색이 검어 흑두타(黑頭陀) 또는 검단(黔丹)이라는 혜소의 별명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사찰이 있는 오두산이 검은 편이라 검단사라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창건 이후 조선 중기까지의 연혁은 전해지지 않으며, 창건 당시에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있었다. 그러나 1731년(정조 7) 장릉(長陵)을 탄현면 갈현리로 옮길 때 함께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한다. 이후 장릉에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사찰에서 두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한때는 두구사(豆拘寺)라고도 불렀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교하현 불우조에는 검단사가 검단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72년 군현지도》에 수록된 〈교하군지도〉에는 ‘오두산성허(鰲頭山城墟)’남쪽으로 ‘검단사’가 사찰을 표현한 전각 모습의 구조물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1:50,000 근대지형도 〈통진(通津)〉 도엽에는 오두산 동남쪽으로 사찰을 의미하는 기호와 함께 ‘검단사’가 표시되어 있다.

현재 검단사의 주불전은 법화전이며, 이 전각에는 조선 후기에 제작 한 목조관음보살좌상(문화재자료 제41호)과 아미타회상도(1854), 그리고 신중도(조선후기) 등이 봉안되어 있다. 검단사 〈아미타불회도〉는 1854년에 조성되었으며, 제작에는 찬종(讚宗)과 해운일환(海雲一環)을 비롯해 7인의 화승이 참여하였다. 검단사 〈아미타불회도〉는 가로 172cm, 세로 118cm로 가로 화면에 맞게 주존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옆으로 넓게 배치되어 있음은 18세기 후반의 경기화승의 화풍의 계승한 것이며, 과도하게 크게 묘사된 불단 등은 19세기 전반 경기도에서 제작된 후불도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법당 내의 석불은 등신불(等身佛)로 천여 년간 버려져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인근 금산리 보현암에서 수습하여 보존해오던 것이다.



〈교하군지도_奎10342〉의 검단사 부분 확대(하)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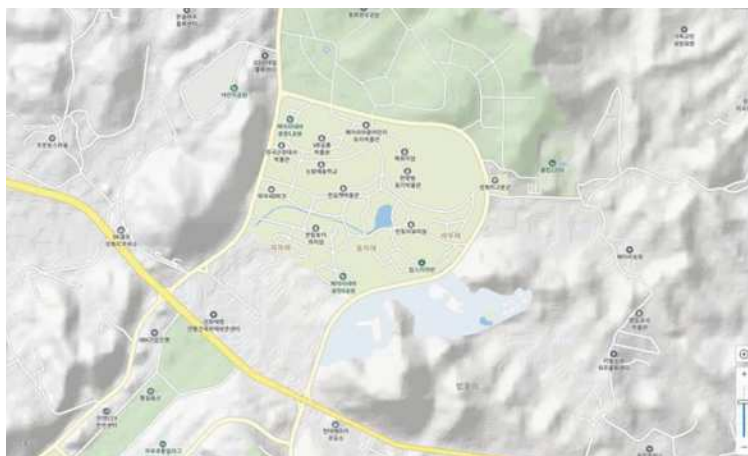
1:50,000만 근대지형도 <통진> 도엽 검단사 부분 확대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5. 과거와 미래,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탄현

탄현면에는 장릉 이외에도 방촌 황희선생 묘와 조선전기 문신 정연 관련 묘역인 정연묘역(鄭淵墓域), 조선중기 문신으로 대제학을 역임한 황정욱(黃廷域)의 묘와 신도비가 위치한 지역으로, 우리 조상들의 삶과 역사가 함께 묻어 있는 곳이다. 동시에 1990년 이후 탄현면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가 탄현면 범흥리에 위치한 ‘헤이리예술마을’로, 이는 역사 속 탄현면 내에서 역사와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삶 속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넓이 약 49만 5,868m²의 국내 최대 규모인 문화예술마을로,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미술가·음악가·작가·건축가 등 38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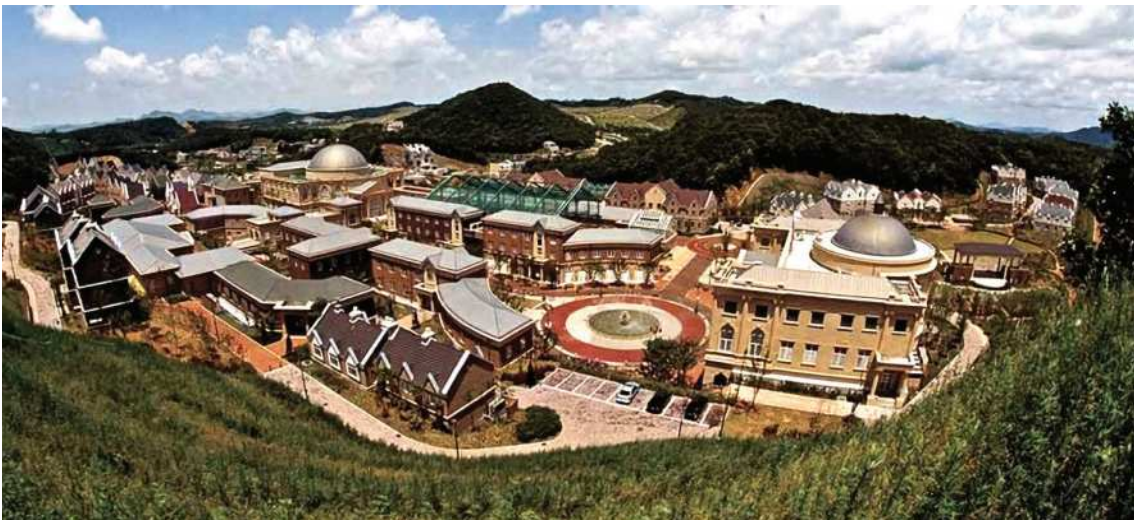
파주 탄현면 헤이리 마을(자료: 네이버 지도)



탄현면 헤이리 마을의 과거(상)와 현재(하)(자료: 파주시, 『파주시지』 9 사진자료집, 2009)

명의 예술·문화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마을 이름인 '헤이리'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전래농요인 '헤이리 소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수많은 갤러리·박물관·전시관·공연장·소극장·카페·레스토랑·서점·게스트하우스·아트숍과 예술인들의 창작·주거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모든 건축물은 수십여 명의 국내외 유명 건축가가 만들었으며 산과 구릉·늪·개천 등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설계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세계 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3년 4월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이 조성한 영어마을이다. 3개의 캠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산캠프는 2004년 8월 23일, 파주캠프는 2006년 4월 3일, 양평캠프는 2008년 4월 14일에 개원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에 위치한 파주캠프는 용지면적이 8만 4,171평, 연건축면적은 1만 1,053평이다. 교육생 500명, 원어민 교사 100명, 내국인 강사 및 직원 100명 등 총 7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영어마을 안은 모든 시설이 영어권 국가 마을의 모습으로 조성되어 있어, 이국적이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시청, 박물관, 도서관, 경찰서,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과, 카페, 레스토랑, 전문숍 등의 상업시설, 각종체험시설, 야외공연장, 체육관 등의 놀이 및 특화시설 등 영어마을 내의 모든 시설은 실제 주거공간이자 체험공간이다. 경기영어마을은 2017년 경기도에서 도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자료: 한국관광공사)

민들의 창의적인 열린 생각과 효과적인 미래교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소인 '경기체인지업캠퍼스'로 이름을 바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그리고 2019년 현재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개편하면서 그 명칭을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교육(Education), 체험(Experience), 놀이(Entertainment)의 3E가 결합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곳은 탄현면 내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탄현의 인문환경

김미애(구리환경교육센터)

현재 탄현면은 소통과 단절을 무수히 반복하던 불안한 남·북 관계가 한반도를 가로지르던 철조망을 연결하는 길이 열리고, 소통과 통합으로의 길이 열리고 있는 이때 탄현의 급격한 변화는 볼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사라져가는 탄현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한다.

1. 일제강점기의 탄현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기로서 일대 사회 변동기였던 19세기 후반기는 전통주의 봉건적 양반지배체제의 해체와 일제 침략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처하면서 대내적 모순의 극복이 절실히 요구 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정치적 경향과 함께 파주지역은 임진강을 끼고 있고 당시 서울 서북지방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서, 일제가 조선을 침략한 이래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철도와 함께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 철도 등이 설치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곧 이 지역은 일제에게는 군사적 침략 경로의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이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침략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임진강은 북한의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황해북도 개풍군 임한리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을 가른 뒤 한강으로 흘러간다. 임진강 유역은 옛날부터 비옥한 평야지대로 농업이 발달했고 강을 기반으로 한 어업과 물류가 번성하던 곳이기도 했다. 총길이 254km이고, 구간의 3분의 2는 북한지역이고 3분의 1구간이 연천·파주를 흘러간다.

탄현면에는 철도가 개설되기 전 쌀을 실어 나르던 두 개의 나루터가 있었다. 서해의 밀물이 임진강을 타고 올라오는 지역이므로 장삿배와 고기잡이배가 자주 머물러 갈 수 밖에 없었다. 철도와 다리가 없던 시절 서울에서 황해도·평안도 지방으로 가려면 임진강을 건너야 했다. 임진강변에 포구와 나루가 발달

했는데, 탄현면에는 오금1리의 질오목나루와 낙하리의 낙하나루가 대표적인 나루터였다.

19세기 파주에는 왕실이나 내시 또는 서울 지주의 마름을 맡아 개간한 농토를 관리하며 부를 축적한 집안들이 적지 않았다. 마름을 통해 수확한 벼는 배를 이용하여 서울 지주 집으로 실어 날랐다.

청암동을 출입한 배의 경우 소작 벼를 나르지 않는 평소에는 마포에서 새우젓을 싣고 나루로 오고 돌아갈 때는 석회나 청기와를 만드는 재료인 청암(靑巖)이라고 하는 돌을 실어 갔다. 이러한 과정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다.

질오목나루가 있던 오금1리는 일제강점기 때는 면사무소가 있던 면소재지였다.

옛날에 여기로 배가 들락날락 했다고 해서 뱃골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삼정회사'라고 땅을 관리하던 일본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가 논을 내동과 외동으로 나누는데 외동만 일본 사람들이 관리를 했어요. 내동은 모판동이라고도 불려요. 지금 민통선 안에 있는 논인데 거기서 모를 많이 길렀기 때문에 모판동이라고 불렀지요. 현재 미곡처리장이 있는 자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면사무소 자리였어요. 가을이면 노적이리가 산더미처럼 앞마당에 쌓여 있었어요. 그게 다 공출미여서 삼정회사에서 서울로 실어 갔지.

가을 추수가 끝나면 노적이리를 덮는 이영을 엮는다고 집집마다 짚을 얼마만큼씩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영을 엮던 모습도 봤어요. 이영을 촘촘히 엮어서 노적이리를 덮어 놓으면 비가 와도 젖지 않거든요. 나룻배가 장단으로 건너다니고 건너오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했어요. 벌에는 주막도 하나 있었어요. 면사무소 앞마당에 쌓아놓은 벼 가마니를 소달구지로 질오목나루터까지 실어다 놓으면 배에 실어서 마포로 가지고 갔어요. 그전에는 교통이 주로 배였어요.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물때가 되면 배가와 가지고 실어가곤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소달구지를 끌어서 그거를 나루터까지 실어 나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¹⁾

오금1리에는 면사무소가 있었던 면소재지인 만큼 면사무소 옆에는 소학교도 있었고, 파출소도 있었다. 파출소 옆에는 '지소우물'이라고 부르는 큰 우물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먹기도 했다. 학교는 한국전쟁 때 불에 타 소실된 후 만우리 창고로 옮겨가 잠깐 수업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 폐교되었다.

오금1리에는 토지를 관리하던 일본회사 '삼정(미쓰이)'이 있었던 만큼, 마을에서 평생을 나고 자란 80세 이상의 어른들은 삼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삼정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마을에 살았다

1) 오금1리 김기중(83세)



오금1리 질오목마을 표석



오금1리. 일제강점기 면사무소가 있던 자리

고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현재도 오금1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구○모(1949년생. 70세)씨는 ‘조부께서 실제 삼정에 근무하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조부 구○형씨는 1930년 경성공립농업학교를 졸업했다.

도지방비(道地方費)로 설립된 경농은 한일공학으로 운영된 공립농업학교로, 입학자격, 수업연한, 학비 등이 모두 일본 농업학교와 같았다. 일제는 식민지 경영과 침략전쟁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1910년대), 산미증식계획(1920~1930년대), 조선증미계획(1940년대)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농업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농업인력이 필요하였다. 1925년 당시 22개였던 공립농업학교가 1943년 54개로 증가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일제는 고등보통학교 설립을 제한했던 것과 달리 농업학교 설립에는 적극적이었다. ‘동양 제일의 농업학교’를 표방한 경농은 교육과정·교사진·학교시설 면에서 우월하여 엘리트농업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선망하던 학교였다.²⁾



오금1리. 일제강점기 파출소가 있던 자리에 지어진 주택

2) 손용석, 「1930-40년대 京城公立農業學校의 운영과 성격」,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석사논문, 2011, 6~7쪽

경농은 1인당 교육비가 지방의 농업학교에 비해 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사구성 등이 우수했으며, 졸업 후 취업도 인문계 중학교 출신보다 잘되었다. 이에 엘리트 농업전문가를 꿈꾸던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여 실업학교 중에서는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였다.³⁾ 하지만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고 미래를 꿈꾸던 청년 구○형씨의 삶은 오래가지 못하고, 서른 한 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끝이 났다.

낙하나루는 낙하리에 위치한 나루였다. 강 건너편인 장단면 석곶리로 건너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장삿배가 정박하기도 하였다. 낙하리는 자유로의 낙하인터체인지 부근에 위치하며 마을 앞 강변에 나루가 있었다. ‘낙하도(洛河渡) 언덕에 낙하원(洛河院)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낙하리는 나루와 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형성된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낙하나루는 옛날부터 서울과 개성간의 큰 길목으로 통행량이 많아 도승(渡丞)을 두어 관리하던 나루였으므로 관리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인 원도 설치하였던 것이다. 『대동지지』 교하조에 고려 때부터 남쪽으로 향하는 대로가 이 나루를 통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른 시기부터 나루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⁴⁾

쓰레기 소각장 아래에 나루터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유로IC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거기까지 배가 들어왔었어요. 거기까지 배가 들어와서 나무를 싣고 마포나루 가서 팔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낙하나루가 있던 때는 한국전쟁이 나기 전이니까 어른들에게 얘기만 들었어요. 자유로 너머 독을 중국 사람들도 와서 막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⁵⁾

파주에서는 일제 이후에도 주로 교하지역을 중심으로 개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민간차원의, 신분적 특성을 벗어난 상민층과 궁궐의 토지나 부채지주의 땅을 관리하던 마름 출신이 개간사업에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다. 개간을 위해서는 인력을 동원하여 보(淤)나 방축을 쌓게 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매년 수혜자에게 수세(水稅)를 물려 회수했다.

오금1리와 낙하리에서는 보를 쌓거나 방축을 쌓을 당시 중국인 노동자들인 ‘쿨리’가 조선인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쿨리의 도한(渡韓)이 본격화한 시기는 1914년. 경성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약 2,500명이었는데 그

3) 『서울市立大學校 八十年史』, 59쪽

4) 김준기·강호정·남찬원, 『경기도 장시와 포구』, 경기문화재단, 2018, 251쪽

5) 낙하리 정광채(74세)



1930년 경성공립농업학교 졸업 앨범



노무라 교장과 교사들



학생들의 실습 장면



학교 전경과 노무라 미노루 교장(재직 1928~1944년)

중 받은 노동자였고,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100명 정도였다고 한다. 1920년에는 서울에만 중국음식점이 100곳 가까이 됐을 정도로 1920년대 내내 조선에 들어오는 중국인 쿨리의 수는 계속 늘어났으며, 1927년 봄에는 매일 1천명이 넘는 쿨리가 인천에 상륙했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독을 막았어. 일제강점기 때 저기 독을 쌓았어. 그래가지고 벌을 만들었어. 1담보가 300평인데 8담보를 만들었어. 벌 쪽은 물이 안가니까 독을 쌓아 보를 막아서 만들었지. 자유로 안쪽에 있는 논을 그렇게 만들었어. 강썰 쪽으로 다 그렇게 만들었어. 그 때는 여자들도 죄다 동원해서 나가서 모내기 하고 그랬어. 줄모 내려 나가고 그랬어요. 고생들 많이 하고 살았는데 농사지어서 죄다 빼앗기고 노적가리가 엄청났어요.⁶⁾

개간 사업이 끝난 후 갈현리, 송촌리, 범흥리 약산굴, 연다산리와 대동리, 오금리, 낙하리 등에 넓은 논이 생겼고, 범흥리 약산굴 앞의 논은 ‘박필훈’가의 소유가 되었다. 이후 동네 앞으로 새로운 강줄기가 생겨 논을 소작하기 위해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송촌에 살던 교하 노씨들이 약산굴로 대거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엮고 파주지역에는 1920~1930년경에 천석꾼이나 만석꾼으로 불리는 부농가가 출현했다. 탄현면 갈현리의 최봉현과 만우리의 우인명이 대표적인 인물이다.⁷⁾

최봉현은 일제 강점기 파주에 거주했던 지주로 1938년 경기도농회(京畿道農會)에서 도내 전답 30정보(町步) 이상을 소유한 지주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지주명부에 수록되었으며 1937년 6월말 현재 파주군에 논 46정보, 밭 9정보로 총 55정보를 소유하고 있었다. 고용한 소작인 수는 총 110명이었다.⁸⁾

해방을 맞이한 우리의 일차적 과제는 독립된 민족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민족국가 수립과정의 기반을 이루기 위해 토지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1945년 국민 대다수가 농민이었으므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제를 철폐하고 농민의 토지소유를 확립시켜 농민을 안정된 생활에 올려놓는 일이었다. 남한은 1949년 「농지개혁법」을 공포한 후 10년 장기간에 걸쳐 개혁대상의 토지를 농지에 한정하고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소극적 형태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6) 오금1리 김기중, 84세

7) 파주시, 『파주시지』 2 파주역사, 2009, 259쪽

8) 최재성·김영진·남기현, 『일제강점기 경기도의 재력가』, 경기문화재단, 2018, 238쪽



법흥1리 약산굴 들판과 송촌리 들판

1938년 파주에는 30정보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가 45명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인 및 일본회사 소유의 귀속농지 또는 학교 등 교육재단 대상의 농지를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40명의 대지주가 있었지만 정작 농지개혁에 포함된 대지주는 4명에 불과했다. 결국 대지주들은 농지개혁을 회피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부조리한 결과를 양산하게 되었다.



2.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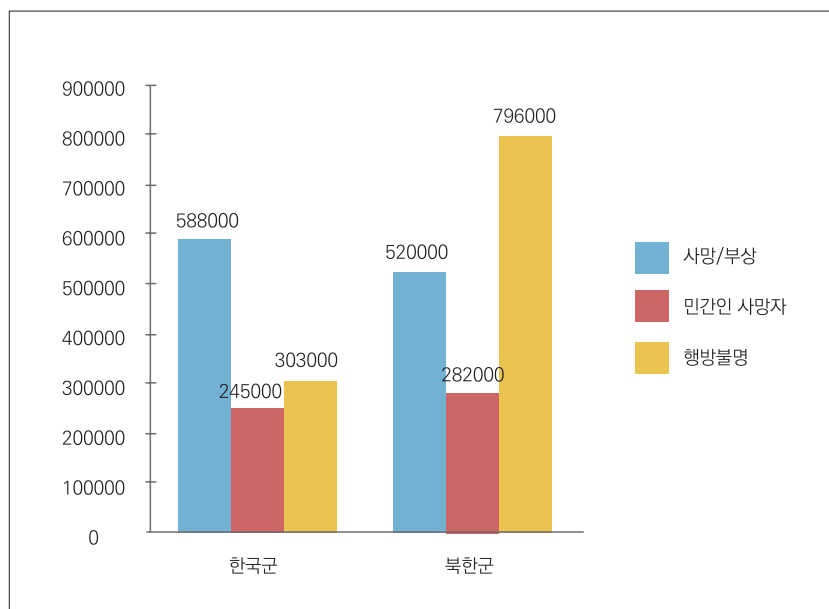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쪽과 북쪽 모두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다. 사회·경제적 기반의 파괴는 물론 민족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70년 이상 분단된 국가로 남는 비극을 낳았다.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총 한번 쏘보지 못한 채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선으로 뛰어들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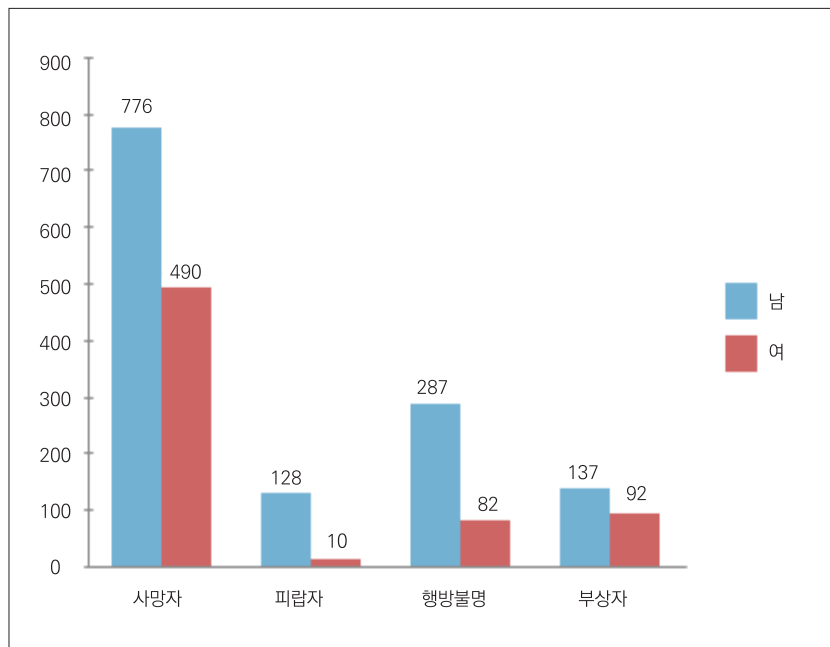
한국전쟁으로 남한은 일반공업 시설의 40%, 북한은 전력의 74%, 연료공업 89%, 화학공업의 70%가 큰 피해를 입었다.

파주 또한 큰 피해를 입었으며 1951년 9월 집계된 희생자 피해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때 남북한 인명피해



한국전쟁 때 파주의 희생자 피해 상황(1951. 9 기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전쟁이 났어. 피난은 멀리도 못가고 교하면 삽다리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갔고 1.4후퇴 때는 능곡까지 갔었어요. 더 이상은 못 갔어요. 미군이 있다가 후퇴하면서 웬만한 건물들은 불을 냈어요. 인민군은 피해를 주지 않았고요. 인민군이 그 건물을 쓸까봐 오히려 미군들이 불을 많이 놓고 갔어요. 후퇴하면서... 건물이 거의 불타고 없었어요. 건물이 드문드문 남아 있긴 했지만 포래 친구들이 마을에 많았는데 다들 피난 나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폐허이긴 하지만 내 땅 가진 사람도 있었고, 다들 인심이 좋아서 얘기하면 땅 있는 사람이 집터도 내 주고 그랬어요. 그 때 당시에 약 300호 정도가 살았던 것 같아요. 갈현 3개리를 합쳐서 그 때는 그냥 갈현리였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장이 섰었어요. 그 시장이 한국전쟁 전 까지는 있었어요. 전쟁이후에 불이 나서 다 타고 사람도 흩어지고 해서 시장이 안 섰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터라는 이름만 남아있어요.⁹⁾

9) 갈현1리 송은석. 81세

동네 사랑방
갈현이발소



갈현이발소 송은석(81세)씨

형제가 내 위로 형이 둘 있었고, 아래로 동생이 셋 총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갈현 초등학교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전쟁 전까지 그 근처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쪽으로 이사를 내려왔어요. 이사는 한국전쟁 후 한참 있다가 이사했어요.

스물여섯 살에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했어요. 집사람은 용인에서 시집왔는데 집안끼리 소개가 돼서 결혼 전에 선보는 날 딱 한 번 만나보고 이듬해 결혼을 했어요. 집사람은 스물네 살, 나는 스물여섯 살 되던 해였어요.

결혼식은 그 때만해도 금촌에 있는 예식장에서 했어요. 신식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당시에 드레스가 귀하던 시절이라 한복입고 면사포만 썼어요. 결혼해서 아들 둘과 딸 하나 낳았는데 아들 하나는 먼저 보내고 지금은 남매가 남았어요. 집사람도 먼저 떠났어요.

이발을 직업으로 삼은 지 50년이 넘었어요. 저 건너에서 하다가 그 건물이 없어져서 1988년도에 지금 이 건물 지었을 때 세 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예전에 1980년대에는 이발소에 손님이 많았어요. 지금은 동네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다 죽고, 또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손님도 많이 줄었지요.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미용실로 가지 늙은 사람한테 오나요.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해요? 심심하니까 손님이 없어도 문 열고 나와 있는 거지요. 가끔씩 이발 손님도 오고 동네사람들이 사랑방처럼 놀러도 오고 하니까 지금도 이발소 손님은 있어요. 할아버지들도 오고 60



대까지는 와요. 어떤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어요. 이렇게 늙은 이에게 손님이 매일 많이 오면 힘들어서 감당도 안돼요. 여기 나와 있으면 심심하지는 않아요. 손님이 있건 없건.

손으로 모내던 시절에는 농사도 지어봤어요. 이 마을에도 두레가 있었어요. 그때는 동네마다 두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레에 참여해서 복도 치고 징도 치고 했었지요. 스무 살까지는 했어요. 스물 하나에 군대를 갔으니까요.

군 생활은 흥천에서 했어요. 먹는 것도 부실했고, 우리는 그래도 건빵도 나오고 했으니까 우리 전 사람들은 군 생활이 더 힘들었겠지만 나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대우가 훨씬 좋잖아요. 예전에는 36개월 꼬박했지. 지금은 대우도 좋고 병장 월급이 많지요.

군대에서 이발병을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직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 동네에 이발관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기술을 조금 배우다가 입대를 했는데, 기술은 군대에서 더 많이 익혔어요. 군인들 이발해 주면서. 그리고 제대 후 일반면허는 종로에 가서 따왔어요. 당시에는 시험장소가 서울밖에 없었어요. 이일이 지겨워서 1973년도에 한 2년 정도는 잠깐 이 동네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았어요. 광탄으로 가서 거기서 택시 2년 하다가 그만두고 이발소 1년 하다가 갈현리를 떠난 지 3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지요. 광탄에서는 택시도, 이발소도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왔어요.

예전이 인심도 좋았지요. 시골은. 지금은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몰라요. 마을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이 반 정도로 줄어서 지금은 놀러오는 사람이 줄긴 했지만 이발소가 사랑방이지요. 놀러 온 사람이 꽤 잦았어요.

아직은 동네가 워낙 크니까 사람이 모여요. 누구 집 농사가 풍년인지, 누구 집 자녀들 취직 한 얘기, 결혼한 얘기 등 동네소식은 여기서 빨리 들어요.

지금은 시골 사람들 다 농사꾼만 남았어요. 요즘은 다 기계로 농사지으니까 논농사는 힘들지 않는데 기계로 할 수도 없고, 일거리가 많은 밭농사 때문에 힘들지요.

길이 새로 나니까 상권도 살고 좋잖아요. 전에는 없었어요. 예전





왼쪽 길은 새로 난 큰 길,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동네를 돌아 왼쪽 길과 다시 만난다. 오른쪽 길 끝자락에 갈현이발소가 있다.

에는 이발소 앞길이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큰길이 난 거지요. 큰길이 난지도 한참 되었지 20년은 더 된 것 같아. 이발소 손님 숫자를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한 달에 많이 하면 100명 정도 해요.

탄현면에는 이발소가 금승, 탄현, 법흥리, 축현리에도 있고 네다섯 개 정도 이발소가 있어요. 이발하는 사람들은 다 30년 이상은 한 사람들이지. 나도 50년을 했으니까...

50년을 이발해서 남의 돈을 뺏었는데도 돈이 간 곳이 없어요. 돈은 올 때는 요란하게 오는 것 같은데 갈 때는 말이 없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발사하고 목수는 잘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깎아 버려서 그렇대요. 이발사는 머리카락 자르지 목수는 나무를 깎지요. 그래서 돈이 안 붙는대요.

한국전쟁 당시 건축물도 다수 파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쟁 전 파주에는 1만 5,828호의 주택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후 232,700㎡가 피해를 입었다. 군청사와 읍·면사무소, 어업조합, 금융조합 등의 건물이 전소되거나 반소되었다.

“우리 친정집은 한길(큰길)에 있어서 그래도 저 안 외진 곳에 있는 집 보다는 덜 무서웠어요. 전쟁이 났을 때 산 밑에 외진 곳에 있는 집에 살던 사람들은 밤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딸들을 전부 우리 집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좁은 방에 엄청 많이 모여서 있곤 했어요. 우리 집이 길가에 있으니까 사람 소리가 들리면 우리 친정 엄마가 나를 숨기고 그랬어. 나도 약아서 집에 있다가 담배 냄새가 나거나 하면 오는가 보다 하고 얼른 장롱 속으로 들어가 숨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별거 다 겪고 살았어요. 전쟁 때 중공군이 여기 들어와서 저녁때 요기 삼거리에서 넘어와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우리 친정이 한길에 요렇게 있었는데 색경(유리창)을 설치했어요. 전쟁이 나니까 요렇게 내다보면 달밤에 그제 다 보여. 우리 어머니가 나는 처녀니까 도망을 가래. 그런데 어디로 가. 우리 옆집이 술집이었어. 술집이 있는데 그 집이 삼대가 살았어요. 손녀딸, 엄마, 외할머니 이렇게. 그 집에서 우리 집으로 찾아 왔어요. 뒷문을 두들기면서 어디로 당분간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맨발로 나갔어요. 산에다가 방공호를 파냈는데 급해서 맨발로 나가가지고 거기로 숨으러 간 거야. 조그만 방공호였으면 몰랐을 텐데 큰 방공호로 넷인가? 다섯이 뛰어 가서 그 방공호로 들어갔어요. 제일 연세 많은 할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갑갑하다고 난 나간다는 거야. 그분 딸 이름이 계옥인데, ‘나가서 중국 놈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으면 빨리 와서 연락하라.’고 했어.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가더니 그 할머니가 함흥차사야. 그래서 이때나 오나 저때나 오나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중국 놈이 들어 닥쳤지 뭐야. 들어간 지 얼마 안돼서 호루라기를 한 번 뽉 하고 부는 거야. 플래시 불빛 세 개가 방공호를 비추는 거야. 거기 바닥에 짚을 깔아 두었는데 그걸로 머리만 가리고 서 있었어요. 하여튼 구석에 다섯이 서 있으니까 발은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일본말로 나오래요. 우리가 일본말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나오라니까 그다음 두 번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죽든 살든 나가자고 저 사람들이 나오라는 데 이판사판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로 나가자고 자기네 모녀가 앞에 갈 테니까 나보고 뒤에서 나오래요. 중공군들이 불빛을 비춰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손을 탁 붙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 붙들어 그래서 냅다 도망쳐 뛰어와서 우리 친정 굴뚝 아래에 와서 앉아 숨어 있었어요. 그 뒤에 굴뚝에 와서 죽 앉아 있는데 중공군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딸을 내 보내서 걱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꾸 그 문을 열어요.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 봐서 ‘엄마’ 하니까 우리 엄마가 빨리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콧구멍만한 방에 30명이 앉아 있는

거야. 밤이면 우리 방에서 자던 사람들을 다 그 방 하나만 준거야. 중공군들은 부엌에서 별거 다 해 먹고 그러고 있어. 그래도 사람은 안 해하더라고. 이틀 저녁인가 자더니 다 갔어요. 중공군 한 명이 안가고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 어른들이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갔어요. 그렇게 살았어.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피난도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곳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했어요.¹⁰⁾

정순정씨는 나이가 찬 딸이 전쟁 중에 끌려갈까봐 걱정이 된 부모님에 의해 같은 만우리에 사는 강석주씨와 결혼했다. 당시 신부는 열여덟, 신랑은 열아홉 나이였다. 신랑은 고양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었다. 행정구역은 만우리였지만, 자연마을로는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았고, 강석주씨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결혼 전까지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시부모님 또한 큰아들이 전쟁 중에 학도병이든, 의용군이든 징집되어 갈까봐 자손이 끊길 것을 우려해서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서둘러 결혼을 시켰다고 한다.

전쟁을 겪은 어른들의 기억이 많아서였을까? 만우리는 2018년 겨울 새로운 노인정을 지어서 이전 했는데, 탄현면 다른 마을 노인정과 달리 지하에 전쟁 시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갖춘 건물을 지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피난 갔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파괴되고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느라 다들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몇 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던 논에는 갈대가 우거지고 개흙이 형성되어 있어서 농토를 개간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았다. 특히 탄현면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접경 마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충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라는 현실은 파주를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늦게까지 미개발지역으로 남겨 놓았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1972년 닦여진 통일로가 도로의 면모를 갖추고 개통된 첫 도로였을 만큼 오랫동안 낙후된 곳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영농 또한 다른 곳과 다르게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탄현면의 민통선 영농지역 6개 마을(성동리, 대동리, 만우리, 오금리, 문지리, 낙하리)은 군부대 작전 관할 지역으로, 농민들이 민통선 초소 출입통제와 제한으로 영농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불편은 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탄포천이라고 있어요. 밥 먹고 살기 힘들던 1960년대에는 힘드니까 다 거기 가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방을 막아야만 농사일을 하잖아요. 샛강이 있는데 거기를 막아야만 물을 저장했다가 봄에 농

10) 만우리 정순정(87세)



만우리노인정

사를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지게로 흙을 저다가 다 막아 놓았다가 일 년에 한 번씩 다시 터놓고, 지게로 흙을 저다가 막고 터놓고를 반복했어요. 장마 때 터놓지 않으면 물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니까 그러다가 가을이면 다시 막는 거지요. 지금은 거기가 수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이 많으면 임진강으로 빼고 물이 적으면 막고 해서 여기 농사를 지어요. 기억에는 1970년대에 수문식으로 만들었어요. 만우리, 오금리, 대동리 3개리에서 다 모여서 했어요. 지게로 흙을 지면 요만큼 밖에 더 지나고 그걸 저다가 막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금은 거기다 옹벽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못 올라가지만 예전에는 그곳으로 천렵도 많이 가고 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때고 살던 시절에 강변에 가서 갈대를 베다가 그걸 말려서 땀감으로 썼어요. 불을 때야 밥을 해먹고 사니까. 그거 하다가 목마르면 개울이 있어요. 지금도 '장군뉘시터'라고 부르는, 거기 가서 그 물을 그냥 떠먹고 올 만큼 맑고 깨끗했어요.¹¹⁾

11) 만우리 이성우(72세)



오금리 양·배수장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는 임진강 유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이기는 했지만 경계선이라고 해봐야 강가에 윤형철조망을 가져다놓은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60대 이상의 주민들은 철책을 발로 밟고 넘어가 임진강에서 물장구 치고 먹을 감으며 놀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임진강 유역의 통제는 심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 중반 철책선과 군 초소가 새롭게 정비되고 지어지면서 군의 통제가 엄격해졌다.

1975년 임진강변의 철책이 새롭게 정비되기 이전에는 강 바로 옆에 있는 땅까지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는 곳까지 경계지역이었다가 강 건너 북한과의 거리가 직선으로 450미터에 불과해 경계가 안쪽으로 옮겨졌다. 임진강변까지 농사를 짓던 마을 주민들은 철책 밖으로 밀려난 농지를 의지와는 상관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강변 가까이 개흙이었던 땅은 물과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농사용수를 확보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웠다. 수해가 수시로 나서 물이 넘치고, 가뭄에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보리를 많이 심었다. 특히 만우리 사람들의 농지가 철책 밖으로 많이 나가서 농토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았다.



강 옆으로 '보리동'이 보인다. 임진강 건너 보이는 산은 북한 땅이다.

예전에는 여기가 부자동네였는데 철책이 생기면서 논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주를 많이 했어요. 농사짓던 땅이 없어지니까 땅을 잃어서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많이 갔죠. 철책이 1975년도 정도에 지금의 위치에 생겼어요. 초소도 지어진 거죠. 지금도 철책 위에 올라가서 보면 농지가 그대로 다 있어요. 임진강 갯벌을 막아서 보리농사를 지어먹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땅을 벌이동, 보리동, 칠동 그렇게 불렀어요. 독 막아서 하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철책을 마을 앞으로 당기는 바람에... 거긴 진짜로 없는 사람들이 갯벌을 막아서 농사를 짓던 곳인데 그렇게 사라진 땅이 20만평 넘어요. 그 땅에서 논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이모작을 한다고 가을에 보리를 갈아서 보리를 하고 누렇게 익으면 베고 모를 심고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리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열댓 마지기 3,000평 정도 하던 거 거기에 있어요. 밖에 농지가 상당히 많아요. 철책을 원등기가 되어 있는 곳인데 막아놔서... 만우리가 이북하고 제일 가까워요. 임진강이 있어서 임진강이 비무장 지대가 되고, 직선거리가 450미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워서 철책을 임진강변으로 쪽 쳐오다가 여기는 너무 가까우니까 안쪽으로 당긴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20만평 이상 철책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직접 보면 상당히 넓어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소먹이로 쓰기 위해서 군에서 허락을 받고 갈대를 베어서 나와요. 나도

거기서 갈대를 몇 년 베어냈는데 갈대 베러 나가면 논이 그대로 다 있어요. 기계를 가지고 작업하러 가는 거죠. 독 밖으로 나간 농지가 지금 남아 있는 만우리 농지의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땅이 많으면 부자였잖아요. 지금은 제일 빈약한 동네가 된 거예요.¹²⁾

보리동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지게로 흙을 져다가 독을 쌓고 농지를 만들었다. 농지를 만든 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땅이었지만 철책을 안으로 설치할 당시에는 수해로 독이 터지면서 사실상 사라진 땅으로 간주되어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기조차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인력을 동원해서 보를 쌓다 보니 독이 높지 않았고, 비가 많이 오면 임진강 물이 넘어서 독이 터지고 농지가 사라지니 폐농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보리동에 땅이 있던 사람들은 밀가루 몇 포만 받고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할머니들은 고생 엄청 했어요.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소를 끌고 가서 지을 때는 소죽에다가 밥까지 가지고 들어갔어요. 달구지 있는 집도 몇 가구 없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소 논같이 할 때 써레질하고 할 때면 소죽통이 있어요. 거기다 소죽(소여물)을 담고 또 그 안에 민통선 안에서 먹을 밥도 올리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지. 그 양반들이 지금은 다 80살이 넘었죠. 80대들은 엄청 고생했어요.

그 무거운거 이고 지고 가는 거지. 밥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집으로 와서 다시 해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많이 고생들 했어요. 옛날에는 민통선 안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는 날은 노란 조끼에 노란 모자를 쓰고 들어가요. 군인들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은 농사 지으러 못 들어가요. 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농사를 짓다가도 다 팽개쳐놓고 나와야 해요. 새참을 먹다가 밥도 버리고 뛰어 나오고 모를 심다가도 뛰어나왔어요.¹³⁾

민통선 안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전쟁 나면서 바로 그 안이 민통선이었어요. 그전에는 철조망이 없었고 양쪽 산 입구 저쪽 산두령으로 길이 그렇게 있었어요. 양쪽으로 나 다녔지. 논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군부대가 양쪽으로 검문을 서고 있었고, 독도 없고 별판이었어요. 자유로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안보이게 된 거야. 자유로가 없을 때는 굴다리 길이 없고 검문소도 없었지. 낙하리IC 있잖아요. 여기 검문소 하나 있었고, 건너가서 산하나 있는데 검문소가 있었어요. 자유로 생긴 이후 통로가 낙하리에 3개가 있었는데 두 군데는 폐쇄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농사 짓고 살아요.¹⁴⁾

12) 만우리 우재명(61세)

13) 만우리 우윤정(72세), 이성우(72세), 오금리 건은점(77세), 낙하리 정광채(74세)

14) 낙하리 정광채(74세)



만우리 우윤정씨, 이성우씨



낙하리 정광채씨



오금리 민간인 통제구역 검문소 입구



자유로 토끼굴을 지나면 민통선지역의 오금평야를 만날 수 있다.

탄현면 일대 한강변의 농지는 자유로를 경계로 민간인 통제구역이다. 자유로 아래 민통선부터 한강 변까지 조성된 농지는 150만평에 달하며, 농민들이 논에 들어가 작업을 하려면 군부대가 정한 시간에 맞춰야 한다. 탄현면 지역의 민통선 출입영농인은 성동리, 대동리, 만우리, 오금리, 금승리, 낙하리 등 6개 마을 1,000여 명으로 출입증은 각 마을마다 신청자를 모아 탄현면사무소에 접수하면 군이 수거한 뒤 발급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이 출입시간이 다르다. 여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겨울은 농사가 없어서 그 곳에 드나드는 일이 여름보다는 적다. 초소에서 빨간 깃발을 올리면 비상상황이어서 농지로 갈 수가 없다. 비상상황이 해제되면 하얀색 깃발이 올라간다.

탄현면 민통선은 현재 영농에 한정되어 있지만 1980년대 후반까지는 성동리, 대동리, 만우리, 오금리, 금승리, 낙하리 등 6개 마을 전체가 군인들의 허락하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었다. 현재의 성동 사거리와 금산리 입구에 검문소가 있어서 6개의 마을을 출입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은 검문소에서 신원을 확인받은 후에만 마을로의 출입이 가능했다.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군인들이 방문객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마을로 전화를 걸어서 방문객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지, 방문객이 살고 있는 마을 주민과 어떤 관계인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마을 사람이 검문소로 와서 방문객을 직접 인증을 하고 방문대장에 기록을 해야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탄현면사무소가 있는 축현2리에 지금 농협 있는 곳이 예전에 버스정류장 자리였어요. 탄현농협이 버스중점이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내려서 전부 걸어갔어요. 문지리, 성동리, 낙하리 만우리, 대동리, 축현리 전부 거기서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부터 성동리에 차가 들어가고 여기도 마을 입구 쪽에 검문소가 있었다가 1988년도인가?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없어졌어요. 내가 젊었을 적에는 밥 먹고 술도 한잔해야 하고 당구도 쳐야 하고 나름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금촌이나 이런 곳으로 나가서 당구를 치다 보면 시간이 밤 11시가 넘어요. 9시가 통행금지였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마을로 안 들여보내 줘요. 일부러 바리게이트 앞 길바닥에서 자요. 군인들 하고 싸우다가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 자는 거죠. 아 침까지... 다 아는 사이이고, 매일 보는 사이였는데도 엄격하게 한다고 안 보내줘요. 그러면 검문소를 빙 돌아서 논으로 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검문소 통과 안 했잖아' 하고 별 싸움 다 했어요."¹⁵⁾

전쟁 이후 탄현면은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부대의 지휘 아래 통제받는 상황에 항

15) 금산리 노동호(61세)

상 놓여 있었다. 1960년대는 군부대와 함께 ‘방첩대’¹⁶⁾가 마을에 주둔했다. 저녁 8시만 되면 불빛이 새어 나오는 집을 다니면서 불을 끄라고 문을 두드렸고, 북쪽과 교전이 수시로 있어서 교전이 있는 날 주민들은 총알을 막기 위해 방문이나 창문에 항상 담요나 솜이불을 커튼처럼 치고 있었으며, 밤에는 불빛이 새어나갈까 창문을 막고 살았다.

옛날에 보안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해댔어요. 반찬이 부실하면 밥이 맛없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 사람들 밥해 먹이라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밤에는 불을 못 켜요. 등화관제라고 불빛이 보이면 북쪽에서 표적이 돼서 쏜다고 불을 못 켜게 했어요. 그때는 전기도 없이 조그만 등잔불을 켜고 살았거든요. 60년대에 호롱불 켜놓고 문을 요렇게 가려 어찌다 불빛이 새나가면 와서 불 끄라고 난리치고. 군인들은 해병대가 주둔했고. 보안대가 따로 주둔했어요. 우린 방첩대라고 불렀지. 그 사람들 군인이야. 그전에는 방첩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보안대야. 민간인들은 군인들 밥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맥도 못 줬어. 저기 소대 본부가 있어요. 거기 끝어다 잡아 패고 그랬어요. 그러면 데려다 사정사정해서 밀주 만들어 놓은 거 대접하고 했더니, 그 이후 술 먹고 싶으면 마을로 내려오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시절이 좋은 거 같아요. 동네 주민들끼리 정도 있었고...¹⁷⁾

학교 가는 길 또는 동네 어귀에서 북쪽에서 보내는 삐라를 줍는 일은 일상이었다. 수시로 간첩이 출현했다는 소식과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동네 주민이 소꼴을 베러 갔다가 실종되면 북쪽으로 끌려갔다는 소식도 들렸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내는 풍선에 넣은 물품을 습득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남쪽에서도 큰 풍선에 구호물품을 넣어 북쪽으로 보냈는데, 바람이 북쪽으로 불지 않고 방향이 바뀔 때는 풍선이 마을로 떨어질 때도 있었다. 여자 속옷, 전자시계, 담배 등의 생필품과 미화 백 달러가 들어 있기도 했다.

1970년대에 우리 집에도 아주 잘생긴 사람이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왔더라요. 바바리코트를 멋지게 입고 와 가지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또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했어요. 바바리 입고 선글라스 쓰고 하니까 멋진 신사여서 간첩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집에 들렀던 간첩이 송촌에 가서 불들렸대. 간첩은 지나가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 얻어먹은 거라서 어느 집이 어느 집인

16) 방첩대(CIC, Counter Intelligence Corps)라는 명칭이 사용된 시기는 1949년 10월부터 1950년 10월에 이르는 1년여에 불과하지만, 이 기간만의 국군정보부대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현대사에서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 전체를 포괄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17) 만우리 이성우(72세)

지 몰랐을 거야. 우리 큰댁이 교하 송촌리였는데 아버지가 그쪽을 자주 다니셨어요. 여기가 셋강 하나만 건너면 송촌이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간첩이 잡혔다고 우리 큰엄마들이 ‘간첩이 약산굴을 들렀다 왔다는데 누구네 집을 들렀을까?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 보니 우리 집이더래요. 다음 날 학교 가니까 간첩식별 교육하는데 바바리 입고 선글라스 쓴 사람도 간첩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때서부터 바바리 입고 선글라스 쓰면 다 간첩이라고 그랬어.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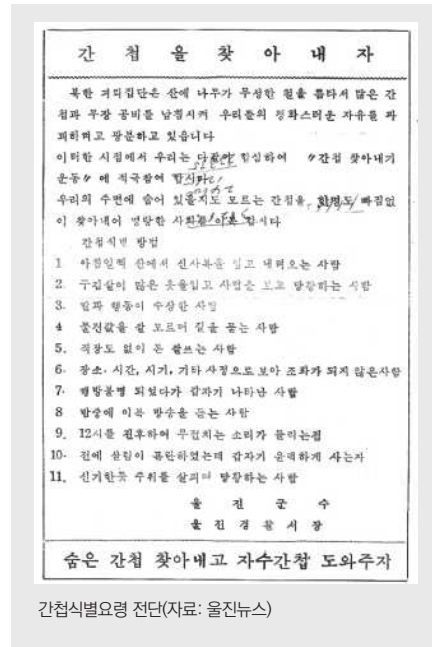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간첩식별요령 전단을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간첩식별요령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에 맞춰 작성되기도 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에도 경찰청은 ‘직파간첩 식별요령’을 작성해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 식별요령 중에는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를 몰았을 때 답변을 회피하거나 말을 더듬는 경우’가 있었고 ‘여관이나 여인숙 등에 오랫동안 투숙하면서 매춘부를 찾지 않은 경우’라는 부분도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국정원 누리집에 올라온 식별요령 중에는 ‘20~30대 청년으로 직업과 용모에 어울리지 않게 휴대폰·자판기·버스카드 사용법을 잘 알면서 실제 사용이 서투르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조 또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거나 발급받으려 하는 사람’도 간첩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특별한 직업 없이 여관, 고시원, 독서실, 하숙집, 관광지 등에 장기 투숙하면서 외부와 연락이 없고 주인이나 종업원과 대화를 꺼리는 사람’도 국정원은 간첩이라고 했다.

‘북한 불온 선전물 수거 처리 규칙’이 2007년 경찰청에서 폐지되기 이전까지 탄현면 어린이들은 북한에서 살포한 삐라를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학용품을 받기도 했다.

북한과 접경지역 마을의 또 다른 고충은 대북·대남 방송으로 인한 소음이다. 대북·대남 방송은 1963년부터 시작된 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 시설 철거와 설치를 55년 동안 반복해왔다. 대북·대남 방송은 남과 북의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이뤄졌다. 가깝게 붙어 있는 남북 지



18) 법흥2리 조경옥(70세, 법흥1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사진의 왼쪽 하단이 남쪽의 초소이다. 강 건너가 북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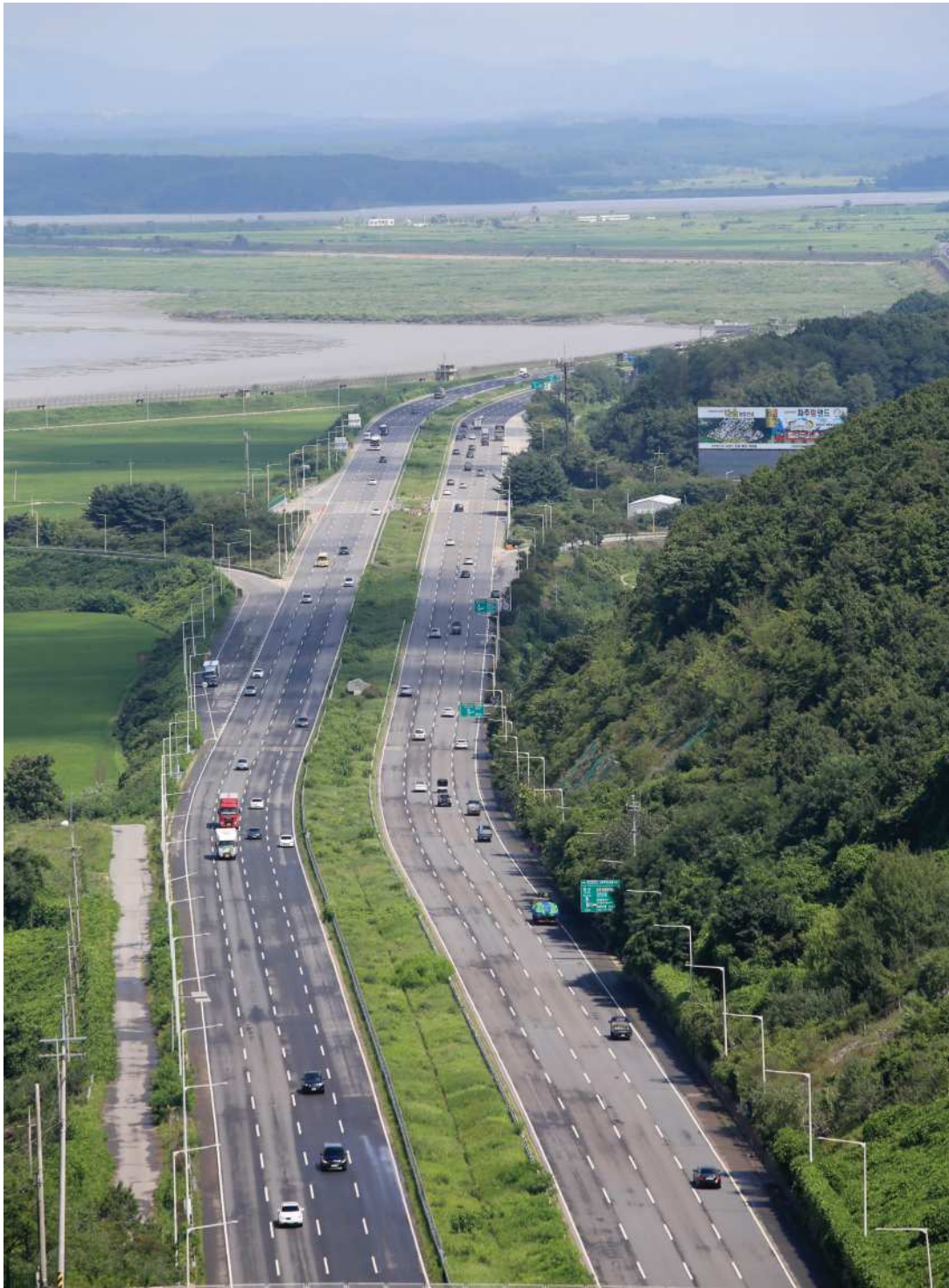
피(GP·전방초소)는 거리가 1km도 되지 않는다.

우리 쪽에서 보내는 대북 방송은 성능이 좋아서 소리가 10km 이상을 가지만 대남 방송은 전력 상황과 기반시설이 좋지 않아서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주민들은 북쪽에서 보내오는 대남 방송을 통해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으로 시작하는 노래는 오랫동안 듣다 보니 저절로 외워진다고 한 소절을 부르면서 웃었다.

2000년 이전까지는 남한의 대북방송 수위가 굉장히 높다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고 했다. 2000년 이후에는 비난이나 귀순 유도보다는 대중가요를 트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중단되었다.

탄현면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하여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이 우세해지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촌향도현상이 가속화되고, 도시적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급속히 퍼져나간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원인에 ‘자유로’를 빼놓을 수 없다.

자유로는 1990년 10월에 착공되었다. 1차 구간인 행주대교 북단~통일전망대(29km)는 1992년 8월에 완공됐으며, 2차 구간인 통일전망대~자유로 다리(임진각, 17.6km)는 1994년 9월에 완공됐다. 법흥



오두산전망대에서 본 자유로

리와 연결되는 필승로, 성동IC, 낙하IC가 탄현면과 연결되어 있다. 지방도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77번 국도로 등록되어 있다.

서울과 파주를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접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자유로를 따라 출판도시, 관광특구 등 이와 관련된 산업과 물류가 성동리와 법흥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탄현면에는 이름조차도 ‘이주단지’인 독특한 마을이 있다. 현재 법흥1리에 해당되는 마을이다. 이주단지는 황셋말, 응달말, 용뎡이, 아랫말, 건너마을, 고래, 약산굴 등의 자연마을이 자유로와 통일동산 건설 과정에 편입되면서 흩어져 있던 마을을 이주단지를 분양해서 한곳으로 모으면서 생겨난 특수마을이다.

자유로가 개통되기 전의 법흥리와 성동리는 탄현면에서 가장 오지로 꼽히는 외진 마을이었다. 성동리는 농사짓는 길조차 없어서 논 사이 길로 지계를 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낙후된 동네였다.

낙하리에 거주하는 정광채(74세)씨는 군 영장이 누락되어 군 생활을 방위로 복무했다. 당시 갈현리에서 성동리로 가는 길이 너무 외져 있고, 길이 안 좋아서 탄현면 파출소 경찰들조차도 서로 근무를 가지 않으려 해서 방위병인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근무를 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고 한다.

법흥리 이주단지는 약산굴 등 자연마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80여 가구 중 70가구가 이주를 해왔다. 일부 외지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 온 가구까지 합하면 거의 모든 가구가 이주단지에 모여 있다. 이주단지 주민들은 태어난 곳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을 잃어버린 ‘고향에 거주하는 실향민’이 되었다고 표현을 한다.

이주민들이 분양받은 가격은 3.3㎡(1평)에 27만원, 1가구당 231.4㎡(70평)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개발초기에는 보상금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충격으로 주민들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한다. 아직도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후유증을 겪고 있는 주민들도 있으며, 현재 마을 앞에 있는 농지의 개발계획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성동리에는 탄현일반산업단지가, 축현리에는 축현일반산업단지가, 탄현면 금승리 595-7번지 일원에는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탄현일반산업단지는 성동리 693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다. 조리금속, 목재 및 나무, 가구 및 기타제조업 등 31개 사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 360명이 근무하고 있다.

탄현면 축현리 1003번지 일원의 축현일반산업단지는 2007~2014년 조성되어 식료품 제조업 외 14종의 업체 39개사에서 40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 산업단지는 조립금속, 기계장비,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전기기계 및



범흥1리 이주단지



현재 물류창고 개발예정지. 개인사업자가 농지를 매입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흥1리 1993년 이주당시 지어진 원주민들의 주택



금승리의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 산업단지



드라마 스튜디오 지역과 이동 시간(자료: 구글)

전기변환 장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전자 및 정보, 정밀기계·신 공정, 기타제조업, 플라스틱, 기타비금속 광물, 1차 비철금속,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체 47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402명이 일하고 있다.

서울에서 파주로 자유로를 따라 가다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성동IC 근접 마을인 범흥리와 성동리의 급격한 변화를 제외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대동리, 오금리, 만우리 또한 현재는 변화의 바람에 놓여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성동리와의 연결선상으로 놓여 있는 음식점들과 크고 작은 드라마 스튜디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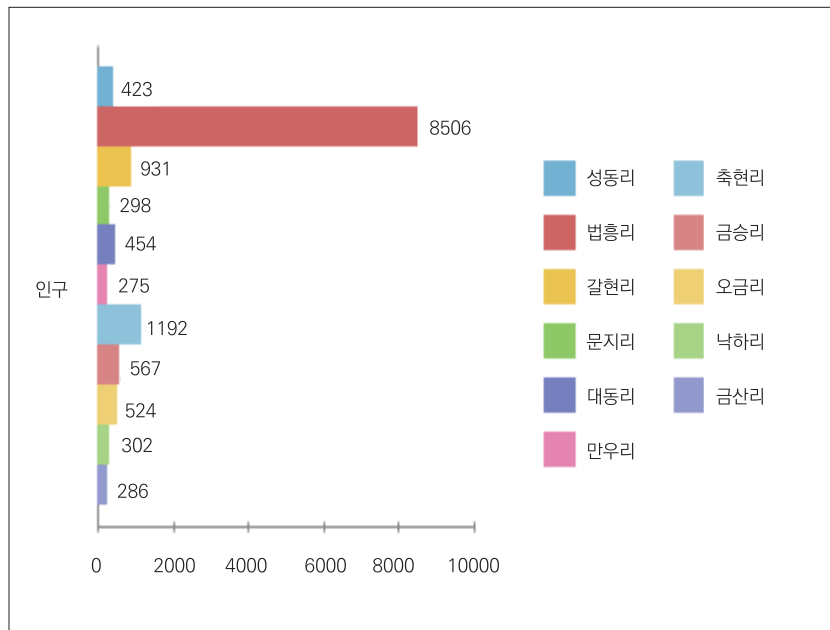
미니시리즈 같은 드라마의 경우 방송사에서 후반작업인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방송사의 제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 간의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연기자들의 일정과 이동 거리 또한 근접성의 관점에서 고려하다 보면 제작사, 연출자, 배우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지상파 방송시설이 있는 여의도, 목동, 고양시 일산구 등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 중 파주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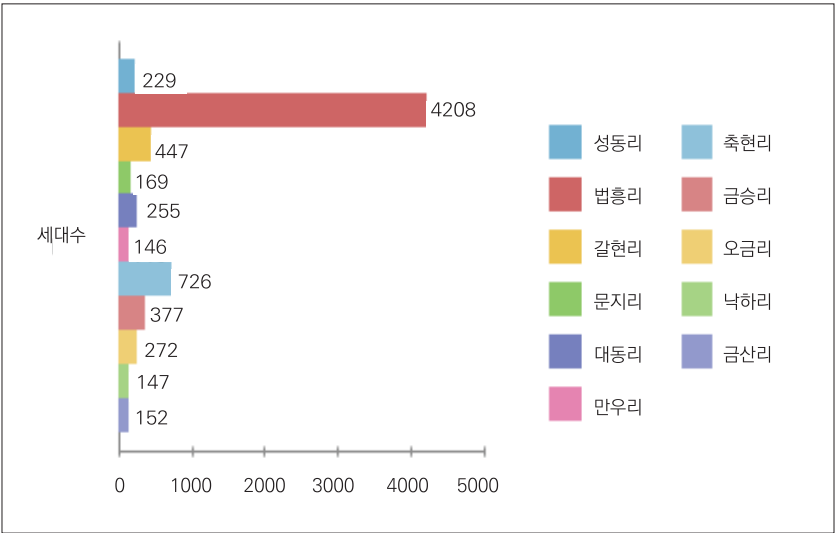
드라마는 제작비가 정해져 있어서 멀리 있는 스튜디오를 사용할 경우, 스태프들의 식비, 숙박비가 들 어가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사실 스튜디오들이 파주에 밀집해서 생겨나는 큰 이 유이기도 하다.

현재 탄현면은 남녀를 합한 총인구 13,758명이 거주하고 있다.(2019년 7월 기준) 이는 파주시 전체 인구 453,942명의 3.03%를 차지하는 인구이다. 탄현면 전체 거주인구의 61.82%는 범흥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아파트, 이주단지, 빌라 등이 범흥리에 밀집되어 있는 원인 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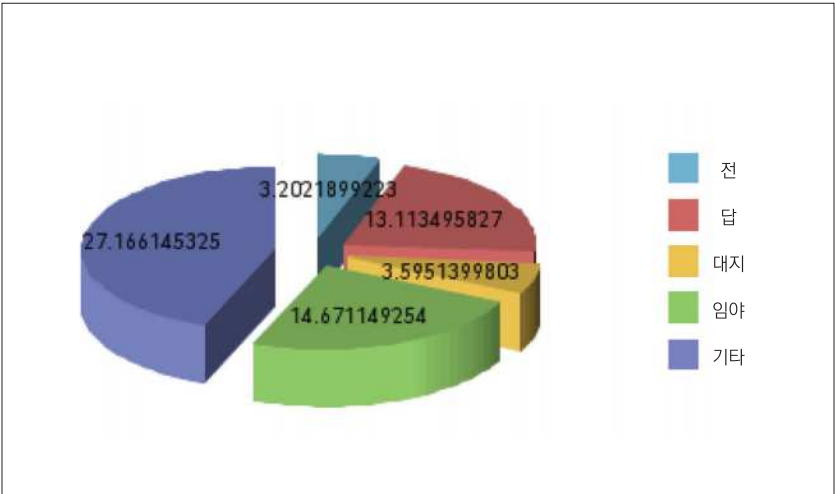


대동리 식당과 공방·펜션지역





토지지목별 현황



세대수 또한 파주시 190,682세대 중 7,128세대 3.78%가 탄현면에 거주 중이며, 그중 59%에 달하는 세대수가 법흥리에 세대수를 두고 있다. 면소재지가 위치해 있는 축현리가 인구수와 세대수에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세대수는 법흥리의 17.2%, 인구수는 14.01%에 불과하다. 이는 탄현면의 다른 지역 낙하리, 만우리 등 비무장 지대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과의 발전적인 면에서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탄현의 면적은 약 61.748km²이며 전체 면적의 23.7%가 임야, 21.2%가 논에 해당한다(2018. 12. 31). 특히 활용이 불가능한 군사보호지역 등 기타 토지지목 비율이 파주시 전체의 17.541%에 해당하는 27.166km²로 탄현면 전체 토지의 43.99%를 차지하는 것도 큰 특징이라 하겠다.

3. 탄현면 통일동산 관광특구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 예술마을 등으로 유명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 3.01km²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전국에는 31개의 관광특구가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동두천, 평택, 송탄, 고양, 수원 화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정되었다.

파주시는 2015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17년 경기도에 지정특구 신청을 했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은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서울시는 5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18년 탄현면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1만 4,576명으로 집계됐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통일동산 관광특구에는 예술인 거주·문화 공간인 헤이리 예술마을, 대형 쇼핑공간인 파주프리미엄 아울렛, 안보 관광지인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이 있어 예술과 쇼핑, 전쟁과 평화 체험과 관계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평화통일시대 특색 있는 축제·행사와 주변 연계 관광코스 개발, 동서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은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따라 이 일대를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

1) 헤이리 예술마을

미술가,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여 명의 예술·문화인들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민간 예술인들의 노력과 열정을 모아 탄현면 49만 5,868㎡ 규모의 땅에 만들어가고 있는 국내 최대 공동체 예술마을이다. 파주지역에서 전해져오는 농요 ‘헤이리 소리’에서 ‘헤이리’라는 마을 이름이 만들어졌다. 마을 안에는 갤러리,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소극장, 카페, 레스토랑 등 예술인들의 창작·주거 공간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헤이리. 논을 친환경 갈대 습지로 복원 수많은 곤충과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



지금도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헤이리 마을



헤이리 마을 부지

함께 공존한다. 헤이리는 조성 과정부터 자연 친화적인 생태마을을 설계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어울리는 삶을 지향, 곡선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길과 냇물과 늪을 그대로 살려 냈다. 그래서 산과 구릉, 늪, 개천 등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마을을 만들었다.

헤이리 마을은 건축설계지침을 두어 건물 높이, 간판 등의 제한을 두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 울타리를 없애고 건물의 페인트칠을 금지해 자연미를 최대한 살렸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원, 광장 등 공유면적도 45%를 정해 놓았다. 또 헤이리 마을은 문화예술마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와 예술 관련 종사자 또는 문화 비즈니스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착을 허용한다.

2009년 12월 인사동, 대학로에 이어 국내 세 번째,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호흡하는 생태마을, 문화예술로 대중과 소통하는 마을,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 건축시설 및 입주인 현황(2018. 10. 19 기준)

회원수: 350명					
미술인	건축가	언론방송인	음악가	영화인	문화예술기획
80	16	18	30	27	34
전통문화	문인/학술	박물관	갤러리	사업가	기타
6	43	19	3	10	33

건축현황: 220동 완료시 394동							
박물관	갤러리	전시관	공연장	문화관	공방	카페	스튜디오
48	56	27	4	2	22	60	37
편의시설	창고,주차장	주거	상업시설	사무실	공실	게스트하우스	
3	24	90	40	29	39	3	

2019년 8월 21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는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산을 편하고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정상부까지 최대 경사로 8% 미만의 목재 데크를 연결한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無障礙) 숲길 ‘헤이리 노을숲길’을 준공하기도 했다. 길이는 1km에 달한다. 헤이리 마을은 2019년 현재까지 완성을 향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

2) 프로방스 마을

각종 상업시설들이 모여 만들어진 문화·상업단지로 탄현면 성동리에 있다. 1997년 파스타를 파는 이탈리아 식당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관광지가 임진각밖에 없었던 파주시에서 헤이리 예술마을과 함께 주목받으며 점차 이곳은 ‘식당’보다는 ‘쇼핑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본격적으로 프랑스 남부 마을 콘셉트의 상업지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쇼핑 시설, 레스토랑, 카페, 포토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연인 및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한다. 매년 11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이곳에 마련된 별빛축제장에서 별빛축제가 열린다.



프로방스 마을 1



프로방스 마을 2



프로방스 마을 3

3)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서울의 젖줄인 한강과 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해발 118m의 오두산 정상에 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나오는 오두산성터(사적 제351호)가 남아 있는 곳으로 고대로부터의 군사적 요충지이다. 지금은 서부전선의 최북단으로 남과 북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2km의 짧은 거리를 반세기가 넘도록 왕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남북분단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자유로 변에 자리하고 있다. 북한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실향민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곳이다.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립한리(대한민국 이북 5도 행정구역상 경기도 개풍군 임한면 정곶리) 선전마을 일대를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북한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직선거리 상 서울시계까지 약 24km, 서울시청까지 약 38km에 불과하다. 주택들과 김일성 사적탑, 탈곡장, 소학교 등의 시설물과 경작지가 있으며, 군 초소도 보인다. 맑은 날에는 개성시 북부의 송악산도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평화시(市)구상’에 따라 1992년 9월에 개관하였으며,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고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장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장소이자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국제적인 통일안보 관광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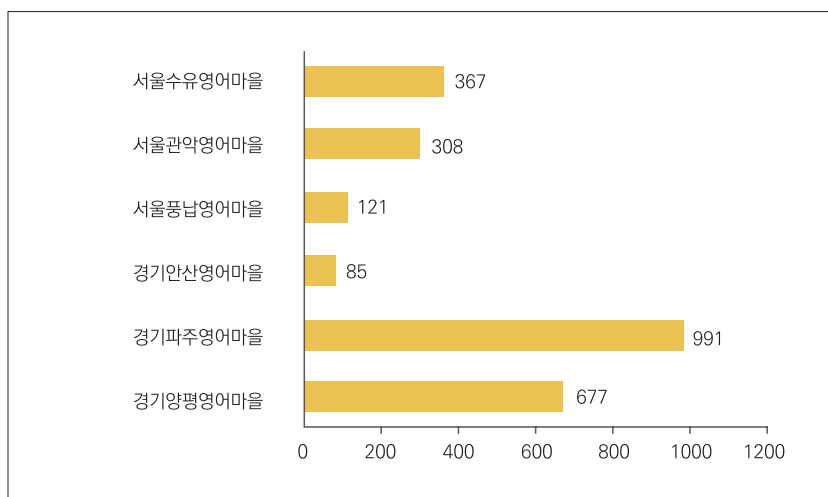


오두산 통일전망대

4) 경기미래교육캠퍼스(구 파주 영어마을)

2004년 안산 영어마을 이후 지자체 곳곳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정확한 계획 없이 생기기 시작한 영어 마을이 전국 28개에 이른다. 이 중 11개가 폐쇄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발길이 끊겨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영어마을 건립비(단위: 억원)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연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 아래 안산 영어마을 설립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영어 마을을 짓기 시작했다. 그중 파주 영어마을 건립에만 991억원이 투입되었다. 내부에 과학극장, 방송 스튜디오, 어린이도서관, 테마전시 체험관, 우체국, 은행 등 공공·문화시설 40개 건물이 들어섰다. 하지만 운영난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어마을을 지으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출신으로 학사 이상 학위와 교육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일부 영어마을에서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또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영어마을을 경쟁적으로 짓다 보니 교육철학이 부재했고, 기숙형 운영으로 물리적 시간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캠프는 2008년 41억원, 2009년 63억원, 2010년 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파주영어마을은 적자난에 시달리자 사업을 다각화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4년 한류트레이닝센터를 개설 기숙사를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한류 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머무는 숙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요가강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도 만들었다.

파주 영어마을은 2017년 경기체인지업캠퍼스로, 2019년 8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다시 이름을 바꾸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5) 축구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파주NFC)

남녀 축구대표팀 등 각급 국가대표팀의 선수 훈련을 위해 설립된 전용 기관으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368 파주트레이닝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1999년 당시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설치 부지를 물색하던 대한축구협회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시설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파주시 탄현면에 축구 국가대표 훈련장인 파주NFC(National Football Center)를 설치하기로 합의했



파주NFC 전경

다. 이에 시는 지난 2000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NFC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탄현면 성동리 685번지 일대 11만 3,753㎡를 무상 제공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관 건물에 동시에 161명이 투숙할 수 있는 객실을 갖췄고, 잔디구장 7개를 보유한 파주NFC에는 인공폭포, 미니정원, 원두막 등 쉼터도 들어섰다. 7개의 잔디구장 이름은 청룡, 백호, 화랑, 충무, 새싹, 청운, 통일로 정했다. 잔디구장을 만들고 웨이트 트레이닝장과 물리치료실, 사우나, 라커룸뿐 아니라 대규모 회의실도 마련해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경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했다. 2000년 12월 5일에 착공하여 2001년 11월 9일 완공되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06년 시설물 감정평가에 따라 153억원 상당의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18년 7월 23일까지 12년간 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했다. 무상사용 기간 만료를 앞둔 2018년 7월에 감정평가 이후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60억원 상당의 2차 기부채납으로 2024년 1월 23일까지 5년 6개월의 추가 무상사용 기간을 획득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2001년 건립된 파주NFC가 각급 대표팀 훈련뿐 아니라 지도자와 심판 교육 장소로 빈번히 이용되면서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제2의 NFC 건립을 추진해왔다. 최초 유치 신청에 총 24개 지자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새롭게 지어지는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00억원(추산)을 들여 건립 용지 33만㎡ 규모로 지어진다. 이곳에는 관중 1,000명을 수용하는 소규모 경기장과 천연·인조잔디 구장(12면), 풋살구장(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 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2019년 5월 16일 대한 축구협회는 최종 협상대상 지자체로 천안시를 선정했으며, 60일의 협상 끝에 8월에 충남 천안을 ‘제2 축구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로 불리는 축구종합센터 선정지역으로 확정지었다.

현재 파주시는 파주NFC의 반환 후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6) 고려통일대전

고려시대 충신들의 위패를 모시고 유물을 전시하는 ‘고려통일대전’이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에 2007년 8월 30일 준공되었다.

고려통일대전 건립은 고려시대 때 성(姓)을 받은 120여 개 문종으로 구성된 고려역사선양회에 의해 1995년부터 사업을 추진되었다. 완공 즉시 파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고려통일대전은 토지공사의 부지조성 비용 85억원, 도비 35억여원, 선양회 부담금 등을 포함해 모두 약 160억원이 투입됐다.



고려통일대전 전경

규모가 4만 1,200㎡로 왕들의 위패를 모신 정전, 충신과 공신의 위패를 모신 충·공신각, 능지기가 거처하는 장소인 수복방, 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전에는 고려 태조 왕건 등 역대 제왕과 고려를 빛낸 문무제현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매년 10월 대제가 열린다.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으나 1년에 한번 대제가 열리는 날 개방된다. 전시관에서는 고려 역대 인물들의 문집, 유명 서화, 금석문 탁본 등 유물과 각 문종의 족보 등을 볼 수 있다.

7) 장준하 공원

장준하(1918~1975)는 일제 치하에서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중국 전선에 배치되었다가 탈출한 후 김준엽의 도움으로 광복군에 들어가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이다. 당시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돌베개』인데, '나라를 빼앗긴 우리 못난 조상에 대한 한스러움과 다시는 후손에게 욕된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단호한 결의 때문'에 책을 썼다고 적고 있다. 광복 이후에는 김구 선생의 비서가 되고 4.19의 도화선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상계』를 창간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성사에 한 획을 그었다. 『사상계』는 독재정



제44주기 추모식(2019. 8. 17)



돌베개 형태의 장준하선생 묘



추모식의 화환

권과 맞서 싸우던 잡지였으며, 한때 최고 발행부수가 10만 부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사상계』는 군사독재 정권의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을 실었다는 이유로 강제 폐간을 당했다. 이런 와중에 장준하는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추락사한 모습으로 발견된 이후, 장준하는 37년 만에 파주 나사렛 천주교 공동묘지에서 통일동산으로 이장됐다. 광복군 독립투사, 월간 『사상계』를 창간한 언론인,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선 반독재 민주투사였던 장준하를 기리는 추모공원인 ‘장준하공원’이 2012년 8월 17일 파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에 조성되었다. 2018년 7월에는 부인 김희숙씨가 남편의 곁에 함께 묻혔다. 그는 1967년 제7대 총선 때 옥중출마한 남편을 대신해 유세연설에 나서서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8) CJ ENM 콘텐츠 월드

2023년까지 CJ ENM은 ‘경기체인지업캠퍼스’ 앞에 방송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방송콘텐츠 플랫폼인, 가치 ‘CJ ENM 콘텐츠 월드’를 구축한다. CJ ENM과 파주시는 2019년 6월 12일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CJ ENM 콘텐츠 월드’의 규모는 축구장 32개 크



‘CJ ENM 콘텐츠 월드’ 위치도

기 규모로 21만 3,000㎡(약 6만 4천평) 아시아 최대 규모다.

콘텐츠월드는 4개 존으로 계획되어있다. 소통을 위한 공간 ‘웰컴 플라자 존’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광장, 방문객 편의시설, 전시·체험 스튜디오, 주차장이 들어선다. ‘드라마 빌리지 존’은 참여형 제작 스튜디오 공간이다. 지상 3층 규모의 스튜디오 4개와 휴게공간, 오픈형 스튜디오로 구성된다. ‘테마 로드 존’은 현대극 오픈세트가 들어선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스튜디오, 상설 스튜디오, 시각적 특수효과(VFX) 스튜디오, 특수효과(SFX) 스튜디오, 방문객 편의시설도 갖춰진다. ‘원더풀 포레스트 존’은 숲속에서 즐기는 테마형 오픈세트다. 사극 오픈세트, 시대극 오픈세트, K팝 오픈세트, 방문객 편의시설로 꾸며진다. 이밖에도 상생 업무공간을 마련해 유망한 중소 콘텐츠 제작사 및 스타트업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콘텐츠월드는 관광특구지역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종교와 시설

김미애(구리환경교육센터)

1. 검단사

고려시대에도 파주는 혜음령을 통해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중국 사신의 왕래처였다. 이에 파주에는 예로부터 수많은 사찰이 들어섰다. 감악산에만 삼천사(三千寺)가 있었다고 하며, 『파주읍지』, 『교하읍지』, 『불교 사찰전서』 등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도 수십여 사찰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조선시대에 폐사되고, 현재는 해방 후나 6.25전쟁 이후에 창건된 사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통 사찰은 보광사·검단사·용암사·용상사 4개이다. 조계종 소속 사찰은 10여 개, 태고종 소속 사찰은 30여 개이며, 나머지는 기타 종단 소속이거나 무종단 사설 사암들이다. 파주의 대찰인 보광사를 제외하면 조계종 사찰은 빈약하고, 이 지역 교세는 태고종이 우세하다.¹⁾

파주는 개성과 서울의 경유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왕실 능원과 산묘들이 산재해 있으며, 여말 선조 이래 사대부들의 향촌 거주지로 각광받았고, 이에 선산이 도처에 자리 잡기도 했다. 이러한 입지 때문에 파주에는 각종 원찰(願刹)이나 분암(墳庵)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탄현면에는 조선시대 인조와 인열왕후의 능인 장릉의 원찰인 검단사가 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92-33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鰲頭山)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진감 혜소가 창건한 사찰이다.

검단사(黔丹寺)는 847년(신라 문성왕 9) 진감 혜소(眞鑑慧昭, 774~850)가 창건한 사찰이며 조선시대에는 인조와 인열왕후(仁烈王后)의 능인 장릉(長陵)의 원찰이었다. 처음에는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있었지만, 영조 때인 1731년 장릉을 탄현면 갈현리로 옮길 때, 이 사찰도 현재의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으로 옮겨왔다. 검단사는 장릉에 제향을 지낼 때 절에서 두부를 만들어 한때 두구사(豆拘寺)라고도 했다. 근대에 들어와 1906년 김정호(金正昊)가 절을 중수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전등사(傳燈寺)의 말사가 되었다. 1986년 천오(天悟)가 주지로 부임하여 법화전을 중건하였고, 2005년 해송(海松)이 절을 크게 중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검단사를 창건한 혜소는 얼굴색이 검어 '검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

1) 진철승, 「불교」, 『파주시지』 3 파주생활, 파주시, 2009, 477쪽



검단사 법화전



검단사 명부전



검단사 무량수전

데, 사찰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고도 하며 사찰이 소재한 오두산이 검은 편이어서 검단사라 했다고도 한다. 절의 유물로는 아미타불탱화, 신중탱화, 검단선사영정 등이 있다. 탱화는 19세기 말 작품이고, 검단선사영정은 조선 후기 때 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6월 보명스님에서 새로운 주지스님이 부임해 왔다.

2. 갈현교회

파주지역에는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원교회, 문산교회, 비저니아교회 등이 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갈현교회는 탄현면 갈현2리 418-5번지에 있다. 세워진지 112년이 된 교회다.

이 땅에 개신교가 정착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1816년 맥스웰과 홀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현 충청남도 서천군의 마량진에 정박, 당시 관원이던 조대복에게 영문 성경을 최초로 전하게 된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성경이다. 1866년 제너럴서먼호의 선장은 조선의 군인 이현익을 인질로 잡고 통상을 요구하며 총과 포를 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에 격분한 조선의 군인들이 배를 공격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다. 제너럴서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한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는 죽으면서 가지고 온 성경책을 조선사람 박춘권에게 전하게 된다. 이 사건은 선교사보다 복음이 이 땅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전 세계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선교의 역사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개신교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1884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상륜, 서경조 형제에 의해 초가집으로 지은 소래교회가 세워진다. 서상륜은 만주지역에서 최초로 한글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힘썼던 인물이고, 동생 서경조는 황해도 장연 땅 소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부하며 전도에 힘썼던 인물이다. 그 이후 1895년 한옥기와집 예배당을 건축하였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 선교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토착민들의 헌금으로 건축했던 한국 최초의 자생적 교회이자 한국의 뿌리가 되는 교회라 할 수 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오면서 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진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로, 의료선교사인 부인과 함께 고아원과 고아학교인 구세학당을 설립했고, 초대 성경번역위원장을 맡아 선교사와 외국인들을 위해 직접 영한사전, 한영사전, 그리고 한국어문법서 등을 만들고 출판했다. 또한 서울의 경신학교와 연희전문학교, 기독교서회를 설립하는 등 교육 사업에 매진했고, 1887년 조선 첫 개신교 교회인 새문안교회를 설립해 복음 전파에도 힘썼다. 1885년 4월 9일, 제물포에 입국

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또한 근대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배재학당을 세워 산수, 과학, 천문학, 지리, 그리고 야구와 축구, 정구 등 새로운 교육을 통해 서양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펼쳐 나갔지만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고자 군산으로 향하던 중 배가 침몰해 죽음으로 선교를 마감하게 된다.

장로교와 감리교파에 이어 1889년에는 침례교, 1891년에는 성공회, 1904년에는 안식교, 1907년에는 성결교, 그리고 1908년에는 구세군이 각기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개신교 전래 초기 파주지역은 주로 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담당하였다. 「조선예수교약사」 기록에 의하면 갈현교회는 1907년 언더우드가 파송한 최덕준에 의해 설립되었다.

1907년은 개신교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해거든요.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간 거예요. 구한말 때라고 하면 연안으로 배로 인한 교통이 더 발달했으니까 마포나루라든지... 갈현3리도 옛 지명이 '갯말'이에요. 어르신들 얘기가 조그만 포구가 있어서 강화도를 주로 왔다 갔다 했다가 마포에서 배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전파하고 간 것 아닐까요? 김포, 원당 쪽으로 하천이 있었던 하천가에도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많거든요.²⁾

1953년에 현 위치로 이전해 목조 건물의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며, 1980년에는 군부대화 협력하여 지금의 건물을 지었다. 1989년에는 장학회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2007년 11월 교회 창립100주년을 맞았다. 갈현교회의 신도 조직은 예배, 교육, 선교 등을 담당하는 제직회와 11개의 각기 다른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에 남녀 선교회 및 장학회 등이 있다.

우리교회는 1970년대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당시 김○○ 전도사가 갈현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나 봐요. 전도사가 그 쪽으로 넘어 가면서 교인들을 거의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197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지요. 교인들도 이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옮겨 갔던 분이 지금도 몇 가정은 갈현리에 살고 계신다고 해요. 기독교복음침례회는 금촌 쪽에 교회가 있어요. 갈현교회 신도들이 거의 다 떠나고 세 가정만 남아서 갈현교회를 지켰던 것이 지금까지 교회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교회의 명맥이 끊어질 뻔 했다가 세가정이 남아서 그래도 이어졌으니 갈현교회 100년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³⁾

2) 최성수 갈현교회 담임목사(1995년 부임)

3) 최성수 갈현교회 담임목사



갈현교회 100주년기념관 머릿돌



갈현교회 머릿돌



연세대 학생들이 언더우드 관련 성지순례 후 그린 갈현교회

갈현교회는 1994년 까지 이웃해 있는 포병대대 군인들이 주일예배에 참석을 했다.

1994년 이전까지는 군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지만 그 이후 교인들이 지원을 해서 교회가 생기면서 군인들의 갈현교회 예배 참석은 중단되었다.

처음 왔을 때 교회 안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 앞마당에 공중전화가 왜 필요할까 했더니 군인들이 나와서 집에 전화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전화가 다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 예배 보러 나와서 전화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전화를 설치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남자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겠죠. 성가대도 젊은 남자들이(군인) 하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병이나 장교들도 우리 교회 교우들 처녀들하고 결혼도 하고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정들이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주일날 젊은 청년들이 많았어요. 부대에서 30명 이상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점심을 해 주는 것도 교회입장에서는 큰 사역이었죠.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면 군 생활 할 때 우리 교회 나왔었다고 추억 삼아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 당시 먹을 것도 흔치 않고 다들 힘들었던 때니까 요즘이야 군대 밥이 괜찮다고 해도 예전에는 형편없었으니까 교회 와서 일종의 사제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이 1980년도에 지어졌는데, 군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지금은 오래돼서 없어졌는데 당시 육군 ○○대학에서 기증 이런 게 교회 건물 옆에 붙어 있었어요.⁴⁾

3. 참회와 속죄의 성당

18세기 후반 조선 사회에서는 문화와 사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의 남송에서 발생하여 조선 왕조에서 완성시킨 개신유학(改新儒學)인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비판이 움터 나오고 있었으며, 실학사상이 대두되었다. 실학자들은 성리학에 회의를 품고 이에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사상 체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조선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선왕조 조정에서는 해

4) 최성수 갈현교회 담임목사

마다 정기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 사신을 통해서 『천주실의』를 비롯한 한문 서학서(漢文西學書)들이 조선에 전래되었는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거의 150년 넘게 천주교 서적들을 읽고 그 내용을 검토해왔다. 18세기 후반 사회는 양반과 양인(良人), 그리고 노비와 같은 신분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을 당연시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결과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신분 제도가 급격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당대 많은 사람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바라고 있었으며, 그 평등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이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함을 주창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천주교 교리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 연구를 주도하는 지식인들은 정치적으로는 기호(畿湖) 남인(南人) 계통에 속하고, 학문 전통으로는 성호학파(星湖學派)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당시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의 학문을 이어받아 연구하던 권철신(權哲身, 1736~1801), 정약전(丁若銓, 1758~1816) 등 일단의 지식인들은 1777년에 이르러 서울 부근에 있는 주어사(走魚寺)에 모여 유교 경전을 강학(講學)하고 있었다. 주어사에서 강학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벽(李穡, 1754~1786)도 여기에 합류한다. 이벽은 천주교에 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얻고자 하였다. 마침 그때 이벽의 동료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이 부연사(赴燕使) 일원으로 중국 북경(北京)에 가게 되었다. 이벽은 곧 이승훈을 만나 북경에 가거든 선교사를 만나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 책들을 구입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이 부탁을 받은 이승훈은 북경에 간 후 선교사를 만나서 교리를 배우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세례를 받고 나서 천주교 책들과 성물을 가지고 1784년 봄에 귀국하였다.

이승훈은 가져온 서적의 일부를 이벽에게 넘겨주었다. 이벽은 몇 개월 동안 이 책들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승훈과 함께 친척과 친지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벽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 형제들을 찾아가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덕망이 높은 권일신(權日身, 1742~1792) 등을 입교시키는 한편, 김범우(金範禹, ?~1786)를 비롯한 중인(中人)들에게도 전교하였다. 1784년 9월(음력) 이승훈은 서울의 수표교 부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이벽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기에서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 마련된다.⁵⁾

천주교가 들어오던 조선사회는 성리학을 받들던 사회였다. 성리학 사상을 유지하는 것은 집권층의 주요 임무였다. 복음이 전파되던 당시는 성리학이 여러 방면에 도전을 받던 시기였다. 당시의 집권자들은 천주교가 성행하면 양반들이 존중하는 유교가 무너지고, 양반의 권위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당시의 집권층에서는 전통 가치를 보존하고 양반의 정치적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천주교

5) 조광, 『한국천주교회 총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참회와 속죄의 성당(왼쪽), 민족화해센터(오른쪽)



참회와 속죄의 성당 전경

를 박해하게 되었다. 1785년 을사추조, 1791년 신해박해,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 등을 거치면서 1886년 한불조약으로 공식적인 천주교 박해가 사라진 후부터 지금까지 240여 년을 이어오게 되었다.

탄현면 성동리에는 통일의 장, 화합과 평화의 장, 전통계승의 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2013년 건립된 성당이 있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이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 외관은 평안북도 신의주 진사동 성당의 옛 모습을 독일과 미국에서 구한 사진을 토대로 당시의 벽돌크기를 역으로 계산하여 설계하였으며, 외부는 함경남도 덕원의 베네딕도 수도원 대성당의 내부모습을 토대로 건립되었다. 센터는 평양외곽 서포에 있던 메리놀 본부의 모습을 기본으로 구성되었다.

천주교 평양교구 소속의 진사동 성당은 1922년 봄에 설립되어 1944년 5월에는 홍건항(洪健恒, 갈리스도) 신부가 8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광복 이후까지 사목하였으나, 1949년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 교회 재산이 몰수되고 12월 10일에는 홍 신부마저 행방불명되면서 신의주성당은 침묵의 성당이 되었다.

덕원 수도원 또한 1948년 9월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인민재판식 규탄을 받아야 했다. 그 와중에 덕원수도원을 북한 공산정권은 1948년 말 정치보위부에 수도원을 몰수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수도원을 침입, 안셀로 로머(덕원신학교 교장) 신부 등 독일인 신부 8명과 수사 22명, 한국인 김치호·김종수·김이식·최병권 신부 등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평양 인민 교화소를 비롯해 만포 인민교화소, 관문리 수용소, 옥사덕 수용소, 함흥 인민교화소 등에 수용됐다. 또 한국인 수사 26명과 신학생 73명 등 99명을 내쫓고 수도원과 신학교를 전격 몰수했다.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교회를 돌본 이재철·김봉식·이춘근 신부 등도 전쟁 직전 체포돼 피살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로써 22년간 함경도 일원에 복음의 씨



신의주 진사동 성당



평양 서포 메리놀 본부



덕원 성베네딕도 수도원

앗을 뿌린 덕원수도원은 완전히 폐쇄된다.

이렇듯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설립 당시부터 북쪽의 성당의 옛 모습을 설계에 반영해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염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남과 북을 아우르는 사회, 문화, 종교의 교류 역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와 보호수

김미애(구리환경교육센터)

1. 문화재

1)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323호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 제작연대: 조선전기
- 지정일자: 2001년 9월 21일
- 소재지: 방촌로 879번길 177-34

조선초기의 문신인 공효공(恭孝公) 박중손(1412~1466) 묘역 안에 세워진 2개의 장명등(長明燈)으로 이곳 묘역에는 박중손묘와 부인인 정경부인(貞敬夫人) 남평문씨(南平文氏)의 묘가 쌍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중손묘 앞의 장명등 하부는 대좌(臺座)와 화사(火舍)로 이루어져있고 상부는 옥개석으로 되어 있다. 등부(燈趺)인 대좌는 하대·중대·상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그 위에 화사부분이 조식되었다. 그리고 옥개석은 옥개(屋蓋)와 연주대(蓮珠帶) 및 연봉형(蓮峯形)의 위가 뾰족하고 불길이 타오르는 형상의 구슬 모양인 보주(寶珠)로 구성 되어 있다. 부인 묘 앞의 장명등은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관계로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개의 장명등 높이는 서로 비슷하나 박중손묘 앞의 것이 조금 더 둔중해 보이고 부인 묘 앞의 것은 세장한 모습을 하고 있어 마치 남녀를 구분하는 듯하다. 묘제(墓制)와 장명등 등의 석물(石物)은 조선초기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초기의 우수한 조성수법을 보여준다. 특히, 박중손묘 앞에 있는 장명등은 전후면과 달리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둥근 모양과 초승달 모양의 화창을 두어 일명 일월등(日月燈)이라 불리고 있다. 그 옆의 것은 보다 세장(細長)하고 화창을 모두 방형으로 만들어 박중손묘 앞의 장명등과 서로 비교된다. 이러한 특수한 수법과 형태의 장명 등은 매우 희귀한 예로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박중손의 본관은 밀양, 자는 경운(慶胤), 호는 묵재(默齋)로 1435년(세종 17)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집



박중손묘 장명등



남평문씨묘 장명등



박중손묘 장명등의 해 모양 화창



박중손묘 장명등의 초승달 모양 화창

현전에 들어갔다. 그 뒤 부수찬·지제교를 거쳐 사인·집의·지병조사·동부승지·도승지 등 여러 요직을 지냈으며, 특히 천문(天文)을 관찰함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사적 제203호 장릉

- 제작연대: 조선후기 영조 7년
- 지정일자: 1970년 5월 26일
- 소재지: 장릉로 90

장릉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릉이 총 3개가 있다. 추존왕인 원종의 무덤 '김포 장릉'과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의 '영월 장릉', 마지막으로 16대 왕인 인조의 '파주 장릉'이다.

파주 장릉(長陵)은 개방되지 않다가 2018년 9월부터 개방되면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되었다.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仁祖)와 왕비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의 합장릉으로 당초 문산읍 운천리 대덕골에 있었으나 1731년(영조 7) 석물 틈에 뱀들이 집을 짓고 극성을 부려 지금의 위치로 옮겨 합장하였다.



인조의 능인 파주 장릉

인조는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추존하여 원종(元宗)]의 맏아들로 능양군(綾陽君)에 봉해졌는데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인조는 27년의 재위기간 동안에 이괄의 난, 정묘호란(丁卯胡亂), 병자호란(丙子胡亂) 등 많은 일을 겪었는데 조선시대 가장 암울한 시기를 겪은 불운의 왕이기도 하다. 삼전도(三田渡)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하고 소현(昭顯), 봉림(鳳林) 두 아들을 인질로 보내는 치욕을 당하였다. 특히 정치적으로 당파간의 싸움이 격화되어 사회가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대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1649년(인조 27)에 승하하였다. 인열왕후 한씨는 1610년 혼인하여 효종(孝宗)과 소현세자(昭顯世子), 인평대군(麟坪大君), 용성대군(龍城大君)의 4형제를 낳았으며 42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사적 제351호 오두산성

- 제작연대: 삼국시대
- 지정일자: 1991년 8월 24일
- 소재지: 필승로 369

한강과 임진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인 오두산 정상을 중심으로 성곽으로 둘러 감싸며 축조된 길이 약 620m의 백제시대 테피식 산성이다. 산 정상에는 여기저기에 성벽용 석재가 흩어져 있으며,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수축된 것으로 보인다. 오두산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길목에 위치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주변으로 높은 산이 없어 서쪽으로는 북한 지역이, 남쪽으로는 김포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성은 현재 정상에 통일전망대가 들어서 있어 그 규모와 원형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한강과 인접해 있는 가파른 북쪽 절벽 위에 약 10여 미터의 성벽이 잔존하고 있다. 축조방법은 기초석 위에 지대석(5~15cm)을 들여쌓기 하여 내측은 전부 돌로만 채운 뒷채움석 형식이다. 큰 암반을 채석으로 이용하고 그 단면을 성벽으로 이용한 성곽 형태를 갖추고 있어 백제시대 성곽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다. 오두산성의 위치 및 산형 등 주변 지형여건으로 보아 ‘광개토대왕릉비’와 『삼국사기』와 『백제본기』 등 문헌기록에 나오는 백제 북변의 관미성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오두산성이 백제의 관미성이라 기록되어 있다.



오두산성 성벽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유영기

- 제작연대: 현대
- 지정일자: 1971년 9월 13일
- 소재지: 국원말길 168

궁시장 영집 유영기(楡集 劉永基)는 파주 장단 출생으로 수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가업을 이어받아 전통 화살 장인의 길을 걸어왔으며 1971년 9월 13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으로 지정되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활쏘기는 임금이 갖춰야 할 덕목이었으며, 선비들은 호연지기를 기르고 실력을 겨루며 풍류를 즐기는 방법이었다. 1614년(광해군 6) 편찬된 『지봉유설』에 일본인들이 중국의 창술, 일본의 조총, 통아(桶兒)라고 부르는 반으로 쪼갠 대나무관 위에 화살을 놓고 쏘는 특수한 방식의 활쏘기에 사용하는 편전을 사용한 조선의 활쏘기를 동아시아 삼국을 대표하는 무기 또는 무술로 꼽았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활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을 대표하는 무예로 인정받았다. 1598년 출간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 서적인 『무예제보』에는 “조선은 칼 쓰는 법과 창 쓰는 법은 전혀 배우지 않



궁시장 유영기(오른쪽)와 전수조교 유세현(왼쪽)(자료: 부천시)



영집 궁시박물관

고 오로지 활쏘기만 연습했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였다.

우리의 각공은 탄력이 좋아 멀리 날아가고 파괴력도 좋다. 대나무와 구지뽕나무, 물소 뿔과 쇠심줄이 어우러져 완성된다. 화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재료 또한 구하기 쉽지 않다. 지금은 양궁이 보급되고 카본 화살이 등장하면서 기계로 찍어내는 대량생산을 수작업으로 따라 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기 궁시장은 파주에 위치한 영집궁시박물관 설립자이자 4대째 가업을 잇는 장인으로, 현재 6대째 후손들까지 업을 이어오고 있다.

2) 경기도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제295호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 제작연대: 1854년
- 지정일자: 2014년 8월 29일
- 소재지: 필승로 292-33

검단사 아미타불회도는 가로 172cm, 세로 118cm로 가로 화면에 맞게 주존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옆으로 넓게 배치되어 있다. 옆으로 배치된 권속 사이로 주목되는 표현은 여래가 앉아 있는 불단이다. 이 불화의 주존인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왼손은 배 부분에 올려놓은 설법인을 하고 연화



검단사 아미타불회도(자료: 경기g뉴스)

대좌에 앉아 있다. 아미타불의 주변에는 6위(位)의 보살과 6명의 제자, 그리고 사천왕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보살 중 준명이 확인되는 보살은 흰 두건을 쓴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고 손에 정병을 들고 있는 관음 보살과 마찬가지로 정병이 표현된 ‘대세지보살’뿐이다. 제자 역시 존상 표현과 배치법에 따라 존명을 알 수 있는 이는 여래 좌우에 있는 노비구 형상의 가섭존자와 젊은 승려인 아난존자뿐이다.

아미타불을 비롯하여 그 외 보살과 제자의 표현을 보면, 타원형의 얼굴에 허리가 긴 세장한 신체로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시기와 작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8세기 말~19세기 초에 활동한 경기 화승들이 구사했던 화풍에 연원을 두고 있다. 색채는 짙은 홍색을 주로 사용하면서 녹색, 청색, 백색 등을 이용해 색의 변화를 주었다. 또 채도가 높은 청색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코발트계의 색은 특히 19세기 후 반 불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아미타불회도에서 보이는 가로축 중심의 화면, 주존을 중심으로 횡으로 배치되는 구도, 18세기 후반의 경기화승의 화풍의 계승, 과도하게 크게 묘사된 불단 등은 19세기 전반 경기도에서 제작된 후불도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8~19세기 불교화풍이 잘 표현된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는 당시 상당한 활동을 보여줬던 수화승 ‘찬종’, ‘해운일환’, ‘상훈’ 등 7인의 화승이 참여한 작품으로 19세기 후반에 유행한 청색이 사용되는 등 경기화풍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훈’은 조정에서 실시하는 단청 작업에 참여한 바 있어 18세기 말 대표적 화승의 작품성을 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 제33호 금산리 민요

- 제작연대: 근대
- 지정일자: 2000년 8월 21일
- 소재지: 새오리로 286번길

파주민요로 통칭하는 파주 금산리 민요는 금산리에서 집단으로 전수된 파주지역 민요를 모은 것이다. 교통수단이 육로와 해상뿐이던 시절, 한강과 황해가 맞닿는 길목에 위치한 파주는 남과 북의 예인들이 교류를 위해 오갈 때 한 번쯤 멈춰 쉬어 가야 하는 곳이었다.

파주 금산리 민요는 대부분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불리며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요다. 논농사 소리에 는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이 있고 상부소리에는 ‘운상소리’, ‘회방아소리’ 등이



금산리 민요전수관

있다.¹⁾ 이 마을에서는 다양한 농사소리가 전해지고 있으나, 주로 논농사 소리를 중심으로 불리는데, 간혹 황해도 소리인 자진난봉가나 경기민요 오돌독(닐니리소리)이 섞여 불리기도 한다. 특히 이 마을에서는 한두 사람의 선가자(先歌者)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선소리꾼이 특징에 따라 모내기소리, 논매기소리, 상여소리, 달구소리 등 메기는 소리를 분담하고 있다. 소리 중간에 경기와 이북, 남부 지방 등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토리(각 지방의 사투리 같은 지역 특색)가 흘러나온다.

무형문화재 제18호 옥석장 김영희

- 지정일자: 2005년 2월 7일
- 소재지: 헤이리마을길 48-38

옥장(장신구)이란, 여러 종류의 옥석류와 보패류를 가공하여 왕실의 기물류와 남녀 장식류를 금·은 세공하여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옥장(玉匠) 김영희 선생은 1970년 4월 백옥사 김재환 선생 문하생으로

1)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위음, 「파주금산리민요」, 『경기도 무형문화재총람』, 경기도, 2017

입문하여 기술을 사사하였다. 1988년 공방 ‘예지방’을 설립하고,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대상,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전국공예품대전 산업자원부 장관상 등 국전에서의 많은 수상을 통해 그 기술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신지식인(전통공예 부문), 대한민국 옥석패물가공 기능전승자로 선정되었고, 2005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남북유엔 동시 가입 기념 백옥 모란문 향합(유엔 한국관 소장) 제작, 영국여왕 한국방문기념 순종황후화관 제작(영국왕실 소장), 광복 60주년 국립고궁박물관 개관기념 궁중장신구 복제전시(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등 국내외로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하면서 국립고궁박물관, 태릉 조선왕릉전시관, 경운박물관, 인천국제공항 한국문화박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청 등과 함께 약 100여 점 이상의 많은 유물의 복원, 복제사업을 함께 하면서 대중에 전통옥석공예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2014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벽봉 한국장신구박물관’을 개관, 대중에게 더욱 접근하여 발전된 우리 전통왕실공예문화를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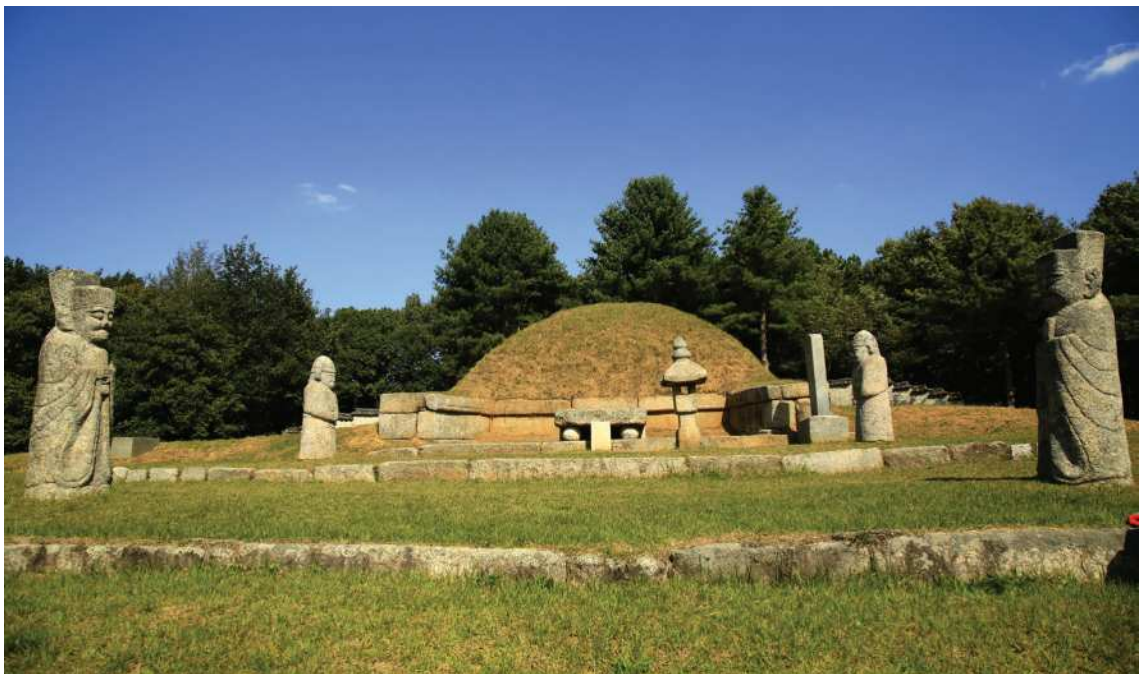
벽봉 김영희(자료: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엮음,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 경기도, 2017)

기념물 제34호 황희선생묘

- 제작연대: 조선전기 문종 2년
- 지정일자: 1976년 8월 27일
- 소재지: 정승로 88번길 23-67

조선초기의 명재상이며 청백리의 표상인 방촌 황희(尙村 黃喜, 1363~1452) 선생의 묘이다. 묘역은 3단으로 넓게 조성되었고, 봉분 역시 규모가 크다. 봉분의 구조는 다른 묘의 형태와는 달리 전면을 ㄷ자 모양으로 화강암 장대석을 이용하여 전방을 향해 3단의 호석(護石)을 쌓아 봉분과 연결시킨 특이한 구조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상석·향로석이 밀착되어 있으며 그 정면에는 4개의 화창이 투각된 장명등이 있다. 봉분 좌측에 묘갈이 위치하며 그 아래로 동자상과 문인석이 각각 1쌍씩 설치되어 있다. 묘역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원모재 앞 언덕에 신도비가 있는데 연산군 11년(1505)에 세워졌으며 신숙주가 짓고 안침이 썼다. 비문은 마모가 심해 판독이 불가능하며 옆에 1945년에 다시 세운 신도비가 있고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황희는 조선전기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 초명은 수로



황희선생묘

(壽老), 자(字)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尙村)이다. 현명함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세종대왕의 가장 신임 받는 재상의 한사람으로서 세종대왕 치세기간 중 역대 영의정 중 최장수인 18년간 영의정에 재임하였다.

기념물 제139호 정연묘

- 제작연대: 조선전기 세종 26년
- 지정일자: 1993년 6월 3일
- 소재지: 탄현면 범흥리 산148

조선전기의 문신인 송곡(松谷) 정연(1389~1444) 선생의 묘이다.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중심(仲深), 호는 송곡(松谷), 아버지는 홍(洪)이며, 안평대군 용(璲)의 장인이다. 1405년(태종 5) 생원시에 합격하고 관직에 있던 중 당시 영의정 하륜의 비행을 탄핵한 일로 문책을 받았으나 속죄되어 풀려났다. 이후 정랑(正郎)을 거쳐 1420년(세종 2)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승진되었는데, 상왕인 태종이 철원에 가려는 것을 간하다가 유배되기도 하였다.

1430년(세종 12) 천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냈으며 세종 24년에는 사은사 겸 주문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1444년(세종 26)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특히 사헌부의 관직을 여러 차례 맡으면서 바른 말을 잘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정연묘

정연 묘역은 크게 2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단양우씨(丹陽禹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의 형태는 하단 전면과 좌·우면에 장대석으로 보호석을 둘렀는데 방형에 가까운 장방원형분이다. 봉분 앞에는 화관석(花冠石) 형태의 묘비 2기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좌측이 정연의 묘비로 1444년(세종 26)에 건립된 것이고 우측이 부인의 것으로 1445년(세종 27)에 건립된 것이다. 묘비 앞에는 상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그 앞으로 장대석을 이용한 계단석이 놓여 있다. 묘역 전방에는 좌우에 문인석 2쌍이 배열되어 있다.²⁾

문화재자료 제144호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제작연대: 미상
- 지정일자: 2009년 2월 9일
- 소재지: 필승로 292-33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한 검단사(黔丹寺)의 법당인 법화전에 모셔져 있다.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이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비교적 작은 크기로 고개를 약간 숙인 정삼각형 꼴의 둔중한 모습이다. 살찐 얼굴에 늘어진 귀, 짧은 목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화불(化佛)이 있는 높은 보관을 쓰고서 두 손으로 정병을 감싸든 채 결가부좌하고 있다. 머리카락은 귀를 덮고 양 어깨에 붙어 있는 느낌이 들며, 둥근 어깨를 한 품만한 신체에 법의를 걸치고 있다. 의습선은 왼쪽 어깨에 단계적으로 중첩된 직선을 보이고 있고 양쪽 팔의 안쪽에 접힌 자락은 비교적 부드러운 곡선이며, 손목에서 살짝 젖혀져서 뒤쪽으로 넘어간 자락은 2개의 계단식 주름을 형성하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 덮인 가사는 그 끝이 꽃모양처럼 둥글게 조각되었고, 왼쪽 어깨를 덮은 발자락은 뒤로 넘어가서 긴 삼각형 꼴로 드리워져 있다. 양쪽 다리의 주름은 결가부좌 한목 부분에서 부채꼴로 벌어졌는데,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왼쪽 어깨에 꽃모양 같은 가사표현이나 다리 사이의 곡선형 부채꼴 주름 모양은 18세기 초반에 제작된 불상에서 확인 되는 제작기법이다. 또한 가슴에는 군의(紵衣)의 자락을 묶어서 접은 주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 대각선으로 조각되었는데, 이러한 표현 역시 18세기 불보살상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정병을 따로 조각해서 두 손에 끼웠는데, 이는 15세기 이후에 제작된 불화나 판화에서 보이는 주자형 정병이다. 비록 검단사 주불전에 봉안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임을 알려주는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얼굴과 의습선에 부드러운 감이 남아 있고 대각선형

2) 자료: 문화재청: 파주시청: 경기문화포털: 경기도 『경기도문화재총람 도지정면 2』, 2017



검단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군의 표현을 볼 때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후반 조각양식을 연구하는 데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³⁾

문화재자료 제172호 검단사 검단조사진영

- 제작연대: 조선후기
- 지정일자: 2014년 5월 9일
- 소재지: 필승로 292-33

검단조사는 파주 검단산 자락에 검단사를 창건한 인물로 진감국사 혜소(眞鑑國師 慧昭, 774~850)의 검은 얼굴에서 비롯된 또 다른 별칭이다. 검단사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 경기 교하면에 “검단산에 검단사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익

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李瀼,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全集)』의 「양락당팔경기(兩樂堂八景記)」에서는 검단사의 새벽 종소리를 검단효종(黔丹曉鍾)이라 할 정도로 조선시대 교하의 이름난 사찰이었다.

진영의 화면 크기는 가로 49.7cm, 세로 64.6cm이며 바탕천은 질 좋은 비단을 사용하였다. 진영에 명문이 없어 제작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풍으로 보아 조선 후기인 19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의 각 요소를 살펴보면, 화면 왼쪽에는 진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적은 ‘검단사 조사(黔丹寺 祖師)’라는 진영의 제목이 적혀 있다.



검단조사진영

3) 파주시 지정문화재

향토유적 제19호 황정옥 묘 및 신도

- 제작연대: 조선시대
- 지정일자: 2002년 7월 29일
- 소재지: 정승로 12

조선중기 문신으로 대제학을 역임한 황정옥(黃廷彧, 1532. 5. 20~1607. 10. 4)의 묘 및 신도비이다. 본관은 장수(長水), 영의정 황희(黃喜)의 후손으로 증조부는 방답진첨절제사 황섬(黃蟾), 조지서별제 황기준(黃起峻), 호분위부호군 황열(黃悅), 어머니는 허옹(許壘)의 딸 양천허씨, 배위는 양성현령 조전(趙詮)의 딸 순창조씨이다.

1552년(명종 7)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61년 호조·예조의 좌랑을 역임하고 해미현감으로 나아갔으며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 성균관직강에 오르고 1565년 헌납 겸 지제교와 부수찬을 거쳐 지평을 지냈다. 1584년 주청사로 명에 가서 여러 왕대에 걸쳐 명나라 문헌에 태조 이성계의 부친이 이인임(李仁任)으로 잘못 기재된 문제, 즉 ‘종계변무(宗系辨誣)’ 문제를 해결하고



황정옥 신도비



황정옥 묘역(제일 위쪽 상단이 황정옥 묘. 가운데가 황정옥의 아들 황혁 묘)

돌아와 그 공으로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이어 호조판서로 승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나자 호소사가 되어 왕자 순화군(順和君)을 배종하여 관동으로 피신하였는데 이곳에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로부터 항복 권유문을 쓰도록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다. 하지만 두 왕자를 죽인다는 위협에 아들인 황혁(黃赫)이 대신 썼다. 이 항복 권유문 문제는 동인과 서인 간의 정치쟁점이 되었으며 이후 정권을 장악한 동인의 공격을 받아 길주에 유배되고 말았다. 1579년 왕의 특명으로 석방되었으나 복관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묘역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신도비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수부가 매우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비문이 마모되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⁴⁾

향토유적 제1호 격쟁문서

- 제작연대: 조선시대
- 지정일자: 2006년 4월 20일
- 소재지: 헤이리마을길 59-63 (현재 안동 국학진흥원 보관)

조선시대 격쟁의 처리과정을 기록한 문서 16종이다. ‘격쟁’이란 조선시대 일반 백성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거나 임금이 행차할 때에 징이나 팽과리를 치며 역올한 사연을 호소하는 것이다. 초기에 있었던 신문고에 대신하여 후기에 유행한 민원 수단이었다. 격쟁을 가장 많이 한 왕은 정조이다. 동시에 정조는 격쟁 제도를 최초로 만든 왕이기도 하다. 정조 재위기간 24년 동안 능행을 70회 정도를 하였으며, 능행길에서 약 4,4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격쟁문서(자료: 파주시)

1781년(정조 5) 고양에 있는 박이중(朴履中)의 선산에 서울에 사는 박종묵(朴宗默)이 몰래 투장(偷葬)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왕에게 직접 격쟁(擊錚)을 했는데, 이 문서는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경기감영(京畿監營), 교하군(交河郡), 고양군(高陽郡) 등을 거치면서 처리된 과정을 기록한 16건의 점련된 문서이다. 본 격쟁사건은 1781년 윤5월 초순 안동에 사는 박이중이 밖으로 거동하였던 임금에게 격쟁을 하였고 이에 박이중은 형조로 끌려가 추고를 받은 후 그 내용이 10일 형조에서 국왕에게

4) 자료: 파주시청

보고, 국왕은 한성부에서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한성부에서는 윤5월 13일 이 사건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경기감영으로 보냈고 경기감영은 다시 교하군으로 공문을 보내 처리하도록 하였다. 교하군은 윤5월 18일 사건의 조사내역을 다시 감영에 보고하였고, 감영에서는 투장을 한 박종묵에게 해당 묘소를 이장할 것을 명하고 29일 이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어 6월 2일 교하군에서는 묘소가 위치한 고양군으로 해당 사건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결국 투장을 한 박종묵은 10월 초순에 이장할 것을 약속하게 되었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약속기일인 10월 10일이 되어서도 박종묵은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불이행에 대해 죄를 묻기 위해 찾아간 담당관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한성부에 의해 다시 국왕에게 보고되자 국왕은 이에 대해 거듭 엄히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의 상황이 『일성록(日省錄)』 정조 5년 10월조에 기록되어 있다. 10월 20일 이 사건은 다시 형조로 내려갔고 형조에서 박종묵을 추고하여 이장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의 추고에서 박종묵은 고의가 아닌 아들의 혼인으로 인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였고, 10월 24일 박종묵은 고양관에 11월 초순까지는 이장하겠다는 문서를 남겼다. 결국 그 약속은 11월 27일 이행되었다.

본 사건은 분묘 1기의 이전 요청에 관한 건으로, 반년 이상이 걸리고 국왕이 두 번이나 사건의 해결을 지시한 후에도 결말이 난 사건이다. 사건이 어렵게 해결된 만큼 격쟁자였던 박이중은 이러한 판결 이후로도 효력이 지속하고 차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한성부에 해당 사실에 대한 전후 과정을 문서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한성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문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 격쟁문서는 현재 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다.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국학진흥원은, 멸실 위기에 직면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보급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이다.

무형문화유산 제1호 전통쇄납제작 및 연주기능 조병주

- 지정일자: 2002년 7월 29일 (2018년 별제)

- 소재지: 금산리 174

태평소(太平簫) 또는 쇠납은 고려 말 서남아시아에서 유래한 한국 전통 관악기로, 호적(胡笛), 쇠납, 쇠나, 날라리, 랄라리 등으로도 불린다. 국악기 중 특히 음이 높고 음량이 큰 악기이다. 원뿔형 관의 넓은 쪽 끝에 나팔모양의 동팔랑(銅八郎)이 있으며 반대쪽에는 동구(銅口)가 있다. 동구 끝에는 갈대로 만든 작은 혀(舌)를 꽂아 입으로 분다.

전통 쇠납 제작 및 연주 기능보유자인 조병주씨는 납을 직접 제작하고 또 연주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부친의 대를 이어 쇄납을 불고 또 직접 쇄납을 만들어왔다.

조병주는 어릴 때부터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집안 어른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했는데, 젊은 시절 쇄납을 불다가 집안 어른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그분 “쌍놈이나 광대들처럼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서는 못 살아간다.”고 하며 매번 눈앞에서 깨뜨려 버렸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만들어 불곤 했다. 이러한 굽힐 줄 모르는 노력이 쇄납의 달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쇄납 연주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아 각종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경기도 으뜸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지만, 여섯 명의 자녀 중 넷을 암으로 잃었으며 본인 또한 궤장암을 앓는 기구한 삶을 살다가 2018년 별세하였다.



조병주(자료: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제32호 장수황씨열성공묘역

- 제작연대: 조선시대
- 지정일자: 2015년 9월 18일
- 소재지: 금승리 산3-2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조선초기의 명재상인 황희의 셋째 아들이자 대를 이어 영의정에 오른 황수신(黃守身, 1407~1467)의 묘이다. 자는 계효(季孝), 호는 나부(儒夫), 시호는 열성(烈成),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1423년(세종 5) 사마시에 응시했다가, 학문이 부진하다고 시관(試官)에게 모욕을 당하자 분개하여 “한 세상을 건지는 것이 과거만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평생에 켜는 선비 되지 않으리라!”는 시 한 연을 짓고 나와 이로부터 발분하여 학문에 진력하였으나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않았다.

과거를 보지 않고 음서제로 관직에 나아가 좌부승지, 좌승지를 거쳐 1446년(세종 28)에 국초 이래 문과(文科) 출신이 아니면 제수되지 않았던 도승지에 발탁되었다. 이후 1455년(세조 1)에는 세조 등극에 끼친 공로로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에 책록되었으며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황수신 신도비



황수신 묘역

1462년 좌찬성으로서 『경국대전』의 제2차 초안(草案) 작성에 참여했고, 영의정 한명회(韓明澮), 좌의정 심희(沈澮)와 함께 문과 출신이 아니면서도 예문춘추관직을 겸임하였고 1467년 아버지의 대를 이어 영의정에 올랐다.

풍모가 뛰어나고 인품이 중후하면서도 기국이 있어 세조 대의 민심 수습과 치적에 큰 공헌이 있었고, 장수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장수황씨 열성공 묘역은 15세기 중후반 봉분 형태 및 장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묘역으로 문·무인 석이 쌍으로 조성되어 있는 등 묘제 석물 규제(1474) 이전 조성된 묘제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자료이다. 또 부인과 쌍분이고, 삼탄(三灘) 이승소(李承召)가 짓고, 종부시정 최한량(崔漢良)이 쓴 신도비명이 있다. 그러나 비석이 낡아 1943년에 다시 세웠다.⁵⁾

5) 자료: 파주시청

왜, 금산리 민요일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혼자서 농사지를 수 없다고 내려와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학비를 대주시던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월등하게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그만두게 되니까 섭섭하고 이쉽고 그랬어요. 내려와서 두레판으로 갔어요. 거기서 조병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조병호 선생은 한학자에게서 한학을 대학까지 배우고, 사서삼경까지 하고 생전에 한시협회 회원으로 파주문화원에서 한시백일장도 주관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스승이지요.

학교를 그만두고 와서 고등학교 공부를 강의로 듣던 열일곱 때에 조병호 선생을 만나서 두레판으로 갔는데 논에서 소리 매기고 장구치고 계셨어요. ‘너 잘 만났다. 네가 왔으니 잘 됐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장구를 잘 다뤄요. 악기를 잘 다루서 서울서 중학교를 그만두기 전에는 학교 밴드부도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끝이 나기는 했지만... 나를 붙잡고 열심히 해서 민요를 살려야겠다고 하시니까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고명한 지식도 부럽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어요.

금산리 민요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파주가 군 단위 일 때 13개 읍면이 있었는데 여러 개 마을에 모내기를 할 때 공동 작업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두레패가 있었어요. 면에만 해도 몇 개씩 두레와 함께 농악 팀이 있었어요. 당시 군이 주최해서 농악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주최를 해서 잘 하는 팀에게 상도 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지나면서 농업이 기계화가 되니까 공동 작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기계화와 더불어 두레가 차츰 없어졌어요. 그 이후 자율적으로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산발적으로 흘러왔는데, 유독 금산리에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을 할 때마다 노래를 불러 가면서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돼서 계속 전수가 된 거지요. 다른 곳은 거의 없어지고 농사도 각자 짓기 시작하고 하니깐 농요를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유독 탄현면에 금산리가 소리를 좋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농요가 금산리에서 전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곳은 거의 없어졌지만 금산리는 일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유독 금산리만 하고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표석을 세웠어요.



금산리농요보존마을 표석

‘금산리농요보존마을’이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전 문가들이나 대학에서 학생들, 학자들이 파주시 전체 농요를 채록을 하러 왔어요.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주농요가 경기민요와 다르다는 것이 발견 되었어요. 경기민요는 발생지가 고양시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의 노래는 경기민요가 원형대로 남아 있는데 경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파주시는 형식이 완전 달라요. 경기민요가 아닌 형식이 다른 민요권이 되어버렸어요. 학자들이 채록해서 녹음 들어가면서 비교 검토했더니 경기민요가 아니래요. 그래서 파주지역 민요를 채록을 해서 연구를 해서 발견을 했다고 해요. 파주민요가 별도의 민요권이라고. 왜 생겼냐 하나까서



파주금산리민요 교재



금산리민요보존협회 회장 추교현(81세)

도민요하고 임진강 건너 황해도하고 평안남도 서해바다 쪽으로 예전에 서해민요가 경기민요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아주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둘이 만나서 공교롭게도 파주가 남북을 연결하는 연결지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도에서 오면 임진강을 건너서 쪽배를 타고와도 파주로 상륙하게 되요. 저 아래로 가면 바다로 가서 떨어지니까 파주를 거치지 않으면 남쪽으로 못 내려가서 그쪽에서 오는 손님들이 전부 파주로 상륙해서 선착장으로 올라오고, 만나면 음식 먹고 술 한잔하잖아요. 더군다나 왕래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좋아하는 예인들이라서 교류가 심했거든요. 소리 좋아하고 술 잘 먹고 하는 사람들이 팔도를 헤매는데 특히 서도하고 가까워서 임진강 하나 건너면 파주니까 첫발들을 쉬고, 쉬어가면서 교류를 하니까 경기민요와 서도민요하고 몇 세기를 흐르면서 변해버렸다는 거지요. 소리가 경기민요도 아니고 서도민요도 아니고 그래서 민요권이 섞였어요. 독특한 민요권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름 하여 파주민요인데 학자들이 논의를 했어요. 독특한 파주 민요를 양성화 시켜서 우리 민요로 육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논의를 했는데 노래를 잘하는 마을에 이것을 맡겨야 끊어지지 않고 전수가 될 것이고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전승될 거 아니냐. 선정 당시 유독 탄현 금산리 하고 대동리만 소리가 유명했어요. 술도 좋아하고 소리도 좋아하고 나루터는 대동리가 더 가깝지요. 금산리는 나

루터가 없거든요. 오게 되면 갈현리, 대동리, 만우리, 성동리, 오금리, 낙하리, 금승리 쪽으로 있어요. 금산리는 한 발 벗어나서 뒷마을이니까 그런데도 금산리 쪽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대동리에도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몇 사람이 좋아했고, 금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좋아했고, 이제 길게 갈 수 밖에 없어요. 대동리 쪽에서는 회다지 장례소리가 더 발달해서 그게 더 유명해졌고, 금산리는 농요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농사짓는 소리가 생활문화로 더 인정받아서 금산리를 지정했어요. 민속학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노래를 잘하는 마을에 맡겨야 끝까지 갈 거 아니냐 해서 그분들이 지정을 했지요. 이왕이면 노래를 좋아하는 활성화된 곳에 맡기면 오래도록 보존할거 아니냐 해서 금산리를 선택한 거지요.

지금 보존회 회원은 유동적인데 전성기에는 120명 정도 있었어요. 학생들까지 해서 전부 활동회원이 아니고 휴면회원이 많다 보니까 차츰 줄어서 문산 이런 곳에서 10명씩 집단적으로 왔다가 집단적으로 떠나기도 하고, 서울로 가서 흩어지고, 나이 들어서 세상을 뜨고 하니깐 다 해서 30여 명 남았어요. 더 나오면 더 모일 수도 있지만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나오지도 못하고 고갈 쓰고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 30명 정도 되요. 그것도 점점 힘들어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 그룹만 관심 가지고 좋아하니 학생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기도 힘들어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잘 유지되었으면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바람이에요.

2. 보호수

각 지방의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⁶⁾ 의해 지정되고 관리된다. 파주시도 이 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54그루의 나무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⁷⁾ 이 중 탄현면에는 8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다.

「산림보호법」 제13조의 보호수 선정기준과 중첩되고, 지정 실적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지금은 폐지된 조례안이지만 한때 파주시는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를 따로 둘 만큼 보호수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체계적으로 많은 숫자를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2019년 여름 사업으로 마을과 인접해 있는 보호수 15곳을 대상으로 제초 및 정비작업 후 평상을 설치해 보호수 무더위쉼터를 조성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동네 어귀마다 느티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등의 정자나무를 심었다. 정자나무 아래에는 평상에 누워 한여름 더위를 피하거나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 보호수를 지정할 당시에는 마을 어귀이거나 산이었던 곳은 개발로 인해 환경이 많이 변할 수밖에 없다. 평상이 놓인 보호수 아래에 새로 이주해 온 집들은 사생활 침해 민원을 넣기도 했다. 한편 금승리 은행나무와 오금2리 산19번지에 있는 느티나무는 1980년대 농촌 봉사활동을 온 대학생들이 아이들과 그늘 아래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던 곳이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였던 곳이 관리가 되지 않아 지금은 사람의 접근이 힘들어졌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13조의 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을 신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했다.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보호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초작업 및 정비작업과 함께 탄현면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작업은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표시해야 하는 작업이다. 8곳 중 2곳은 주소를 가지고도 찾아갈 수 없다.

전국 보호수 수종 중 대부분은 느티나무이다. 파주시는 물론 탄현면도 예외는 아니다. 파주시 보호수 53그루 중 33그루(62.2%)가 느티나무이며, 탄현면도 62.5%가 느티나무이다. 느티나무는 은행나

6)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지정번호 21번은 지정해제. 실제 보호수는 53그루

무와 더불어 천 년 정도는 거뜰히 넘기며 사는 대표적인 수종이다. 이 까닭에 사람들이 머무는 민가 근처에서 흔하게,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탄현면의 보호수는 파주시 보호수의 15%를 차지한다.

금승리 은행나무

- 지정번호: 경기-파주-11
- 지정년월일: 1982년 10월 15일
- 수령: 530년
- 소재지: 금승리 79-7

이 나무가 심어진 금승리는 방촌 황희 정승의 묘소가 있으며 정승의 장례 시(1450)에 문종이 친히 이곳에 내려와 조문을 하였는데 묘 앞의 산봉을 가리키며 정표로 어봉이라고 부르도록 명하였고, 이 나무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금승리 은행나무

오금2리 느티나무

- 지정번호: 경기-파주-12
- 지정년월일: 1982년 10월 15일
- 수령: 520년
- 소재지: 오금리 산19

조선시대 세조를 도와 정난공신에 책록된 밀산군 박중손이 사망하자 어명을 받고 명지사가 묘지를 물색 중이었다. 임진강이 둘러싸인 매봉재를 거쳐 신선봉 끝머리의 구미봉까지 샅샅이 뒤져보아도 명당을 찾지 못해 호피산머리에 이르러 서성거리던 중 갑자기 매봉재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생각한 지사가 다시 매봉에 올라 자세히 살피니 명당이 있었다. “까마귀가 나를 도와 일러주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한 것에서 유래된 지명으로서 이 나무는 세조가 밀산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하사한 나무라 한다.



오금2리 느티나무

법흥2리 느티나무

- 지정번호: 경기-파주-13
- 지정년월일: 1982년 10월 15일
- 수령: 450년
- 소재지: 법흥2리 458-2

이 나무는 광산기씨 조상이 약 400여 년 전에 이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개척할 당시 후손들이 느티나무처럼 넓게 퍼지라는 변성의 의미로 심은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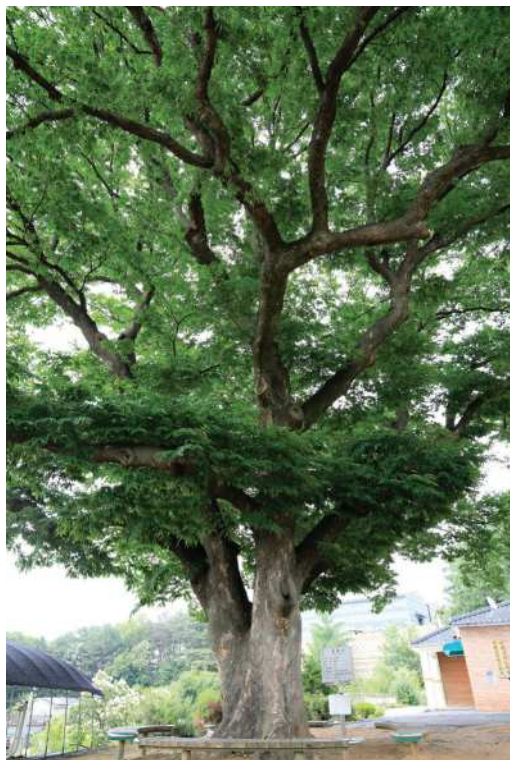


법흥2리 느티나무

축현3리 느티나무

- 지정번호: 경기-파주-14
- 지정년월일: 1982년 10월 15일
- 수령: 520년
- 소재지: 축현3리 산8-1

이 마을은 문종 임금의 방촌 황희 정승의 장례시 충효를 바탕으로 문·덕·지를 넓힐 것을 교시함에 따라 덕과 예술에 힘을 기울이고자 덕술동이라고 불렀다. 임금의 교시를 받들어 마을의 연중예식으로 음력 10월 5일 치성과 함께 예술제를 드리는 명당을 표시하기 위해 심은 것이라 한다.



축현3리 느티나무

오금2리 느티나무

- 지정번호: 경기-파주-15
- 지정년월일: 1982년 10월 15일
- 수령: 520년
- 소재지: 오금2리 산26

밀양박씨 공효공파 후손의 종중산에서 자생한 나무로 수간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특이하게 자라고 있으며 인근에 있는 도나무(파주-12)의 자목이라고도 하여 치성을 올릴 때 항상 제사를 지냈으며 두 나무가 함께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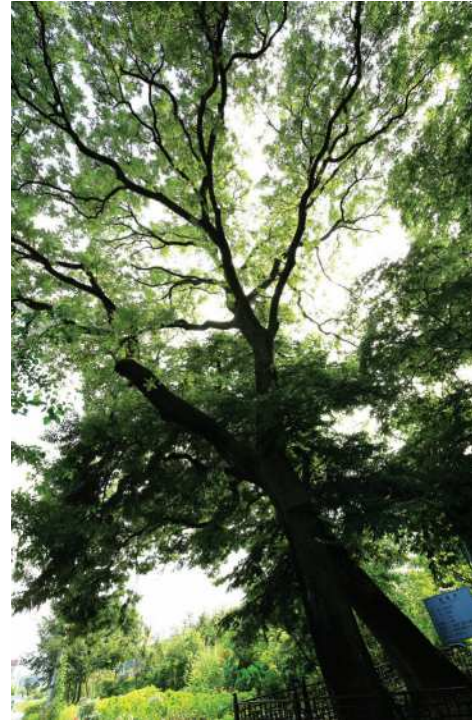


오금2리 느티나무

축현1리 회화나무

- 지정번호: 경기-파주-16
- 지정년월일: 1982년 10월 15일
- 수령: 200년
- 소재지: 축현1리 155-13

약 180년 전 전주이씨 일가가 마을에 이주하여 느티나무와 함께 심은 나무로 겨울에는 추운 바람을 막아 주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농사로 바쁘고 힘든 한여름에 그늘을 제공해 주는 정자목이다. 나무에 빌면 아들을 낳게 해주며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소원목 역할을 한다.



축현1리 회화나무

금승리 향나무

- 지정번호: 경기-파주-52
- 지정년월일: 2010년 11월 19일
- 수령: 200년
- 소재지: 금승리 산1

황희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약 200년 전 방촌의 후손 14대 황태현이 무덤을 보수하고 주변을 정리할 때 향나무 3그루를 심었는데 그중 1그루만 남았다.



금승리 향나무



성동리 느티나무

성동리 느티나무

- 지정번호: 경기-파주-54
- 지정년월일: 2011년 7월 25일
- 수령: 300년
- 소재지: 성동리 689(검단사)

신라시대 검단조사가 창건한 검단사 입구에 위치하여 남쪽의 한강과 북쪽의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굽어보고 있다.⁸⁾

8) 파주시청 보호수 참조

마을제와 조직공동체

김미애(구리환경교육센터)

1. 마을제사

1) 금산리 보현산 산신제

보현산은 높이 144m 낮은 산으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 임진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임진강과 관산반도, 북한의 기정동 선전마을이 보일 정도로 뛰어난 전망을 자랑한다.

1978년 무장공비 침투 이후 대인지뢰가 2,000발 정도 매설된 이래 2007년 5월 제거작업을 거쳐 30여 년 만에 개방되었다. 당시 이 산은 국방부를 제외하고 이 지역 민간인 소유자가 33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금산리에 거주하는 창녕조씨였다.



금산2리를 둘러싼 보현산

금산리 마을 사람들은 삼년에 한 번씩 음력 11월 첫째 주 오일장이 열리는 날을 잡아서 산신제를 보현산에서 지낸다. 한국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격년 제사를 지냈다.¹⁾ 한국전쟁 후 생활이 어려워져 제물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자 3년마다 한 번씩으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으나, 전쟁 직후 생활이 어려워져 돼지를 제물로 마련한 해가 있었다. 돼지를 사다가 제를 지내기 전 울타리에 묶어 두었는데 돼지가 도망 쳐서 사람들이 마을과 산을 구석구석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보현산 산신령이 돼지 가지고는 성에 안차서 제물을 다시 바꾸라고 돼지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해서 사람들이 다시 소를 제물로 바쳤다.

1960년대에는 제사에 드는 소의 비용을 줄이고자 송아지를 사다가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 주민이 맡아서 키운 적도 있었다. 하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일을 시키고 또 부리는 과정에서 소에게 욕도 하고 해서 부정 타는 일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흠 없는 깨끗한 소를 값을 깎지 않고 사다가 하게 되었다.

제물은 황소 한 마리를 산신제를 지내는 날 현장에서 직접 잡았다.²⁾ 지금은 잡은 소 한 마리를 사다가 피, 고기, 다리, 머리, 내장 등 부위별로 나누어 올려놓고 ‘내세목(갈비 안쪽)’은 신령에게 바치고 ‘외세목’은 호랑이에게 바친다.

동네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현장에서 직접 소를 잡는 작업은 2010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개도 잡고 했지만 지금은 할 수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하지도 못해요. 2010년에 다른 동네에서 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을 때 정수리를 한 번에 쳐서 잡아야 해요. 그런데 한 번에 안 쓰러 진거예요. 소가 미친 듯이 날뛰어서 그해에 트랙터를 새로 샀는데 트랙터가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³⁾

산신제를 지내는 날짜가 정해지면 제관과 축관을 뽑고,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상소임과 집사 2인 등 5명을 선정한다. 보통 제사를 지내기 3일 전부터 선정된 5명은 제물을 장만할 도가 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매일 목욕재계하고, 몸을 정갈하게 하면서 산신제 준비를 한다. 조라술을 담그고 떡, 식혜, 과일 등 산신제에 쓰일 음식도 준비한다.

3일 전에 산 아래 작은 웅덩이에 있는 낙엽을 긁어내고 쌓여 있는 불순물을 걷어내면 맑은 물이 고이는데 그 물로 밥도 짓고 조라술을 빙는다. 땅을 파고 구덩이에 불을 피워 땅을 데우고, 누룩과 쌀을 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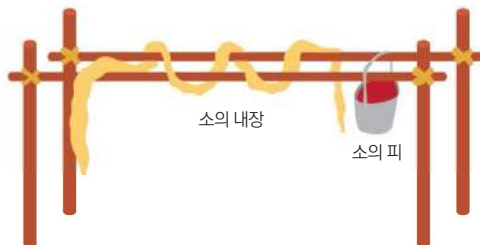
1)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1995)에는 매년 산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파주시지』(2009)에는 격년제로, 현재는 3년마다 지내는 것으로 확인

2) 우시장이 열리는 장날을 제삿날로 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금산2리 노동호(6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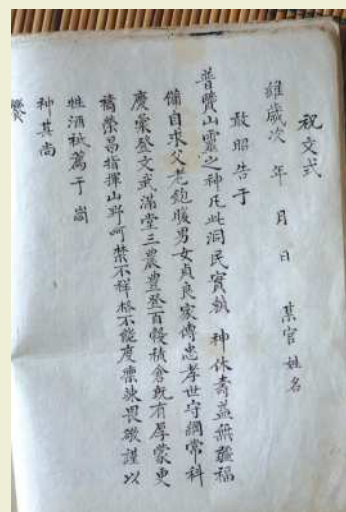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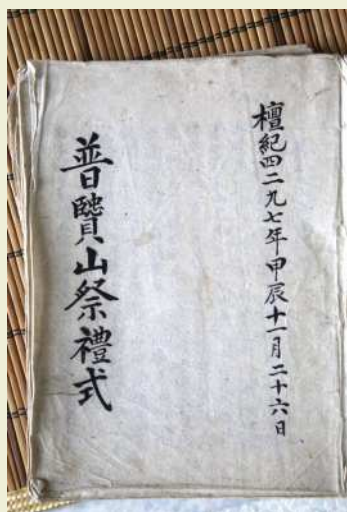
아서 넣은 작은 술독을 묻은 다음 짚으로 덮어 놓으면 술이 익는다.

미리 선별해 놓은 사람들(작포자)이 소를 잡아 고리에 내장과 고기를 걸어두면, 산신제는 헌관과 축관만 지내고 집사는 제단 아래에서 제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제는 자정에 시작되어 45분 정도가 소요된다. 제관이 의관을 정제하고 무릎을 꿇는다. 축관이 향합을 열고 분향 후 재배하고 다시 모사재배를 한다. 분향은 공중에 있는 신을, 술을 세 번 땅에 붓고 재배하는 모사재배는 땅에 있는 신을 부르기 위함이다. 축관이 잔을 받아 헌관이 잔을 올리고 축관은 헌관의 좌측에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을 읽고 나면 15분가량 부복한 후 재배한다. 재배가 끝나면 축관이 소지 3장을 올린다. 3장의 소지는 노인과 젊은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기 위해서이다. 제가 끝날 때 까지 마을 사람들은 제단 근처에 올 수 없다. 제가 끝나면 고기를 나눌 사람을 불러 제단에 오르게 한다. 이들은 소머리를 삶고 머리가 익으면 건져 내 피를 익힌다. 피가 익는 동안 제사 비용을 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고기를 나눈다. 제사를 지내고 분육을 마치면 새벽 5시 정도가 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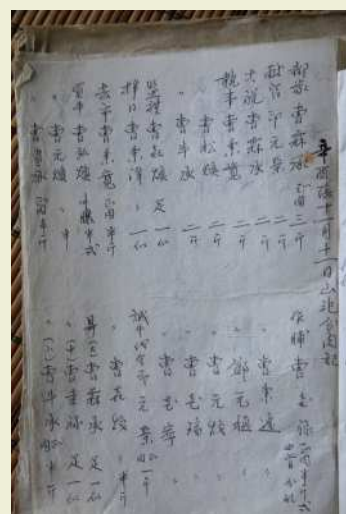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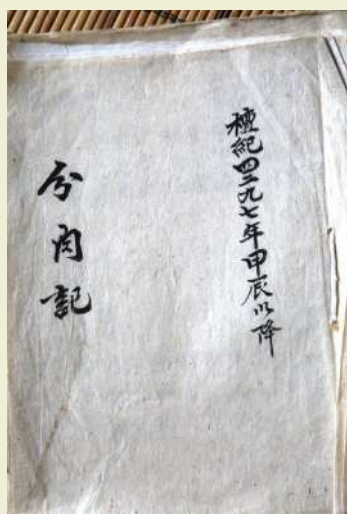


보현산 산신제 진설도(일러스트: 박호준)

4) 보현산제 행사일정표. 금산리 추교현(81세), 조필환(78세)



보현산제예식 문서



분육기 문서

晉賢山神祭備品臺帳
戊申十一月二十四日

西紀一九九三年癸酉十月十六日奉祭
祭席記
酒米 七升七合
飯米 七升五合
食鹽米 五合
麴子 三張葉一封
大棗 一升
生栗 二升五合
生梨 四介
生柿 山十介
魚南 北魚三首
魚湯 北魚一首 熟用

長紙 五張
白紙 十張
燒紙 三張
大燭 二介
祭具 1. 炭助用 淨반 一介
2. 牛頭用 淨반 一介
3. 四足用 淨반 一介

보현산신제비품대장

辛未年
晉賢山祭
行事日程表

各自任務에 臨할 것
祭禮之 擇日이 되면 部隊와 支署
에 事前에 報告하고 部落內에 祭
草 細入과 舍內에 半과 원木을
中込한 아 舍內에 差秧이 있고
무할 것이면 人選의 任員이
異狀有 異狀을 破格하여 異狀
이 有할 時에 即將 充員하고 祭
草 細入에 支署에 任員할 것
祭席 席上에 執事는 市場
에서 祭席을 造라 酒 드릴 牛頭
과 魚湯을 사오고 都家에서 食
할 七升七合을 술피를 酌서 牛

山祀行事日程表
間一年하여 山祀를 奉行함에
있어 該當年度陰十月末頃이
되면 안밖동리 里長 班長 및 年
長者等이 舍同하여 豫備會合을
하고 前者에 行한 祭儀 祭具를 閱
覽하여 修正檢査人選을 牛氣
極量가려 選拔하여 諸般準備에
萬全을 期하여 함
(都家二獻官三祝官四執事
並禮를 定함 各邑任務에 臨
할 當은 반드시 沐浴齊戒하야

祭草 細入과 舍內에 半과 原木을
中込한 아 舍內에 差秧이 있고
무할 것이면 人選의 任員이
異狀有 異狀을 破格하여 異狀
이 有할 時에 即將 充員하고 祭
草 細入에 支署에 任員할 것
祭席 席上에 執事는 市場
에서 祭席을 造라 酒 드릴 牛頭
과 魚湯을 사오고 都家에서 食
할 七升七合을 술피를 酌서 牛

행사일정표

보현산 산신제는 준칙과 분육기, 행사일정표, 제물비품대장 등을 두어 매년 같은 방식으로 산신제를 지낼 수 있도록 문서화 작업을 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현산 산신제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제사를 맡아 주관하던 사람들이 차례로 세상을 뜨고 2014년 마지막 제사 이후 지금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음력 11월 첫째 주 장날은 날씨가 너무 춥고, 우시장이 없어진 지금은 장날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명분을 잃어 양력 12월초로 옮기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전통을 고집하는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관, 축관, 집사 등 선정 된 사람들은 3일이라는 긴 시간을 묶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낼 사람을 선정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 2019년에는 산신제를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 문지리 선돌

문지리 마을회관 앞에는 높이 198cm, 폭 330cm의 커다란 선돌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마을회관 앞 선돌과 마주 보는 방향으로 직선거리 150m 서쪽에는 높이 135cm, 폭 90cm, 두께 35cm의 또 다른 선돌이 동쪽을 바라보고 밤나무 아래에 서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 앞에 있는 선돌을 암돌, 건너편 프리즘공단 앞에 있는 선돌을 솟돌이라고 부른다. 이 선돌과 함께 마을 뒷산 자락에 커다란 참나무가 도당나무로 있었지만 지금은 베여 없어졌다.

선돌은 마을 도당굿이 열리면 그 앞에 제물을 차려 놓고 암돌, 솟돌에 순서대로 제를 지냈다. 마을 대동굿은 정기적으로 지내지 않고 마을에 큰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부정기적으로 행해졌다. 마지막으로 대동제를 지냈던 해를 기억하는 방식이 막내딸 시집가던 해, 부녀회장을 맡아서 하던 해, 집을 새로 지었던 해 등 개인의 생활사에 집중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해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장 정확한 기억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말을 인용하면 1995년 대동굿이 마지막으로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살면서 두 번 집을 지었는데, 문지리에서 두 번째 집을 지은 게 1995년이었어요. 그해 만신 이 동네 큰 곳을 했는데 새로 지은 우리 집을 한 바퀴 돌아서 축원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⁵⁾

그해에 마을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아픈 일이 자주 발생해서 대동굿을 진행했다. 비용은 마을부

5) 문지리 노인정 주민



문지리 마을회관 앞의 선돌(암돌)



문지리 선돌(암돌)



프리즘공단 입구의 선돌(숫돌)



문지리 선돌(숫돌)

녀회와 마을회에서 지원하고, 굿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쌀 한 말씩을 추렴해서 진행을 했다. 사람들이 ‘앵두나무 만신’이라고 부르는 큰 만신을 불려서 3일간 진행했다. 만신이 집집마다 돌면서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축원을 하면서 집을 한 바퀴 돌아서 나왔다.

1970년대 중반 마을회관 앞 선돌이 있는 근처에 주택이 한 채 있었다. 선돌이 집 쪽으로 넘어져서 그 집에 살던 주민이 선돌을 장독대로 사용했다. 그 후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 넘어진 돌을 다시 세워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고 한다.

프리즘공단 입구에 서 있는 솥돌 또한 수난의 시대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건물 공사가 진행되던 당시 건축자재를 나르던 지게차에 부딪혀 선돌이 여러 조각으로 깨졌다. 그해에 마을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해서 선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하고 다시 붙여서 그 자리에 세워 두었다.

선돌 앞에서 지내는 제사는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선돌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시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3) 갈현리 산신제

한국전쟁 이전 갈현1·2·3리가 모여 산신제를 함께 지냈다. 당시에는 돼지를 한 마리 잡고 하얀 백설기를 써서 산신께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중에 마을이 불에 타면서 살기가 힘들어져 지내오던 산신제를 중단하게 되었다. 2006년 없어진 산신제를 부활시켜 진행하게 된 주체가 마을 원로들이 아니라 마을 부녀회였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잦아져서 상갓집 음식을 부녀회에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음식준비를 하던 부녀회에서 제일 먼저 제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자 당산이 잘려나가 악재가 생긴다는 얘기가 마을에서 돌았다. 당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운전학원이 생기면서 산자락을 깎아냈고 바위까지 없어지면서 악재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부녀회장이 집집마다 돌면서 비용을 조금씩 추렴하고 마을기금 500만원을 들여서 합천에서 3명의 스님을 모셔다가 제를 지냈다. 매년 대규모의 산신제를 주관하는 일이 비용 면에서 부담되기도 해서 점차나 규모를 간소화해서 2006년 산신제를 다시 시작한 음력 10월 19일을 산신제 날짜로 정해 지금까지 매년 지내고 있다.



잘려나간 갈현리 당산. 소나무 숲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제물은 유교식 제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돼지고기, 절편, 북어, 사과, 밤, 대추, 배, 감, 수박 등의 과일과 단자, 옥춘(사탕)을 차린다. 옛날처럼 몸가짐을 정갈히 하고 축관, 헌관 등을 선정하는 과정은 특별히 거치지 않고 노인회장이나 마을 이장이 축문을 읽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참석자를 봐서 정하기도 한다. 산신제는 낮 12시 마을 뒤쪽 당산에서 지낸다.⁶⁾

4) 만우리 도당굿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도당굿이 마을에서 행해졌다.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도당굿이 있었던 때는 1995년이다. 그 이전에도 사실상 굿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현재 마을회관과 창고 사이에 넓은 마당이 있어서, 천막을 치고 통돼지를 올리고 작두를

6) 갈현1리 박향순(60세)

타며 2박 3일 동안 곶을 했다. 그해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다른 해 보다 죽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다. 동네에 만신 백복순씨가 살고 있어서 주관을 했다.

마을 고개에는 서낭당이 있었다. 고갯길이 우마차가 길을 넘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높고 가파른 고개였지만, 30여 년 전 새롭게 길을 내는 과정에서 고갯길의 흙을 깎아내고 높이를 낮추면서 서낭당은 사라졌다.



서낭당이 있던 마을 고갯길(왼쪽 전봇대 아래)

2. 마을 조직공동체

전통적 형태의 공동체는 마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혈연과 지연에 근간을 두고 일, 놀이, 신앙, 의례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공동체 스스로가 나름의 운영체제와 생활방식을 만들어 이어져온 방식으로 존재해왔다.

조선전기 마을들이 농지를 따라 흩어진 밭농사 중심의 자연촌락으로 존재했다면, 16세기 이후는 본

격적으로 진행되는 독과 제방, 저수지 개발로 평야 저지대로 농지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집약농법의 발달로 집촌화를 이루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이후는 촌락의 분호 및 사회경제적 발전, 마을 주민들의 의식 성장과 함께 문중계, 상여계, 유산계, 서당계, 사초계, 송계, 상포계, 우마계 같은 각 종류의 목적계들이 활발하게 조직 운영되었다.⁷⁾

40세 이하 젊은 농가가 줄고 65세 이상 노령농가는 늘면서 농촌이 점점 더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103만 명으로 전체의 42.5%에 달했다. 65세 인구비중으로 따지는 고령화율이 국가 전체 13.8%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7세이며 70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도 41.9%나 됐다. 농사짓는 10농가 중 4농가가 70대 이상인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농촌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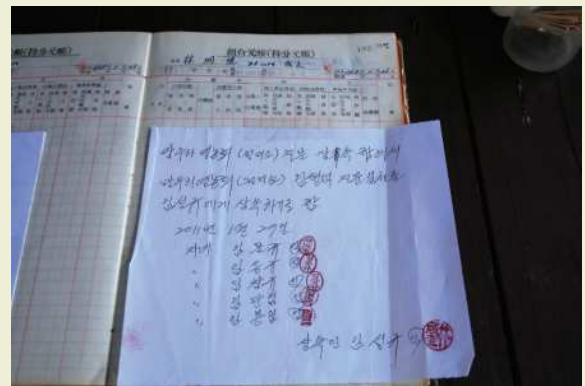
농촌조직의 근간을 이루던 두레조직은 농기계의 등장으로 사라졌다. 마을 공동체에서 담당하던 상례는 전문 상조보험회사나 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마을 상여계 해체를 불러왔다. 결혼식 또한 전문 예식을 담당하는 웨딩플래너와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는 회사까지 생김으로써 전통사회가 담당하던 역할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1) 만우리 영농조합

1961년 11월 3일 만우리 마을 주민들 104명이 쌀 한 가마씩 출자를 해서 정미소를 지었다. 공판이라고 해서 벼를 수매하는 창고를 짓고, 70년대에 창고 건물을 만우리 마을 공동소유로 바꿔 놓았다. 탄현농협이 창설되던 초창기에 영농조합 명의로 되어 있던 각 영농회 자산을 농협 자산으로 출자형태로 등록을 했었다. 농협중앙회가 생기면서 만우리 영농조합으로 하지 않고 건물과 땅을 만우리 마을 전체로 명의이전하고 돌려받았다.

조합원은 따로 있었어요. 정미소조합원이 쌀을 출자해서 땅을 구입하고 정미소를 지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 땅이나 마찬가지니까 마을 이름으로 하자고 해서, 영농조합 이름으로 하지 않고 마을 재산으로 편입한 거죠. 현재는 마을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정미소를 운영하던 사업자에게 세를 줘서 2년 마다 세를 받았어요. 쌀 수확량이 많으니까 방아를 찧으면 수익이 꽤 많았어요. 임대료로 2년에 쌀 200가마를

7) 이해준, 『고을과 마을의 문화이야기』, 세창출판사, 2015, 171쪽



만우리 영농조합 회원 명부

받았어요. 그렇게 임대료를 내고 정미소 운영을 해도 남으니까 했겠지요? 워낙 생산되는 쌀이 많으니까. 농협 미곡처리장이 생기고 정미소를 그만두고 창고만 세를 졌어요. 그게 재작년 인가? 7,700만원인가 정도 자금이 쌓여서 그 돈을 특별하게 쓸 일도 없고 다른 곳에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누었죠. 조합원 끼리 약 95만원씩 나누고 창고는 동네에서 관리 안하고 영농회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창고세가 1년에 360만원씩 나오고 있어요. 한 달에 30만원 그게 또 다시 쌓여서 800만원 가까이 모여 있어요. 장부에 이름이 있고 몇 년도에 쌀 한 가마 출자했다는 것과 탈퇴했다는 기록 뭐 이런 게 장부에 있는데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장부는 이장인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영농회라고 해서 그전에는 농협이 생기기 전이니까 마을 단위의 조합인 셈이지요.⁸⁾

탈퇴 또는 사망으로 인해 1988년에는 회원이 72명으로 줄었고, 현재까지 회원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속 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만우리 공동자산 마을창고

8) 만우리 우재명(61세)



오금2리 마을창고 2동



오금1리 마을창고. 드라마 물품대여회사에 임대를 주고 있다.

탄현면의 다른 마을 또한 마을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전형적인 농경사회였던 만큼 마을 공동자산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정미소 또는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가 대부분이다.

2) 법흥1리 약산향우회

2013년 10월 26일 처음으로 결성된 마을 단위의 향우회 모임이다. 자유로 개통과 함께 사라진 법흥1리 주민들의 모임이다. 탄현면의 오지마을로 손꼽히던 약산골 마을이 1993년 이주를 하면서 형성된 ‘이주마을’ 사람들과 고향을 떠나 외지로 나가 있는 출향인들이 이주 26년 만에 향우회를 결성했다. 회원은 40여 명이다.

고향에 살고 있지만 고향이 개발로 없어진 실향민이 되어 버린 약산골 사람들이 모여서 고향을 추억하고 있다.

1993년 마을 개발당시 약산골 산자락에 있던 거북이 모형의 비석받침을 도굴꾼으로부터 회수 면사무소 앞마당에 보관해오던 것을 최근 약산골 향우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돌려받았다. 당시 마을이 장 업무를 맡아하던 김무경씨와 탄현면 부면장이 협약을 하고 면사무소 마당으로 옮겨졌지만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면사무소 관계자였던 부면장의 사망으로 돌려받기가 힘이 들었다고 한다. 2019년 9월 10일 법흥1리 마을회관 앞마당으로 옮겨왔다.⁹⁾

3) 만우리 구락부(8인회 노동조직)

한국전쟁 이후 만우리에서 개간 사업을 했던 농사개량 구락부가 있었다. 1967~1997년까지 연도별·날짜별 자금의 입출금 기록과 탈곡 현황, 양수 현황, 기자재 사용료, 잡비, 수리비, 유류, 경운기 가동, 농장 수입, 탈곡 수입, 수세 수입, 타작료 등 종목에 대한 사항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 농사개량 구락부는 4H와 다른 것인데, 4H는 청년층이 참여하는 농사개량구락부보다 젊은이(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조직이었다. 6.25전쟁 이후 1956~1957년경 마을로 들어와서 90가구 중 32명이 개간 작업에 참여하였다. 문서에서 1967년에는 8인회, 1968년에는 9인회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 가입 회원 수가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32명이 함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둘 탈퇴하고 8명이 남아 마지막에는 8인회가 되었다. 8인회 중 이시우, 우상명, 정승모 세 명만이 마을에 생존해 있다.

9) 법흥1리 김무경 구술



약산향우회가 탄현면으로부터 돌려받은 비석받침

성동리 작골 사시던 분인데 그분한테 땅을 팔았어요. 그곳이 수십이 무척 깊었어. 한국전쟁 때 독이 터져서 물이 들어와서 물이 고인 땅이 있었는데 제방이 터지고 피난 갔다 오고 하니까 개울이 메꿔져서 그 당시 젊었던 우리들이 개간을 하자 그래서 개간을 했어요. 농토를 만들어서 모를 냈어요. 면적이 4천평이야. 1965년도쯤이지?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이익이 나면 관광도 다니고 지원도 해주고. 처음 인원이 32명이야. 회원들이 중간에 죽은 분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회원이 줄어드는 거야. 우리가 해산할 당시에는 회원이 최종 8명이었어요.

정확한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성동리에 있는 사람한테 땅을 팔면서 해산한 거야. 1980년도인가? 경지정리하고 할 때였어요. 성동리 김길수씨가 달라고 그래서 팔고 해산한 거야.

4천평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농사짓고 있어요. 군대에서 철책 칠 때 땅이 들어가서 한 3천평 남았을 거예요. 철책을 치면서 옆으로 길을 내면서 땅이 천 평 수용됐을 거예요. 해산 당시 자본금이 정식회원이 8명이 토지매각 대금밖에 없었어요. 금액이 2억 4천인가 그랬어. 3천평을 8만원씩. 2억 4천 받았어요. 우리 젊었을 적에 갈대밭을 개간한 거여서 한 20일은 가래 가지고 나가서 개간을 했을 거야. 그때는 자유로가 없을 때였어요.

옛날 제방이 그 밖에 있어서 농지개량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자고 해서 개간을 해서 20년 정도 농사를 지었다가 경지정리하고 하다보니까 넘기고 거기가 뻘을 메꾼 자리라서 농사가 잘돼요. 지금도 김길수씨가 지나가면 ‘너 벼가 잘되니까 이 동네 자주 오는 구나.’ 하고 놀리지. 성동리 땅보다 벼가 엄청 잘돼요. ‘벼가 잘되니까 맨날 오는 구나.’ 하고 소리하지. 그 땅은 우리 젊은 날의 노력의 대가야.¹⁰⁾



만우리 이시우씨(1936년생)

10) 만우리 이시우(84세)



4) 법흥2리 새마을부녀회

파주시 탄현면 새마을부녀회는 15년째 관내 저소득 이웃 36개 가정에 쌀 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0여 가정에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9개소의 관내 노인정 100명에게 5년째 머리염색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탄현면 새마을부녀회는 1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봄부터 길러 수확한 감자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또는 버려지는 헌옷을 모아 자원의 낭비를 막고 그 수익금을 다시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회칙 양식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읍 면 동새마을부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여성으로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읍 면 동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마을부녀회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교육 및 홍보활동
3. 부녀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 연구
4. 각급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업무조정, 지도육성 및 지원
5. 회원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각 마을마다 부녀회장을 임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흥2리 마을회관을 방문했을 때 추석 전 머
리염색을 위한 기금마련과 함께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있었다.



법흥2리 장수사진 촬영(탄현면주민자치위원회 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기금마련 활동 중인 부녀회장(오른쪽 파란 옷)

5) 오금2리 마을주민회

전통사회가 가진 마을조직과는 성격이 다른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며 구성원은 마을 주민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예전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전·출입을 담당하던 때는 마을 구성원이 들고나는 일들을 이장이 전부 파악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집이 지어지는지 누가 이사를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마을 주민들은 정월대보름, 삼복 중 하루는 반드시 모여 윷놀이를 하거나 오곡밥을 먹는 전통과 삼계탕을 끓여 먹는 행사를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주민은 오래전부터 마을의 구성원으로 살았던 토박이 이거나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찬조를 위해 온 외지인들만 참여를 한다. 전통 사회의 해체는 이 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다. 탄현면 22개 행정리 전체가 안고 있는 고민이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오금2리 복달임(중복) 행사

탄현의 세거문중

김미애(구리환경교육센터)

1. 오금2리 밀양박씨(密陽朴氏)

모든 박씨는 신라 건국자인 박혁거세의 후손들이다. 경상남도 밀양시를 본관으로 하고 있는 밀양박씨는 박씨 인구의 거의 70%를 차지하며 2017년 현재 340만 명이 넘어 김해김씨에 이어 본관 별 인구로는 2위다

박혁거세의 증손인 박씨의 세계는 신라 제5대 파사왕(婆娑王)과 제7대 일성왕(逸聖王)에서 갈라졌는데, 파사왕계는 뒤에 영해·면천·강릉 등으로 분관했고, 비안·우봉(牛峰)·이산(尼山)·해주(海州) 등도 파사왕의 후손이라 한다. 일성왕계는 그의 25대손인 경명왕(제54대)과 경애왕(제55대)대에서 다시 갈라졌다.

신라 경명왕(박혁거세의 29세손)의 첫째 아들 박언침(밀성대군)이 밀성(밀양)대군에 봉해진 후 그 후손들이 박언침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밀양으로 하였다. 밀양박씨는 모든 박씨 가운데 종가이고, 밀양박씨에서 10여 개의 본관으로 나뉘고, 밀양박씨 내에서도 여러 개로 분파되었다. 이들은 또 여러 파로 다시 나뉘어져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밀양박씨는 다른 씨족과는 달리 역대 세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경명왕(景明王)은 다시 아들 9형제에서 다음 쪽의 표와 같이 분파되었다.

한편, 경애왕(景哀王)계는 계림대군파(鷄林大君派)를 이루었다. 밀양박씨의 세계는 밀성대군의 7대손인 언부(彦孚, 문하시중)를 중시조로 고려조(高麗朝)에 들어와 도평의사공파(都評議事公派) 언상(彦祥), 좌복야공파(左僕射公派) 언인(彦仁), 밀직부사공파(密直副使公派) 양언(良彦), 판도공파(版圖公派) 천익(天翊), 좌윤공파(左尹公派) 을재(乙材), 진사공파(進士公派) 원(元), 밀성군파(密城君派) 척(陟), 영동정공파 원광(元光), 밀직부원군파(密直府院君派) 중미(中美), 정국군파(靖國君派) 위(威), 규정공파(糾正公派) 현(鉉) 12개로 분파된다.¹⁾

탄현면 오금2리 밀양박씨는 규정공파로서 파 시조는 현(鉉)이며 파주로 들어온 것은 공효공(恭孝公) 박중손(朴仲孫)의 7세손 사오당(四五堂) 박희(朴禧, 1571~1651) 때라고 한다.

1) 파주시, 『파주시 마을기록화사업 보고서 3 월롱마을지』, 2018, 159~160쪽



오금2리 박중손묘



오금2리 밀양박씨 재실



밀양박씨 경명왕계 분파도

이름	분파	분파된 본관
첫째 아들 박언침	밀성대군파(密城大君派)	밀양·반남·진원박씨
둘째 아들 박언성	고양대군파(高陽大君派)	고령박씨
셋째 아들 박언신	속함대군파(速咸大君派)	함양·삼척박씨 등
넷째 아들 박언립	죽성대군파(竹城大君派)	죽산·음성·고성박씨
다섯째 아들 박언창	사벌대군파(沙伐大君派)	상주·충주박씨
여섯째 아들 박언화	완산대군파(完山大君派)	전주·무안박씨
일곱째 아들 박언지	강남대군파(江南大君派)	순천·춘천박씨
여덟째 아들 박언의	월성대군파(月城大君派)	경주 박씨의 8대군파
아홉째 아들 박교순	국상공파(國相公派)	울산박씨

2. 만우리 단양우씨(丹陽禹氏)

시조 우현(玄)은 중국 하(夏)나라 우왕의 후손이라고 한다. 우현이 고려 때 우리나라에 와서 단양에서 살면서 1014년(고려 현종 5) 진사로 문과에 급제하여 정조호장을 지내고 문하시중 평창사에 추증되었다. 그의 10세손 우현보가 고려 공양왕 때 단양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본관을 단양(丹陽)으로 하였다. 우씨는 고려 충렬왕(재위 1274~1308)조를 전후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조선개국 직전까지 번영을 누린다.

고려 고종 때 문하시중 우중대는 단양우씨를 명문의 위치에 올려놓은 인물로, 그의 아들 천규(시중평장사)·천계·천석(시중)·천우·천성등 5형제가 거의 같은 시기에 문과에 올라 가문을 빛냈다. 이들 5형제 중 맏이인 천규의 아들이 바로 역동 우탁이다.

공민왕 11년 홍건적의 침입 때 개성수복에 공을 세우고 동서북면도원사·찬성쟁등에 오른 우선, 우길생(門下侍中), 우복생(창왕조·門下侍中), 우천(門下侍中), 우인열(참성사·정평공파조) 등은 여말의 대

표적 명현들이다. 고려의 국운이 기울면서 우씨 가문은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다. 역동의 손자인 우현보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공민왕 4년 문과에 급제, 문하시중에 올랐던 그는 정몽주 등과 함께 기울어가는 고려의 국문을 바로잡기 위해 이성계 일파에게 대항하다 경주로 유배당했고 조선개국 후 이성계가 공신의 작호를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고 사문동에 은거했다.

현보의 아들 홍수·홍부·홍강·홍득·홍명 5형제가 모두 고려시대에 등과, 벼슬에 올랐으나 조선개국 뒤 고려 부흥을 꾀하다가 전원 유배당했으며, 홍수, 홍득, 홍명 등 3형제는 유배지에서 숨지는 비운을 겪어야했다.

조선후기 무신 우성적 등 1600년 예안에서 간행한 단양우씨의 '예안본(禮安本)'이라고 하는 족보가 전해진다. 가로 23cm, 세로 31cm, 44쪽으로 된 단권이다. 희귀본으로 현재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동의 단양우씨 침모당(瞻慕堂)에 소장되어 있다.

서두에는 퇴계 이황이 지은 역동서원의 기문(記文)이 있고, 말미에는 예안현감 김취의(金就義)의 발문이 있으며, 그 옆에 “도산서원에서 개간하고 역동서원에 보관한다.”라는 목서가 있다. 이 족보에는 시조의 장자 천규(天珪)우탁 계열과 차자 천석(天錫)… 현보(玄寶), 및 인열(仁烈)·희열(希烈)·숭열(崇烈)의 3대 파계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

김취의의 발문에 의하면 퇴계 이황이 우탁의 학덕을 존경하는 뜻으로 역동서원을 짓게 하고 우씨의

단양우씨 분파도

분파	시기	파시조	관직
봉상정공파(奉常正公派)	9세	원명(元明)	봉상정(奉常正)
문강공파(文康公派)	9세	국진(國珍)	참판(參判)
정평공파(靖平公派)	10세	인열(仁烈)	좌정승(左政丞)
문숙공파(文肅公派)	10세	희열(希烈)	호조판서(戶曹判書)
대제학공파(大提學公派)	11세	홍수(洪壽)	대제학(大提學)
예안군파(禮安君派)	11세	홍부(洪富)	예조판서(禮曹判書)
안정공파(安靖公派)	11세	홍강(洪康)	이조판서(吏曹判書)
집의공파(執義公派)	11세	홍득(洪得)	사헌부집의(司憲部執義)
판서공파(判書公派)	11세	홍명(洪命)	예조판서(禮曹判書)

족보를 손수 써서 서원에 간직했는데 임진왜란 중에 분실되었다는 것이다.²⁾

탄현면 만우리 은계마을과 양지마을에 살고 있는 단양우씨는 10세 정평공(靖平公) 우인열(禹仁烈, 1337~1403)을 분파시조로 하는 정평공파 후손들이며, 파조 우인열의 증손 우연(禹堧)의 종손파가 34세 이상 파주 탄현을 중심으로 세거해왔다. 21세 우식(禹湜, 1632~1666)이 17세기에 만우리로 분가하여 정착하였으며 우식의 묘는 만우리 보현산에 있다. 이 마을에는 단양우씨가 70호 이상 거주하던 때도 있었다.

3. 대동리 연안차씨(延安車氏)

차씨(車氏)는 중국고대제왕(中國古代帝王)인 황제(皇)의 후예(後裔)이며, 그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평양(平壤)의 일토산(一土山) 아래에 정착한 것이 차씨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한다. 승색의 6세손 차달(車達)이 후백제를 토벌하려는 왕건에게 사재를 들여 수레 1천량을 제작, 군량미를 보급하여 공신에 책록되고 대승에 올랐다.

연안차씨의 득성시조(得姓始祖)는 차무일(車無一)이며 시조는 왕건 때 공을 세운 차효전(車孝全)이다. 차무일은 신라 태조가 경주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워 시중 벼슬에 오르고 왕으로부터 차씨 성을 받았다. 1258년(고종 45) 차송우(車松祐)가 공을 세워 위사공신(衛社功臣)의 호를 받고 지복주사(知復州事)가 되었다. 복주는 연안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연안을 본관으로 삼았다.

연안차씨는 16세 차송우(車松祐)의 장자 차득규(車得珪)가 18세 차포온(車蒲溫)으로 이어진다. 차포온의 네 명의 아들 차수동(車壽童), 차명동(車命童), 차종로(車宗老), 차안로(車安老)가 각각 문학공파(文學公派), 전서공파(典書公派), 월파공파(月波公派), 상장군공파(上將軍公派)의 파조가 되었다. 차송우의 2남 차덕규(車德珪)는 송림백공파(松林伯公派)의 파조가 되어 모두 5개 파로 이루어져 있다.

탄현면 대동리 연안차씨 창주공파는 약 300여 년 전에 차덕천을 입향조로 하여 대동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입향조의 묘는 탄현면 금산1리에 있으며 대동리에는 차씨가 40호 이상 살았던 시기도 있었다.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연안차씨 청주공파 묘역의 표석



연안차씨 창주공파 묘역

연안차씨 분파도

시조	차효전(車孝全)			
16세	차송우(車松祐)			
17세	차득규(車得珪)		차덕규(車德珪) 송림백공파(松林伯公派)	
18세	차포온(車蒲溫)			
19세	차수동(車壽童) 문학공파(文學公派)	차명동(車命童) 전서공파(典書公派)	차종로(車宗老) 월파공파(月波公派)	차안로(車安老) 상장군공파(上將軍公派)

4. 금산리 창녕조씨(昌寧曹氏)

창녕조씨의 시조(始祖)는 조계룡(曹繼龍)이다. 창녕조씨 일각에서 조계룡이 신라(新羅)의 선덕여왕인 김덕만(金德曼)과 결혼했다고 하지만 『화랑세기(花郎世紀)』에 김덕만의 남편은 음갈문왕(飲葛文王), 김용춘(金龍春), 을제(乙祭)라고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갈문왕(葛文王)인 음(飲)이 선덕여왕의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경잡기(東京雜記)』에는 김덕만은 김인평(金仁平)과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씨(曹氏) 세보(世譜)에는 그의 5대손(代孫)인 겸(謙)을 중시조(中始祖)로 삼고 있다. 겸은 신라말기에 아한시중(阿干侍中)을 지내고 시문(詩文)에도 뛰어났던 흠(欽)의 아들로, 고려 태조 왕건의 딸 덕공공주(德恭公主)와 결혼하여 부마(駙馬)가 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겸의 손자 연우(延祐)로부터 15세 자기(自奇)에 이르기까지 8대에 걸쳐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를 배출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창녕조씨는 삼남(三南)의 명족으로 알려져 있다.

창녕조씨는 단일본이다. 48개의 분파 중 파주에 뿌리를 둔 창녕조씨는 13세 송무의 6세손 원봉(元鳳), 7세손 지경(智敬)으로 세대를 잇는 지중추공파와 영태3리에 묘원을 조성한 시정공파(寺正公派)가 13세 송무(松茂), 14세 준(俊), 15세 인취(仁取), 16세 원단(元旦), 17세 두문(斗文), 18세 천부(天符), 19세 경(庚)으로 세계를 이어왔으며, 병사공파가 송무의 11세 광원(光遠) 12세 대곤(大坤)으로 세계를 이어왔다. 조광원의 혼인으로 사패지의 일부를 받아 묘산을 월릉면에 형성하면서 집성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세기경부터 영태리와 도내리에 촌락을 이룰 정도로 후손들의 거주가 이루어졌다.

주증추공파의 지경(1395~1492)은 조선 전기의 의원으로 의술에 정통하여 명성이 높았고, 세종~성종 대에 걸쳐 전의감·내의원에 재직하면서 국왕·왕족의 질병치료에 크게 공헌하였다

병사공파의 광원(光遠, 1492~1573)의 자는 회보(晦甫)이다. 1522년(중종 17)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1528년(중종 23)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전직에 보직되었고, 1535년(중종 30) 김안로의 모함에 빠져 파직되었다. 김안로가 죄를 입은 후에 복직되어 1538년(중종 33) 사헌부장령, 절충장군을 역임하였다. 1540년(중종 35) 천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45년(명종 1) 명종 즉위 뒤 공조참의·함경도관찰사 등을 거쳐 1548년(명종 3) 호조참판이 된 후 대사헌·개성부유수 등을 지냈다.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 때 경상도도순찰사로 임무를 다하였으며, 호조판서 등을 거쳐 1558년(명종 13) 우찬성에 올랐다. 증추부판사(中樞府判事)로 1561년(명종 16) 70세 때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³⁾

금산1·2리에는 전남 곡성군에서 흥원(興遠, 1600년생)이 17세기 초반에 올라와 뿌리를 내렸다. 이 마을에는 예전에 60여 가구가 살았는데, 당시 마을 주민의 80%가 창녕조씨가 거주하던 시절이었다.



금산2리 마을회관 옆 창녕조씨 기념비

3) 파주시, 『파주시 마을기록화사업 보고서 3 월릉마을지』, 2018, 169쪽

사진으로 담은 탄현의 풍경

김미애(구리환경교육센터)

1. 교육기관

탄현초등학교

병설초등학교
 설립일자 1933년 9월 29일
 학생수 57명(남: 31명 여: 26명)
 교원수 12명



갈현초등학교

단설초등학교
 설립일자 1949년 5월 20일
 학생수 72명(남: 42명 여: 30명)
 교원수 10명



삼성초등학교

단설초등학교

설립일자 1953년 4월 16일

학생수 71명(남: 43명 여:28명)

교원수 10명



통일초등학교

단설초등학교

설립일자 2000년 9월 1일

학생수 431명

(남: 205명 여: 226명)

교원수 34명



탄현중학교

단설중학교
설립일자 1978년 11월 29일
학생수 269명
(남: 147명 여: 122명)
교원수 22명



웅지세무대학교

2004년 경기도 파주시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회계·세무 관련자격증 취득과
세무직 공무원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설립된 입학정원
599명의 3년제 사립 전문대학



2. 마을의 기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탄현정



탄현체육공원 제막식



파주시 스포츠센터



탄현 미곡종합처리장 1



탄현 미곡종합처리장 2



만우리



성동리



대동리



문지리



낙하리



금산리



금승리 1



금승리 2



오금리 1



오금리 2



법흥리 1



법흥리 2



헤이리 예술마을



축현리 1



축현리 2



축현리 3



갈현리 1



갈현리 2



갈현리 3



프로방스 마을

풍요로운 삶의 보고 '약산골'

노두호 (파주시 탄현면 약산로)

| 글 | 권혁임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연안 지역인 법흥리 너른 벌판은 내 유년의 시절에 뛰어놀던 놀이터였고, 청년의 시절에는 꿈의 무대, 중장년의 시절에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리고 구십을 바라보는 지금의 나에게 풍요로운 삶의 보고이다.

약수가 나는 산골마을

나는 1933년 1월 16일(음)에 탄현면 법흥리(法興里)에서 아들만 셋인 집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큰 형과는 아홉 살, 작은형과는 다섯 살 차이로 형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집안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1912년 공릉천 정비 사업으로 송춘리를 돌며 돌아 흐르던 강을 곧게 펴서 그 주변을 논으로 개간하였다고 한다. 개간 사업이 마무리되자 넓은 들이 생겼고 송춘리에서 살던 교하노씨(交河盧氏)들이 법흥리 약산골로 이전해 와서 살았다고 한다.

큰 절이 있어서 법회가 자주 열렸고, 불법(佛法)을 흥왕하게 하였다 하여 법흥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약산골이라는 아름다운 마을 명도 일제강점기 지도를 보면 약수동(藥水洞)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약수가 나는 산골짜기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내 나이 다섯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께 대한 기억이 없다. 사랑채가 본채에서 두어 발짝 떨어져 있는 남서향의 ㄱ자 초가집에서 네 식구가 살았다. 어머니와 형들은 거의 논에 가서 일하였고, 그 덕으로 나는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탄현국민학교 갈현분교(현 갈현초등학교) 제2회 졸업생인 나는 문산농업중학교(현 문산중학교), 문산농업고등학교(현 문산제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 당시에는 학교까지 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이라 15리 길을 걸어서 오갔다.

제대와 결혼

군대 제대 후 형들을 도와 농사일을 하던 스물여섯 살 되던 해인 1959년, 당숙의 중매로 탄현면 만우리에 살고 있던 우씨 성을 가진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는데, 그때 아내의 나이는 스물두 살이었다.

결혼한 이듬해인 스물일곱 살에 미군 부대에 취업, 광탄면과 문산 선유리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였다. 하지만 서른다섯 살 때 미군 부대를 그만두어야만 했다. 작은형은 6.25전쟁 때 유명을 달리하였고, 큰형은 미국에 이민 갔기 때문에 40마지기의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였다.

대농이라 식구끼리 할 수 없어 일꾼을 두었는데, 사랑채에서 기거하였으나 한 가족처럼 살았다. 같은 밥상머리에 앉아 식사하였고, 의복 준비에서 빨래까지도 아내가 전담해 주었다. 우물에서 두레박질로 물을 퍼서 빨래하던 시절이라 한겨울에는 손이 떨어져 나갈 듯 시렸을 텐데 아내는 단 한마디의 불평 없이 그 역할을 잘해주었다. 그뿐 아니라 나의 2년간의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길과 3년간의 이장의 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새마을 운동의 바람

1980년 9월 ‘새마을지도자 파주군협의회’, ‘파주군새마을부녀회’ 설립을 시작으로 탄현면에도 새마을 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약산골 마을 마을에 새마을 노래가 새벽부터 울려 퍼지고, 마을의 환경 개선 사업인 마을 안길 정비사업, 지붕 개량사업, 담장 바로잡기 사업 등이 주민의 자조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마차조차 오갈 수 없었던 길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건설되었고, 초가지붕은 튼튼한 함석지붕으로 교체되었다.

1990년 12월부터 시작된 통일동산 조성사업으로 인해 내가 살던 집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전답과 산이, 그리고 개천이 없어지고 그 일대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내가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터, 이주단지로 이전하였다. 내가 태어나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법흥리 878번지”에서 이주단지 지번인 “법흥리 1598-15”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새 주소 사업 때문에 “약산로 31”로 주소를 부여받았다. 약산골에서 그 이름을 딴 약산을 달고 있으니 꽤 다행한 일이다.

전형적인 연안 지역이어서 해질녘이면 친구들과 강가에서 참게를 잡고, 장마라도 질라치면 강물을 타고 올라온 고기를 논에서 잡던 약산골은 이제 그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교통과 주거환경이 편리해져서 살기 좋다. 금촌이라도 갈라치면 거의 5리나 되는 갈현삼거리까지 걸어야 했던 길, 쥐들이 천장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로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은 이제 추억의 행간에 자리하고 있다.

축현리와 함께 한 일생

안태현 (파주시 탄현면)

| 글 | 김정희



들판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날 탄현면 축현리 안태현(1938년생)씨 집 가는 길은 전형적인 시골의 마을길로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었다. 가을걷이가 바쁜 농사철이어서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 아침 일찍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여 이른 아침에 작업장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파주시농촌자원지도자 회장으로 30대부터 탄현면 발전에 앞장섰다. 새마을 운동을 현장에서 지휘하였으며 금촌농촌지도자 사무실 건립추진위원장으로 현재 금촌농촌지도자 사무실을 있게 하였다. 또 10여 년 동안 방촌영정각 도유사와 윤관 장군을 모신 여충사의 도유사 등 유림활동도 하면서 파주의 발전에 참여하였다.

축현리의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으로 산림녹화, 지붕개량, 마을길 넓히기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우리 동네는 길이 취약하여 동네에 차가 들어올 수 없어서 마을 길 넓히기 사업이 꼭 필요하였죠. 마을사람들을 설득하여 가구마다 쌀 한 가마씩을 추렴하여 포장길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형편이 어려운 집은 쌀 한 가마를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계를 만들어 추렴한 쌀로 마을길을 넓힐 수 있었어요. 우리 마을부터 탄현중학교까지 신성레미콘 회사에서 콘크리트를 사다가 길을 넓혔어요. 또 개인 땅이 길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땅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였는데 땅값을 싼값에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곤란하기도 하였지만 인심 좋은 마을 사람들 덕분에 원활하게 잘 정리가 되었죠.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수로가 만들어졌는데 화석정 앞의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 올리고 배수로를 만들어 탄현면까지 농수로가 이어졌는데 농수로가 생기면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더욱더 살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축현리 전기 추진 위원회

축현리는 탄현면의 다른 지역보다 전기가 늦게 보급되었어요. 전방지역만 전기를 보급하고 우리 동네는 후방이라고 전기 가설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탄현면 전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네사람들과 그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박명근씨를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마을의 사정을 이야기 하여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기 가설비용으로 가구마다 오천원씩을 걷었는데, 당시 석유 천원어치만 사면 1년 동안 석유등을 켤 수 있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기가설을 원치 않던 가구는 빼고 어렵게 마을에 전기가 들어 왔는데 전기가 들어오자 반대하던 집들도 전기를 가설하였지요.

마을 이장으로 주민들의 화합에 앞장

마을 이장을 하게 되면 추곡(가을)과 하곡(여름)에 마을사람들에게 조금씩 추렴하여 마을 잔치를 벌였는데 항상 자금이 부족하여 이장이 부족분을 매우는 것이 관례가 되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이장을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살림살이가 힘든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되어서, 여름에 걷는 하곡을 없애고 추곡 때만 마을 잔치를 벌여 마을사람들이 형편에 맞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큰 부담 없이 일 할수 있는 마을이 되었죠.

동네잔치를 할 때 마을공동 그릇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회의를 통하여 가구마다 천원씩을 추렴하여 마을공동 그릇을 마련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였어요. 옛날에는 살기가 어려워 숟가락 하나도 귀하였는데 마을 잔치가 끝나면 수저가 없어지기도 하여 생각 끝에 수저 자루에 구멍을 뚫어 놓으니 수저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마을의 민속놀이 '농악'

축현1·2리가 합쳐 명절날이면 농악놀이를 하였어요. 그때는 농악을 좋아하여 농사일 하면서도 밥 먹고 쉬는 시간이면 모여서 농악을 즐겼죠. 축현리에 사는 형이 금산리에 사는 동생에게 농악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금산리가 농요로 더 유명해졌어요. 옛날에는 농악놀이 중 축현리 깃발을 들고 가는 팀과 금산리 깃발을 들고 가는 팀이 만나면 금산리 깃발을 든 사람이 축현리 깃발을 든 사람에게 절을 하고 가던 때도 있었어요.

마을 앞까지 배가 들어왔던 탄포마을

탄현면은 탄포라 하여 옛날에는 마을 앞에 보이는 도로 앞까지 배가 들어 왔는데 지금은 강이 메꿔지면서 땅이 넓어졌어요. 강이 가깝고 들판이 넓다 보니 주로 쌀농사를 많이 짓는데 탄현미가 밥맛이

좋다고들 해요.

임진강 건너 북한 땅이 가깝다 보니 북한에서 간첩이 자주 넘어오기도 하였고, 이웃마을 사람이 대동월북한 일도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예비군이 보초를 서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예비군이 실탄을 장전하고 보초를 섰어요.

변하지 말고 자연부락으로 남았으면...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축현리가 변하지 말고 자연부락 그대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공기도 나빠지고 동네 인심도 점점 각박해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2남 5녀 중 미국에 아들 하나와 딸 셋이 이민 가 있는데, 보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오래 비행기 타는 것이 힘들어 못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현리에서 나고 자라 터전을 일구고 지금까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태현씨는 80이 넘는 노구에도 농사일을 하며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의 농촌 마을이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격동기 마을의 지도자로 열심히 살았던 그의 이야기가 축현리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마을 이야기가 되기를 바란다.

가난을 이기고 일궈 온 문화인의 삶

우관제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 글 | 표석정



우관제 원장은 단양우씨 30세손으로 정평공파조의 20세손이다. 파주시 탄현면 161번지에서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가훈인 ‘근면·절약’ 정신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배고픔의 설움과, 가정이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꿋꿋하게 고향마을을 지켜왔다. 점차 고향과 농촌마을에 대한 잊혀져 가는 전통과 문화에 대해 맥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왔다.

가족 소개

모친이신 이옥희 여사, 부인 장묘순 여사, 아들 둘과 딸이 있으며, 손주와 손녀가 있다.

모두가 가난했던 어린시절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살던 그는 네 살 때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옆 동네인 탄현면 축현(갯골)리로 피난했다가 다시 만우리로 돌아와 초등학교 시기를 보냈다. 전쟁이 훑고 지나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안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아니 가난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을 의식하기에는 상대적인 것이 별로 없던 시기였다.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춥고 가난 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 따뜻한 일도 참 많았던 시절이었고 한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원장의 얼굴에는 행복했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추억을 회상하는 흐뭇한 미소가 간간히 번지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경찰서장이 주는 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 당시 공부를 잘하였어도 집안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고 꼴을 베다 소를 키워야만 했었다.

자전거와 학창시절

어려운 형편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문성중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매일같이 30리 길을 걸어서 통학을 하였다.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밥을 차려주신 어머니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허리끈을 졸라매가며 아들에게 자전거를 마련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공부만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여겨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의 어릴 때 꿈은 천석꾼이 되어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의 꿈은 집념이 되어 문산농고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조카의 가정교사로 일하였고, 아버님께서 하시는 농사일도 열심히 도우면서 농부의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갔다.

군대 시절

육군 포병으로 광주 송정리에서 35개월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제대를 하였다. 그의 뛰어난 손재주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하였다.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의 머리를 이발해 드려서 '장마루촌의 이발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천석꾼의 꿈을 위한 노력

1965년 마을에 엄청난 수해와 흉년으로 제방이 터져버렸다. 그 바람에 1년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가고 겨우 13가마의 쌀을 수확하였으나, 그 쌀로 다음 해까지 버티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일을 경험으로 발동기를 구입하여 지하수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그의 천석꾼 꿈이던 농토를 점차 늘려 나갈 수 있었다. 수해와 흉년의 경험은 그를 농사꾼으로서 터전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나 그의 탁월한 능력은 농사꾼이 되겠다던 그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농사를 짓기만 하는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4-H운동을 바탕으로 자립·자조·협동을 통해 농촌마을의 의식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였고, 새마을 운동 때 취락구조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하는 마을을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사회정화위원회,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등에서 활동하였고, 당시 파주지역의 가장 큰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창설했다. 이후 탄현농협 이사, 민자당 탄현협의회장, 단양우씨 정평공파 종회장, 성균관 유도회 중앙위원, 파주시의원(1998), 단양우씨 대종회장, 파주문화원 이사·감사·부원장·원장 등의 직을 수행했다. 또한 향토예비군중대장이란 중책을 수행하면서 국토방위업무에 기여했다.

이렇게 마을과 지역의 발전에 늘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 농협이사 3선으로 농협발전에 헌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살아온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아버님이 소작농을 하

며 배고픈 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천석꾼이 되어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대농을 꿈꾸며 살아왔던 그가 농사를 전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발동기 사업으로 늘려나간 농토를 자식과 갈을 만큼 애지중지 가꾸고 보살피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최고 800가마의 농사를 지을 때도 있었다. 그러던 중 당시 자유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정책에 4,000여 평의 논을 수용당하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취락구조사업을 맡아서 하였으나 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주하여 경제적인 손해를 크게 입게 되었다. 1994년에 철물점을 시작하였으나 외상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손해를 보았고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섰다가 수억대의 돈을 날리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역에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많은 재산을 잃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동안 너그럽게 기다려주고 믿어준 아내에게 한 없이 감사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여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활동

파주문화원장에 재임되었다. 문화원 활동이 18년째다. “문화원장은 지역에서 모범을 보이는 주민의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해요.”라는 우관제 원장은 올해 73세로 부단한 행군 속에 수많은 직함을 뒤로하고 지역의 어르신으로 존경받아 왔다. 파주시는 그에게 2017년 ‘파주시 문화상’을 안겼다.

파주시 문화상은 파주 향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상이다. 이 상의 수상은 문화원에서의 20년 가까운 활동에 가장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한편 우관제 원장은 풍수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파주시의 유명한 풍수지리사로도 활약하고 있고 선거관리사 자격도 취득하여 다방면으로 유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상내역

대통령표창(2010), 파평윤씨 대종회 감사패, 경기도교육감사패, 성균관총본회장공로패, 단양우씨 대종회공로패, 파주시장공로패, 탄현을 빛낸 동문상, 단양우씨 정평공파공로상(2012), 장수황씨 대종회 감사패, 자랑스런 선배상, 파주시 문화상(2018), 성균관장상(2018) 등을 수상하여 지역발전과 종친간의 우애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150년 익은 가루개 집터에서

이동호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 글 | 권혁임



가루개와 정미소

침낭쿨이 많다 하여 ‘가루개’, ‘가루고개’라고도 불리던 갈현리(葛峴里) 421번지의 움막에서 나는 1952년 5월 18일(음)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집터는 현재 갈현초등학교가 있는 당산 밑에서 사시던 증조할아버지께서 1860년대에 부모님을 모시고 이사 오셨다고 한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온 가족은 피난 갔고, 이듬해인 1.4후퇴 때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집에 불을 놓아 소실되었기 때문에 움막을 짓고 살게 된 것이다.

전쟁 중에 고·증조할아버지와 나의 바로 위 형과 누나가 돌아가셔서 증조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삼촌 가족 이렇게 4대가 움막에서 살다가 1955년도에 지금의 집을 지었다.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집에 사용한 목재를 강원도에서 주문하여 왕십리를 거쳐 갈현리까지 마차로 실어 왔다고 한다. 그 수고로움으로 대청의 대들보와 인방, 동자주의 나뭇결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며 정미소를 운영하셨다. 그래서 삼촌 가족까지 14명 대가족이 유복하게 살 수 있었고, 세상 떠난 형과 누나를 제외한 2남 4녀의 둘째로서 나는 부족함 없이 자랐다.

주판쟁이

1958년 갈현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제16회로 졸업하고, 문산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내가 중학교 다니던 당시에는 버스가 한 시간마다 한 대가 운행되었기 때문에 학교까지의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녔는데, 버스비 5원을 아껴 과자를 사 먹는 재미는 꽤 쏠쏠했다.

중학교 시절 그 누구보다도 주산을 잘 놓아 주산부에서 활동하던 나는 주산과 관련한 직장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1967년 서울에 소재한 보인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계획했던 대

로 1970년 졸업과 동시에 어렵지 않게 삼성전자에 취업하였다.

전자산업이 태동하여 라디오가 국산화된 지 10여 년, 그 시절에 녹음기와 라디오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을 최초로 만드는 일에 나는 참여하였다. 취업한 지 2년 되던 해인 1972년 1월 4일 나는 공군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1974년 12월 31일 제대한 후, 통신기기에서 세계 제1위를 자랑하는 NEC(日本電氣, Nippon Electric Company)에 취업하여 브라운관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다.

아버지는 내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니 장사를 하라고 독려했다. 아버지의 원에 따라 대한극장 앞에 있던 무역회사를 다니던 중에 탄현면 대동리에 사시던 외삼촌의 중매로 처를 만나게 되었다. 외모가 뛰어난 데다가 외삼촌이 얼마나 탐났으면 조카며느리로 삼고 싶으실까 싶어 1977년 11월 12일 약혼하고, 이듬해인 1978년 11월 12일에 결혼하였다. 그리고 1979년 11월 12일에 첫아들 정찬이가 태어나자 ‘주판쟁이 아니랄까 봐 낱짜를 기막히게 맞추네’라며 여러 사람이 우스갯소리들을 하였다.

농사에 매진하다

1984년 할머니에 앞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살아생전에 할머니를 잘 모시자는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기계 영농을 도입하고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더니 1989년 이장이라는 직임을 받게 되었다. 1991년도까지 탄현면사무소와 갈현리를 오가며 열심히 일한 결과 1992년부터는 3년간 새마을지도자로 일하였다. 그 당시 새마을사업의 주된 일은 방역사업으로서 갈현리에서 유일하게 운전면허증이 있던 나에게 방역 차량 운행은 피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기도 했다.

탄현면 이장단에서 총무, 탄현 농촌지도자회에서 총무, 농협 이사로 봉사하였더니 2002년도에 제 11대 탄현농협장으로 선출되고, 이어서 제12대에도 선출되어 탄현 농민을 위하여 일하다가 2010년 3월 14일 농협장직에서 퇴임했다.

돌아보니 아내가 참 고맙다. 4대 14식구, 게다가 머슴까지 사는 집으로 시집와 식사 때마다, 남편 밥상, 학생이던 동생들 밥상, 할머니, 시어머니 밥상, 머슴 밥상 등 4번의 밥상을 차려 내면서도 얼굴 한번 안 찌푸렸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협장으로 있는 동안 집 일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내게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요즈음 들어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내게 말을 건넨다.

새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안 좋다고 어머니는 바로 아래 동생을 부엌에서 나셨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머니날을 제정한 1956년, 바로 그해에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부엌의 아궁이 앞에서 해산하신 것이다. 고조할아버지로부터 150여 년 동안 이어 살아오고 있는 탄현면 갈현리 421번지 집터 위, 2019년 11월 12일의 하늘이 푸르다.

고향을 지키는 마을 어른으로 남고 싶은 마음

이병섭 (파주시 탄현면)

| 글 | 김정희



이름이 정겨운 오금리 마을에 사는 이병섭(1936년생) 씨를 찾아가는 길 주변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길을 잘 못 들어 동네사람에게 물으니 인심 좋게 자세하게 가르쳐준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그의 집에 도착하니 불편한 몸인데도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안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우리 마을은 까마귀가 찾아준 명당자리

오금리에서 태어나 군대 제대 후 부터 계속해서 이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오금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옛날에 질오목과 오금부락으로 되어 있었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질오목의 ‘오’자와 오금리의 ‘금’자를 따서 오금리로 부르게 되었어요. 오금리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유래는 다음과 같아요. 조선 세종 때 밀산군 박중손이 사망하자 지관이 명당자리를 찾던 중 매봉재 아래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 그곳에 가보니 과연 명당자리가 있어 까마귀가 도왔다 하여 ‘오고미’라 하였는데 오금리로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유래가 있는 마을 도로명이 오금로가 아닌 장수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15세 일어난 한국전쟁

탄현초등학교 14회 졸업생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교생 수가 1,500여 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3개 반으로, 한 반 학생 수가 80명이었으니 꽤 큰 학교였죠. 탄현초등학교 때 담임이었던 장기엽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 그분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새삼 느껴요.

문산중학교에 입학하였어요. 그 당시 문산중학교는 선유리에 있었고, 탄현에서 선유리까지 8km를 걸

어 다녔어요. 학교 가는 길에는 군인 트럭들이 많이 다녔는데, 트럭이 지나가면 학생들은 너 나 없이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었고 운이 좋은 날은 군인 트럭을 얻어 탈 수 있었어요. 열다섯 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오금리 앞 큰길로 피난민들이 줄을 지어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집은 피난을 가지 않았고 산속에 숨어 있던 일이 생각납니다.

북한과 가까운 마을

오금리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아주 가까운 마을이에요. 지금도 농사를 지으러 갈 때는 출입증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출입증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가요. 북한에서 총을 쏘면 밭일을 하던 동네사람이 부상을 당하기도 할 정도로 북한과 가까운 곳이죠.

오금리의 새마을 운동

새벽 5시면 마을방송 스피커로 새마을 노래를 틀면 온 마을에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그 당시에 새마을 노래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새마을 사업 중 마을 넓히기 사업을 하었는데 마을길을 넓힐 때 개인 땅을 수용하게 되면 절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인심이 좋아서 동네사람들을 위해 개인 땅을 무료로 내놓기도 하였어요. 마을길이 넓혀지면서 농기계도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농사짓기가 편해지고 마을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공동 퇴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마을에 있는 잡초를 뽑아서 퇴비를 만들어 농사에 이용하기도 하였어요. 지금은 산림녹화사업으로 산에 나무가 많아졌지만 1970년대만 하여도 우리 마을 주변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 땀감을 하러 내포리 쪽까지 가기도 하였지만 늘 부족하였죠. 그래서 곡초를 대신 땀감으로 사용하였는데 겨울이 되면 방 안에 물이 꿈뽕 어는 것이 예사였죠.

하천 정비하였던 일이 가장 보람

오금리 이장을 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협조를 잘해주어 일하기 쉬웠어요. 우리 마을이 새마을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대통령 하사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어요. 마을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

하다 그 돈으로 하천 정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금리 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굽어져 있다 보니 독이 터져 물이 넘쳐서 동네가 물난리가 나는 일이 많았어요. 마을사람들과 힘을 합쳐 하천 정비 작업을 한 후부터 물이 넘치는 일이 없어서 홍수에도 걱정 없이 살게 된 것이 보람으로 남아요.

앞으로 바라는 점

산업화가 되면서, 마을 산을 깎아서 물류창고를 짓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공업화되어 안타까워요. 그냥 인심 좋은 농촌마을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즈음은 다리가 많이 아파 직장에 다니는 큰아들이 와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움직이며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고향에 가면 오랜 고목처럼 묵묵히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이 있어 고향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듯하다. 오금리 마을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되었으면 하는 이병섭 씨의 바람처럼 오랫동안 아름다운 마을로 지속되기를 바란다. 까마귀의 전설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그 이름이 남아 있는 마을로 남기를 바란다.

문화 역사 관광의 땅, 탄현마을지

발행처 | 파주시(1039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경기문화재단(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기 획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센터
편 집 | 파주문화원
연락처 | 031-941-2425
발행일 | 2019년 12월 20일
ISBN | 979-11-968530-4-4

